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朝鮮時代 濟州道 佛像研究
- 紀年名 佛像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李 榮 文

木浦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考古學專攻

金 昌 化

2009年 2月

碩士學位論文

朝鮮時代 濟州道 佛像研究
- 紀年名 佛像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李 榮 文

木浦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考古學專攻

金 昌 化

2009年 2月

朝鮮時代 濟州道 佛像研究
- 紀年名 佛像을 중심으로 -

The Study about Jeju Buddha Statues in Joseon Dynasty

指導教授 李 榮 文

木浦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考古學專攻

金 昌 化

朝鮮時代 濟州道 佛像研究
- 紀年名 佛像을 중심으로 -

木浦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金 昌 化

上記者의 文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崔 盛 洛 (印)

審査委員 崔 仁 善 (印)

審査委員 李 榮 文 (印)

2009年 2月 日

목 차

ABSTRACT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제2절 선행연구	3
제2장 제주 지방의 불교	6
제1절 조선시대 불교	6
제2절 제주 지방의 불교	10
1. 조선시대 이전의 제주불교	10
2. 조선 시대 및 근·현대의 제주불교	13
제3장 조선시대 제주도 기년명 불상의 형식과 복장물	23
제1절 기년명 불상 소장 사찰연혁 및 불상형식	23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23
1) 사찰연혁	23

2) 불상의 형식	24
2.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25
1) 사찰연혁	26
2) 불상의 형식	26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28
1) 사찰연혁	28
2) 불상의 형식	28
3)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좌상	30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32
1) 사찰연혁	32
2) 불상의 형식	33
5.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35
1) 사찰연혁	35
2) 불상의 형식	35
6.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37
1) 사찰연혁	37
2) 불상의 형식	38
3) 별교 용연사 석조구류손불좌상	39
 제2절 기년명 불상의 복장물	 41
1. 복장물의 구성	41
1) 발원문	43
2) 후령통	46
3) 오보병	47
4) 오류종자와 진심종자	49
5) 사방주와 오방경	50
6) 황초폭자	50

2. 기년명 불상의 복장물	51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51
가) 기문류	51
나) 후령통	57
2)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61
가) 기문류	61
나) 후령통	65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65
가) 기문류	65
나) 후령통	72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72
5)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77
가) 기문류	77
나) 후령통	83
6)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83
가) 기문류	83
나) 후령통	88
 제4장 제주도 기년명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조각승	89
 제1절 조선시대 불전과 불상의 양식적 특징	89
 제2절 제주도 기년명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조각승	94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94
2.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96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99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02
5.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07

6.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110
제5장 결론	113
참고문헌	118
1) 사서류	118
2) 단행본	118
3) 논문	121
국문초록	127
<부록>	
부록 1. 도판목록	130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130
2)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36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140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45
5)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48
6)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152
7) 참고도판(조각승 수일 작)	157
부록 2. 제주도 기년명 불상조각의 비례 현황	159
부록 3. 그 밖에 서산사 관련자료	160
부록 4. 그 밖에 월계사 관련자료	161

부록 5. 그 밖에 삼광사 관련자료	166
부록 6. 그 밖에 관음사 관련자료	167
부록 7. 그 밖에 용문사 관련자료	172
부록 8. 그 밖에 정방사 관련자료	174
부록 9. 순천 대흥사 관련자료	179

<표 목차>

표 1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제주의 사찰	14
표 2 불교 포교현황(1926년)	18
표 3 불교(1930년)	18
표 4 포교현황 (1930-1936년)	18
표 5 불교 포교 현황(소화 13년말(1938년) 현재)	19
표 6 제주도 종교단체 상황(1968. 12. 31 현재)	19
표 7 제주도 종교단체 현황(1976. 12. 31 현재)	19
표 8 제주도 문화예술 현황(1995년)	20
표 9 제주도 문화예술 현황(2000년)	20
표 10 제주도 문화예술 현황(2003년)	21
표 11 제주도 사찰 문화재 유형별 조사 현황	21
표 12 제주도 불교문화재 현황(2007. 12월 현재)	22
표 13 喉鈴筒 발견사례	60
표 14 性還에 대한 자료	81
표 15 道性에 대한 자료	81
표 16 明學에 대한 자료	81
표 17 懷俊에 대한 자료	82
표 18 정방사와 용연사 발원문 비교	86
표 19 정방사와 용연사 복장물 비교	88
표 20 香嚴 불상조각의 예	95
표 21 彫刻僧 雲惠 조성 불상	98
표 22 色難 불상조각의 예	104
표 23 色難의 계보에 속하는 조각승	105
표 24 一機의 불상조각의 예	107

<그림 목차>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130
그림 1 서산사 전경	130
그림 2 서산사 대웅전	130
그림 3 목조보살좌상	130
그림 4 뒷면	130
그림 5 우측면	131
그림 6 좌측면	131
그림 7 상호	131
그림 8 수인	131
그림 9 바닥면	131
그림 10 발원문(1-1)	132
그림 11 발원문(1-2)	132
그림 12 발원문(1-3)	132
그림 13 발원문(1-3) 화원부분	133
그림 14 발원문(1-4)	133
그림 15 불상복장의(2-1)	133
그림 16 개금불사기문(3-1)	133
그림 17 개금불사기문(4-1)	133
그림 18 금강수보살주문	134
그림 19 사리3과	134
그림 20 팔엽대홍련과오방경	134
그림 21 백옥제보탑	134
그림 22 호박 6과	134
그림 23 수정 2과	134
그림 24 약초봉지	134
그림 25 서산사 비석군	135
그림 26 향엄 제작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상과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뒷면 비교	135
2) 월계사 목조보살좌상	136
그림 27 월계사 전경	136

그림 28 목조아미타불좌상	136
그림 29 뒷면	136
그림 30 우측면	137
그림 31 좌측면	137
그림 32 바닥면	137
그림 33 복장공	137
그림 34 상호	138
그림 35 수인	138
그림 36 발원문	138
그림 37 발원문의 화원 부분	138
그림 38 복장물	139
그림 39 圓覺經	139
그림 40 창건 관련 비석군	139
그림 41 비석	139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140
그림 42 삼광사 대웅전	140
그림 43 목조보살좌상	140
그림 44 뒷면	140
그림 45 우측면	141
그림 46 좌측면	141
그림 47 상호	141
그림 48 수인	141
그림 49 바닥면	142
그림 50 복장공	142
그림 51 황초폭자	142
그림 52 오보병	142
그림 53 발원문	143
그림 54 발원문 중 화원 부분	143
그림 55 다라니	144
그림 56 신안일심사 목조보살좌상	144
그림 57 뒷면	144
그림 58 신안 일심사 발원문	144

그림 59 신안 일심사 복장물	144
4)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145
그림 60 관음사 전경	145
그림 61 관세음보살좌상	146
그림 62 상호	145
그림 63 수인	146
그림 64 우측면	146
그림 65 좌측면	146
그림 66 부도 및 비석군	147
5) 용문사 목조보살좌상	148
그림 67 용문사 대웅전	148
그림 68 목조석가여래좌상	149
그림 69 좌측면	149
그림 70 상호	149
그림 71 수인	149
그림 72 바닥면	150
그림 73 복장공	150
그림 74 발원문	150
그림 75 발원문의 화원부분	150
그림 76 후령통	150
그림 77 화엄경	151
그림 78 다라니	151
6) 정방사 목조보살좌상	152
그림 79 정방사 대웅전	152
그림 80 석조여래좌상	152
그림 81 뒷면	152
그림 82 우측면	153
그림 83 좌측면	153
그림 84 상호	153
그림 85 수인	153
그림 86 바닥면	154
그림 87 복장공	154

그림 88 발원문	154
그림 89 발원문 중 화원 부분	155
그림 90 후령통	155
그림 91 다라니경	155
그림 92 불구 1	155
그림 93 불구 2	155
그림 94 불구의 새겨진 글씨	155
그림 95 정방사 비석군	156
그림 96 별교 용연사 석조구류손불좌상과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수인 비교	156
7) 참고도판(조각승 수일 작)	157
그림 97 대구 달성 소재사 지장보살상	157
그림 98 소재사 시왕상	157
그림 99 거제 세진암 삼존불	15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주도에 불교가 언제 전래되고 절은 어느 때부터 지어졌는지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주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백제, 신라부터 대륙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문물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미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건립되었으며 佛書가 개간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교가 융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주도의 불교는 육지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쇠퇴일로로 걷게 되었다. 그 후 1908년 안봉려관 스님이 觀音寺를 창건한 이후 제주 지방에는 많은 사찰이 건립되었고 그에 따라서 육지부에서 제작된 불상들이 제주로 옮겨지게 되었다.

제주에서 발견되는 조선 후기에 조성된 불상들은 예배와 믿음의 대상으로 여러 사찰의 전각에 봉안되어 있다. 이 시기 제작된 상들은 20cm부터 100cm까지 크기가 다양하고 재료도 나무, 흙, 돌 등이 주종을 이루면서 적게나마 금속으로 제작된 것도 남아있다.

이들 불상 내부에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腹藏儀式을 진행하여 내부에 發願文, 喉鈴筒, 經典, 陀羅尼 등 다양한 腹藏物¹⁾을 安立²⁾하였다.

조선후기 불상에도 매우 정형화된 腹藏物과 함께 발원문에는 制作年度, 奉安處, 尊名, 目的, 緣化秩, 施主秩 순으로 적혀 있어 봉안장소, 후원자, 彫刻僧 등 불상조성에 관한 모든 자료 및 정보가 들어있다. 이들 制作年代와 彫刻僧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불상들을 통하여 불상 양식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彫刻僧 개인의 작품 양식 변천 및 조각 유파의 형성과 변화까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발원문에는 작품에 관련된 거의 모든 승속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불상 조성시 후원자 등도 알 수 있어 彫像을 이해하는데 더욱

1) 정은우. (2001). 고려 후기 불교 조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pp. 31-44.

2) 이선용. (2005). 佛腹藏物 구성과 직물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다른 논문에서는 安置, 일본에서는 納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1824년 楡岾寺板造像經 喉鈴筒內 安立次第條 와 黃綃幅子內安立次第條에서 ‘安立을 ‘넣는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주도의 몇몇 사찰에 봉안된 불상 내부에서 조선시대에 安立한 腹藏物들이 발견되었다. 복장물 가운데 발원문에는 정확한 제작연대, 조각승, 시주자와 연화자의 이름 등 16-17세기 불상제작에 관련된 자료들이 모아져 있다. 제주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후기³⁾ 기년명 불상은 모두 6구로 서산사 목조보살좌상(1534년)을 비롯하여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61년), 삼광사 목조보살좌상(1671년),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98년 개금),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1700년?), 정방사 석조여래좌상(1702년) 등이다.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을 조성한 彫刻僧 香嚴·智軒·倚奉七伊, 月溪寺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조성한 雲惠·尙全, 삼광사 목조보살좌상을 조성한 應慧와 戒贊, 觀音寺 관세음보살상을 개금한 色難,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을 조성한 進悅, 정방사 석조여래좌상을 조성한 守日의 상들이다. 제주 지방에서 발견된 기년명 불상과 육지부에서 발견되는 동일계통의 상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식적인 특징을 고찰하고 조선 후기 불교 조각사에 편년을 설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에서 발견된 기년명 불상들에 대한 양식과 도상적 특징을 고찰하여 조선 후기 조각사에 있어 차지하는 의의를 밝혀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지를 전개한다.

첫째, 조선시대의 불교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이전 불교 및 조선시대의 제주불교와 근대 제주불교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제주지방에 소재한 기년명 불상과 타지에서 발견되는 관련 불상을 중심으로 하여 양식적인 특징과 불상의 원소장처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불상 내부에 安立되는 복장물을 造像經과 비교하여 복장물의 물목을 파악하며 제주지방에 소재한 기년명 불상의 조성 발원문을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불상을 만든 장소와 봉안장소, 불상 조성에 참여한 시주자 및 화원들을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조선시대 불전과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알아보고, 불상을 제작한 彫刻

3) 문명대. (2003). 삼매와 평담미. 예경. p. 266.

조선조 조각 형식의 후반기는 인조에서부터 순조말년(1630-1910년)까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견해에 따른다.

僧을 중심으로 하여 그 계보와 불상양식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16, 17, 18 세기 불상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연구

조선 후기 불교 조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는 2000년 부터이다. 1980년대까지 불상 연구는 개별 불상의 양식과 발원문을 소개하는 자료·조사적 성격이 강하였다.⁴⁾ 1990년대 들어서 목각불탱, 사천왕상, 소조불 상에 대한 도상, 재료, 양식적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조선 후기 불상 연구의 중 요성이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하였지만⁵⁾ 조선 후기 불상은 대부분 정형화되어 변화의 정도가 미미하여 양식적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⁶⁾ 그러나 17세기 불상 은 많은 수량과 문헌 기록을 수반하고 있어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새 로운 방법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1990년대 조선 후기 불화와 범종 연구는 그것을 제작한 화원과 주종장을 중심으로 활동 시기와 양식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면서 화파와 계보 및 변화과정까지 연구되었다.⁷⁾ 이에 따라 최선일은 불상 내에서 발견된 발원 문과 사적기 등을 수집, 분석하여 17세기 후반에 전라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色難과 그 계보를 밝혀내어 조선 후기 彫刻僧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⁸⁾

4) 홍사준. (1976). 홍산 무량사 극락전 발견 주존불 복장품. 미술자료 19. 국립중앙박물관. pp. 29-31.

유홍준. (1999). 비슬산 명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미술자료 62. 국립중앙박물관. pp. 73-81.

윤종균. (2002). 범주사 대웅보전 삼신불 복장조사. 동헌학술논문집 5. 한국고고미술연구소. pp. 127-153.

5) 노명신. (1994). 조선 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pp. 97-126.

이종문. (1996). 조선 후기 후불목각탱 연구. 미술사학연구 209. pp. 39-96.

심주완. (2002). 임진왜란 이후의 대형소조불상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33·234. pp. 95-138.

6) 문명대. (2003). 삼매와 평담미. 고려·조선 불교조각사 연구. 예경. p. 268.

7) 안귀숙. (1988). 조선 후기 주종장 사인비구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 9. 동국대학교 박물관. pp. 97-126.

이은희. (1991). 운흥사와 화사 의겸에 관한 고찰. 문화재 24. 문화재연구소. pp. 195-211.

안귀숙. (1994). 조선 후기 불화승의 계보와 의겸 비구에 대한 연구(상). 미술사연구 8. pp. 63-137.와 조선 후기 불화승의 계보와 의겸 비구에 대한 연구(하). 미술사연구 9. pp. 153-201.

8) 최선일. (2000). 조선 후기 전라도 彫刻僧 색난과 그 계보. 미술사연구 14. pp. 35-62와 일본 고려미술관

17세기 중반의 雲惠⁹⁾, 18세기 전반의 進悅¹⁰⁾, 18세기 중반의 상정, 18세기 후반의 계초와 봉현 등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¹¹⁾ 또한 송은석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17세기 불상을 조사하여 발원문을 통한 제작 조각승과 조각승 유파를 분류하고 조선 후기 불상의 변화과정을 찾고 있다.

한편 17세기 전반의 현진¹²⁾, 17세기 중반의 무염¹³⁾, 청현¹⁴⁾, 勝日¹⁵⁾, 혜회¹⁶⁾, 熙藏¹⁷⁾, 應慧¹⁸⁾, 인균¹⁹⁾ 등의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성과로 인하여 조선 후기 활동한 대표적인 彫刻僧은 거의 밝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彫刻僧의 활동과 불상 양식에 대한 접근을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면서 彫刻僧들의 상호관련성과 불상의 변화과정 등에 대한 접근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를 종합하여 최선일은 조선 후기 불교조각 가운데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불상을 중심으로 개별 彫刻僧의 활동과 불상 양식 및 변화과정을 정리하였다.²⁰⁾ 그리고 조선 후기(1598-1910년) 사찰의 전각에 불상을 제작하였

소장 조선후기 목조삼존불감. 미술사연구 16. pp. 137-155.

김리나. (1982).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조선시대가섭존자상. 미술자료 33. pp. 59-65.

최인선. (1994).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복장. 문화사학 창간호. 한국문화사학회. pp. 129-158.

9) 최선일. (2004). 전라남도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彫刻僧 운혜. 불교미술사학 2.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pp. 199-219.

10) 최선일. (2004). 고양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과 彫刻僧 진열. 미술사학연구 244. pp. 171-197.

11) 최선일. (2003).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彫刻僧 -계초 비구를 중심으로. 동악학술사학 4. 동악미술사학회. pp. 73-87.

12) 송은석. (2004). 17세기 彫刻僧 현진과 그 유파의 조상. 미술자료 70·71. 국립중앙박물관. pp. 69-100.

13) 문명대. (2003). 무염과 목불상의 조성과 설악산 시흥사 목아미타삼존불상. 고려·조선 불교미술사연구. 예경. pp. 402-416.

14) 이희정. (2005).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彫刻僧 청현. 불교미술사학 3.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pp. 159-184.

15) 이분희. (2004). 봉은사 삼세불상의 연구. 한국불교문화학회 하계학술세미나-봉은사의 불교문화. 한국불교문화학회. pp. 13-21.

16) 정은우. (2006). 17세기 조각사 혜회의 불상과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 사회평론. pp. 152-175.

17) 송은석. (2006). 고흥 능가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 사회평론. pp. 176-197.

18) 손영문. (2007). 彫刻僧 應慧派 불상조각의 연구. 한국불교문화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회의-白羊寺의 불교문화사적 가치. pp. 83-93.

19) 손영문. (2006). 彫刻僧 인균파의 불상조각의 연구. 강좌 미술사- 미술사의 작가와 유파 I 26. 한국불교미술사학회. pp. 53-82.

거나 중수·개금한 940여명의 승려장인들을 수록한 조선 후기 승장 인명사전을 발간하였다.²¹⁾

한편 제주도에서 조선시대 불상에 대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선행 연구는 불모지나 다름이 없다. 그 이유는 제주 지역의 불교미술이 최근까지도 중앙으로부터 사실상 소외되어 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정보문화재가 조사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연구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도내의 사찰에 소장된 불상과 정보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을 받아 대한불교조계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 10개년 계획(2002년-2011년)에 의하여 전라북도·제주도 조사결과보고서(2003년)가 발간되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된 제주 불교문화재자료집에서는 제주도내에 있는 200여 곳의 사찰 중 36곳의 동산문화재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2008년에 발간하였다.²²⁾ 이렇게 도내 각 사찰의 정보문화재가 작금에 이르러서야 조사·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 최선일. (2006). 조선 후기 彫刻僧의 활동과 불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송은석. (2007). 17세기 조선 왕조의 彫刻僧과 불상.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1) 최선일. (2007). 조선 후기 승장 인명사전. 양사재.

22) 김창화 외. (2008). 제주불교문화재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제2장 제주 지방의 불교

제1절 조선시대 불교

승유억불을 치국이념으로 하고 있는 조선왕조는 고려말 중소지주 출신의 新興士大夫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신흥사대부는 고려시대 무신정권 때 타협을 거부하고 향리로 안주하며 언젠가 중앙 정계로의 복귀를 꿈꾸어 오던 자들로서, 일찍이 성리학에 눈을 떠 정신진작을 위한 학문 탐구와 제자 육성에만 전념하였다. 마침내 이들은 기회를 잃지 않고 점차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하거나²³⁾ 토착 향리로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아갔으며, 심지어는 조선을 건국하는데 있어서도 절대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私田의 혁파 및 전제개혁 등의 사회개혁에도 적극 앞장서게 된다.

이와 함께 지배종교를 유교로 대체함에 따른 배불정책 역시 위와 같이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데서 비롯되었다. 즉 구 귀족인 권문세족과 결탁한 사원의 비대화²⁴⁾와 私田化로 인한 사원경제의 확대, 사사노비의 증가로 말미암은 생산력의 저하, 무절제한 원찰의 조영과 많은 불교행사로 인한 국고낭비의 심화 등을 척결하고자 한 조치였다. 이리하여 유교지상주의로 돌아선 조선은 삼국시대 이래 고려 때까지 오랫동안 사회의 지배적인 사상으로써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오던 불교를 저 버리고, 사찰의 정리를 비롯하여 度牒制²⁵⁾의 강화·寺院田民(토지와 노비)의 축소·屬公 등 개국 초부터 갖은 방법을

23) 한국사연구회. (1994). 제2판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p. 240.

신흥사대부들의 중앙 정치무대로의 재등장은 대명관계의 난조와 왜구의 격증으로 인하여 주로 외교적 소임을 맡으면서부터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24) 안계현. (1982). 한국불교사연구. p. 183.

보조국사 지눌에 의해 일어난 순수민중종교 운동도 사원이 권문세족과 결탁함으로써 귀족적 성향으로 변질되어 버림을 지적하고 있다.

25) 도첩이란 관청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出家 공인장이다. 중국 남북조 시대에 시작하여 당나라 때 제도화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부터 있었던 것인데 조선시대에는 억불책으로 이 제도를 강화한 것이라고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한 목적은 원래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를 저버리고 산문으로 들어가 버리는 폐단을 막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한다.

동원하여 억누르기 시작한다.

승려의 증가를 제도적으로 막아버린 도첩제를 실시하고 정부의 허락 없이는 사찰을 함부로 짓지 못하도록 한 태조의 강경한 규제 정책을 시작²⁶⁾으로 조선 제3대 왕인 태종 때(6년, 1406)에 이르게 되면 의정부의 계청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사찰들을 합사해버려 11종 242개 사찰²⁷⁾만이 남게 된다. 그 후 세종대에 이르러 선·교종으로 폐합되기까지 다시 7개 종파²⁸⁾로 줄어버린다.

또한 불교가 일어설 수 없도록 각 사찰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와 전답은 물론 노비까지도 모두 몰수해 버린다. 그리고 철폐되지 않은 사원들에 거주하는 승려의 숫자 역시 소유하고 있는 밭 100결을 기준하여 50인으로 제한하였다. 세종 초반에는 7종을 줄여 선종과 교종 두 개의 종으로 통합하고 36사를 여기에 나누어 소속시킨 뒤 전답의 결수 및 승려의 수를 한정하고 僧錄司를 폐지하였으며, 팔려 있던 노비 384명을 선·교종의 都會所²⁹⁾로 삼아 불교의 세력을 크게 약화시켜 버렸다. 성종 때는 황해도 향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한적으로 승려를 인정했던 도첩제마저 완전히 폐지하여 승려로의 출가를 절대 금지시켜 버렸다.³⁰⁾

26) 우정상·김영태. (1969). 한국불교사. 진수당. pp. 129-130.

도첩제를 시행하여 억불의 한 면도 보여주고 있지만 태조 이성계는 개인적으로 재가신도로서 조선 개국전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어 불교를 숭신하고 무학과 조구 등 승려들과 친분이 두터웠으며 스스로 호를 松軒居士라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근본적으로 불심이 돈독하여 즉위 초의 연복사탑 중창과 해인사 古塔 중수를 필두로 흥천사 창건 등의 여러 불사와 수륙도량의 설치 및 印經과 寫經, 消災會, 法席, 飯僧 등과 같은 많은 불교행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7) 권상노. (1917). 조선불교략사. p. 177.

11종 242사는 다음과 같다.

曹溪宗·總持宗 合 七十寺

天台疏字宗·法事宗 合 四十三寺

華嚴宗·道門宗 合 四十三寺

慈恩宗 三十六寺

中道宗·神印宗 合 三十寺

南山宗 十寺

始興宗 十寺

28) 朝鮮王朝實錄. 태종 7년 12월조 참조.

7종은 조계종·천태종·화엄종·자은종·중신종·총남종·시흥종으로, 이 중 총남종은 총지종과 남산종을, 중신종은 중도종과 신인종을, 천태종은 천태소지종과 법사종을 합성한 것이다.

29) 小林一郎·이능화 저, 이법화 역. (1969). 佛敎弘通史. 불교교단 영산法華寺출판부. p. 514.

30) 小林一郎·이능화 저, 이법화 역. 앞의 책. pp. 532-533.

연산군과 중종 때에 이르러서는 원각사를 妓房으로 만들어 버리고, 원각사를 헐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僧科까지도 없애버려 승려의 등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함과 더불어 각종 혜택을 박탈하고 선·교 양종의 도회소까지 철폐해 버렸다.

그 후 문정왕후가 섭정을 하였던 명종대에 이르러서는 보우 스님이 중용되었는가 하면, 봉은사와 봉선사를 본산으로 삼아 선·교 양종을 다시 두었으며, 도승법과 폐지되었던 승과를 다시 행하여 불교를 받들게 함으로써 불교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조선 초기부터 본격화된 불교 교단에 대한 탄압³¹⁾은 간혹 승불군주를 만나 완화되기도 했지만³²⁾ 대부분의 승려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의견을 묵살당하며 평민보다도 낮은 대우를 받았다.³³⁾ 도성 출입을 금제당하고³⁴⁾ 강화된 부역³⁵⁾과 잡역에 시달리며³⁶⁾ 공공연히 관공서에 대해 공납의 의무를 지는 등 갖은 천대와 압박을 받아왔다.³⁷⁾ 정조 이후 국가의 승정 방침이 호전되기는 했으나 승려의 근본적인 지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공공연히 관부에 납부하는 유역·지역 외에도 人情物이란 명목으로 바쳐지는 각종 물목이 부과되었으며 그리고 양반관리들이 산에 들어오면 승려는 교역을 매어야 했고 재주가 있는 승려는 주연의 흥을 돋구기 위해 범패 내지는 승무를 추기도 하였다.³⁸⁾ 양반들의 사찰 승려에 대한 갖은 침탈은 순조 이후 더욱 가혹하고 다양해진다.

그리고 조선말 사회 혼란의 와중에서 야기된 사찰의 물질적 피해 역시 불교

31) 김상현. (1995). 조선불교사화. 한국불교사 산책. 우리출판사. p. 118.

32) 조선 후기 불교계에 대해 호의적이었던 왕실의 불교정책도 사실상 왕실과 보호유지에 그치고 있어 명백한 한계를 드러낸다. 호불군주라 일컬어지는 정조의 경우 용주사 창건과 석왕사에 대한 기부, 선암사에서의 행적은 지극히 현실적인 유교의 효와 자손 승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33) 朝鮮王朝實錄. 현종 3년 6월조.

승려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왕실의 寺奴에 대한 처사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34) 퇴경당전서 권5. p. 1015.

35) 김덕수. (1992). 조선후기의 赴役僧軍. 임진왜란과 佛教義僧軍. 수군본부군중감실. pp. 451-455.

36) 윤희순. (1994). 조선미술사연구. 동문선. pp. 158-159.

여러 잡역의 의무를 진 당시의 승려들은 도화서에 소속되어 화원으로 종사하기도 한다.

37) 정병삼. (1998). 진경시대 불교의 진흥과 불교문화의 발전. 진경시대. 돌베개. pp. 179-186.

38) 정광호. (1994). 근대 한일 불교관계사연구. 인하대학교출판부. pp. 9-22.

존립의 저해요소로써 간과할 수 없다. 한말 각종 민란과 의군의 봉기로 인한 관민·일인 등과의 격투로 산중에 있는 사찰의 피해는 극심했으며³⁹⁾ 동시에 귀중한 유물들이 무차별하게 파손되었던 것이다. 특히 1907년 한일신협약 이후 의병과 일인들의 분쟁으로 전국의 사찰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⁴⁰⁾ 이를 임란 후의 二大災厄이라 할 정도로⁴¹⁾ 그 폐해는 극심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찰이 축소과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찰의 확장이나 창건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⁴²⁾ 따라서 조선시대 전국의 사찰수의 변화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조선 전기에 출판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조에는 1,658개소의 사찰이 전국에 있었는데, 조선 후기 18세기에 출판된 여지도서에는 1537개소로 줄어들었고, 1918년에 간행된 조선불교통사 기록에 의하면 1283개소로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⁴³⁾ 이것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전국 사찰의 수가 줄어들면서 암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선 후기에는 불교의 교세가 조선 초기에 비하여 많이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조선 후기 불교계의 이같은 현실 속에서도 교단과 사찰이 유지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승려들 간에 간경과 참선·염불이라는 삼학 수행이 일반화되고 간경이 활발해짐에 따라 승과교육과정이 확립된다.⁴⁴⁾ 또 숙종에서 영·정조로 이어지면서 조선 고유의 진경 문화가 창출되고 문예 진흥이 활기차게 이루어지던 기반은 승려들의 문집이 성행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한다.⁴⁵⁾ 그리고 전란으로 무너진 사원의 중심 전각 중수를 일차

39) 김영태. (1976). 한국불교사연표. 신흥출판사.

다음과 같은 기사는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1859년 경성 가까운 사찰을 헐어버림. 1882년 訓局軍이 京外 各寺를 燒却함.

40) 이와 같은 사실은 奉先本末寺誌를 비롯한 사찰지 등에서 간헐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41) 고교형. (1929). 이조불교. 보문관. pp. 912-913.

42) 김봉렬. (2004). 불교건축. 솔출판사. p. 38.

43) 이병희. (1997). 조선시기 사찰의 수적 추이. 역사교육 61. pp. 31-68.

44) 남도영. (1980). 한국 사원교육제도(중). 역사교육 28.

한상길. (2000). 조선 후기 사찰계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45) 정병삼. (1998). 진경시대 불교의 진흥과 불교문화의 발전. 진경시대. 돌베개. pp. 179-186.

적으로 한 사찰의 중창사업은 효·현종대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⁴⁶⁾ 그리하여 숙종에서 영·정조대에 오면 전대의 1차적인 중창에 이어 2차 중창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때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사원의 규모는 보다 충실해졌으며, 사적비 건립과 함께 불교미술의 흥성이 이루어진다.

제2절 조선 시대 제주의 불교

1. 조선시대 이전의 제주불교

제주도에 불교가 언제 전래되고 사찰은 어느 때부터 건립되었는지에 대해 전해주는 기록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사료를 통하여 살펴보면 삼국시대 백제로부터 불교가 들어오지 않았나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삼국사기에서 탐라는 주로 백제와의 교류를 통해서 불교를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476년에 탐라의 왕은 백제의 문주왕에게 방물을 바치고 은술의 관직을 하사받았으며⁴⁷⁾, 동성왕 20년(498년)에는 공물을 바치지 않는 탐라에 대해 왕이 직접 친정을 실시하려하자 탐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사죄한 바 있다⁴⁸⁾. 그런데 백제는 침류왕 원년(384년)에 동진에서 전래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탐라의 지배층들은 백제와의 교류를 통해 일정하게 불교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의 사료에서는 탐라에는 660년대까지는 불교가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오직 귀신만 섬긴다’는 기록⁴⁹⁾으로 보아 탐라 왕실은 그 때까지 불사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탐라가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된 660년대 이후 어느 시기에 불교를 받아들

46) 이강근. (1995). 17세기 불전의 장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47) 三國史記. 百濟本記 文周王 2(476년) 4월조.

48) 三國史記. 百濟本記 東城王 20(498년) 8월조.

49) 唐會要 卷100. 耽羅國條(665년).

이게 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즉, 당에 조공사를 보내고⁵⁰⁾(661년), 태산의 봉선의식에 참가하고⁵¹⁾(665년), 일본에 왕자의 내왕이 있는 후이다. 그리고 백제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완전히 신라에 예속되던 문무왕 19년⁵²⁾(679년) 이후 탐라 지배층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선진문화도 받아들여 모든 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주에서 불교의 흔적이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고려시대이다. 고려 정종 원년(1034년) 이후부터 불교행사인 팔관회에 참석하였고⁵³⁾ 문종 11년(1057년) 한반도 육지부의 사찰 창건을 위한 벌목과 조영에 탐라민이 동원되었던 일 등이 있어⁵⁴⁾ 이를 통해서도 불교와의 일부나마 접촉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고려 충렬왕(1275~1308년) 때 활동한 혜일 스님은 妙蓮寺, 逝川庵, 普門寺, 法華寺 등에 대한 찬시를 남기기도 하였으며⁵⁵⁾, 충혜왕 4년(1343년)에는 왕사를 역임한 흑선, 충목왕 4년(1348) 승려 종범이 탐라에 유배되기도 하였다.⁵⁶⁾ 이러한 기록은 고려시대 제주 불교 사찰의 일면을 볼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찰로 法華寺⁵⁷⁾와 水精寺, 妙蓮寺, 元堂寺 등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法華寺의 창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 9세기 경 장보고가 해상을 지배하고 산둥반도에 법화원을 창건했듯이, 이에 맞춰 제

50) 舊唐書. 東夷傳 耽羅條(661년).

51) 唐會要 卷100. 耽羅國條(665년).

52) 三國史記. 新羅本記 文武王 19(679년) 2월조.

53) 高麗史 권6. 세가. 정종 즉위년 11월조.

팔관회를 설치하고 神鳳樓에 거동하여 관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저녁에는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다음날 대회에 또한 잔치를 베풀고 연주회를 관람하니 동서 2정과 東北兩路의 兵馬使 및 四都護·八牧이 각각 표를 올려 하례하였으며, 송의 商客과 東西蕃 및 耽羅國도 또한 방물을 바치니 자리를 내 주어 의례를 관람하게 하였고, 이후로는 상례로 삼았다.

54) 高麗史권8. 세가. 문종 12년 8월조.

55) 新增東國輿地勝覽.

① 妙蓮寺: …

② 法華寺: 法華庵畔物華幽…

③ 普門寺: 寺僻依荒徼…

④ 逝川庵: …道人有宗海 卓庵向川邊…

56) 고려사권36, 37. 세가. 충혜왕 4년 4월, 충목왕 4년 12월조.

57) 김일우. (2002). 고려 후기 제주 법화사의 중창과 그 위상.

주도에 法華寺를 창건했을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제주도가 장보고의 해상왕국의 중심지인 완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며, 신라·일본·중국의 무역활동 교류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⁸⁾ 이러한 주장은 法華寺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대포’의 옛 명칭이 ‘당포’라 하여 당과의 교류에서 지명이 비롯되었다는 구전 등을 고려해 볼 때, 일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⁵⁹⁾ 즉 장보고 전성기까지의 160여년간 동아시아의 바다를 왕래했던 탐라무역상들을 통하여 관세음보살 신앙이 일반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유포된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法華寺가 장보고에 의해서 창건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⁶⁰⁾

그리고 법화사지 발굴 당시 두 차례에 걸쳐 기와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하나는 ‘…始重創十六年己卯畢’이라는 명문이고 다른 하나는 ‘至元六年己巳始…’라는 명문이다. 두 명문을 합성하면 ‘至元六年己巳始重創 十六年己卯畢’이란 내용으로 至元 6년 즉, 고려 원종 10년(1269년, 己巳)에 중창을 시작하여 16년 즉, 충렬왕(1279년, 己卯)에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¹⁾ 이는 10여 년에 걸친 대대적인 중창이었다. 이로 보아 정확히 몇 년 만에 중창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건물의 보수 기한을 대략 50년으로 잡는다고 하면 고종 16년(1229년) 경에는 이미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法華寺는 절 안에 봉안했던 銅佛像 이안 문제로 조선초에 크게 이목을 끌었다. 朝鮮王朝實錄에 의하면 法華寺에는 元나라 양공이 주조한 彌陀三尊佛像이 있었는데 조선 태종 6년(1406년)에 명나라 영락제가 사신을 보내어 그 불상을 요구해 왔으므로 조정에서는 사람을 보내어 나주로 옮기게 한 뒤, 명나라 사신에게 인도하는 과정이 여과 없이 실어져 있다.⁶²⁾

水精寺⁶³⁾에 관한 기록은 고려사에 처음 나타난다. ‘공민왕 5년(1356년)에 釋

58) 문명대. (1985). 지방문화재 제주 법화사 복원을 위한 학술 세미나 요지. 서귀포·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

59) 김동진. (1997). 법화사의 역사적 배경. 법화사지.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19집. pp. 30-35.

60)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제1회 제주해양포럼. pp. 10-13.

61) 서귀포시. (1998). 법화사지. 대명기획. p. 28.

강창화. (2000). 제주 법화사지의 고고학적 연구. 제주도사연구 9집.

62) 太宗實錄 6年 4月 庚辰條.

器를 제주 水精寺에 보내어 안치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데⁶⁴⁾ 같은 내용이 고려사 釋器傳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렇듯 水精寺는 공민왕 5년에 이미 사서에 나타나 있으며 수정사지에서 발견되는 해무리굽 청자편 등으로 보아 9-10세기 경에는 이미 사찰이 세워졌을 가능성도 있다.⁶⁵⁾

妙蓮寺에서는 法華寺 중창(1269~1279년) 이후 17년이 지난 충렬왕 22년(1296년)에 金剛明經文句疏가 판각되었던 점⁶⁶⁾으로 미루어 法華寺와 마찬가지로 고려 초에 많은 비보사찰들이 건립될 때 창건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⁶⁷⁾

이 밖에도 元堂寺⁶⁸⁾, 尊者庵 등 제주도 여러 지역에 산재한 크고 작은 사찰을 통하여 제주의 불교신앙이 뿌리내려졌으리라 생각된다.

2. 조선 시대 및 근·현대의 제주불교

水精寺와 法華寺는 고려말 조선 초까지 제주도 최대 사찰이었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던 비보사찰인 法華寺의 노비 280명, 水精寺의 노비 130명을 다른 비보사찰의 예와 같이 각각 30명으로 줄였다.⁶⁹⁾

한편 조선초에 편찬된 지리서인 東國輿地勝覽 濟州牧에는 ‘尊者庵⁷⁰⁾, 水精

63) 수정사는 제주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제주시 외도동 도근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김상헌의 南槎錄에는 金淨이 쓴 沖庵記 중 濟州風土錄을 인용하여 쓴 기사가 있는데 수정사에는 원에서 만들어진 불상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다.

64) 高麗史. 恭愍王世家 22년(1373) 12월 7일자.
당시 釋器를 제주 水精寺에 보내어 안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같은 해에 前 護軍 淋仲甫 등이 釋器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釋器는 제주로 호송되던 도중에 탈출하여 평안도로 달아났다가 뒤에 잡혀 처형되었다.

65)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수정사지.

66) 남권희. (2001). 제주도 간행의 서적과 기록류. 고인쇄문화.

67) 윤봉택. (2007).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pp. 18-28.

고려 충렬왕 22년(1296년) 제주 妙蓮寺에서 개간된 金光明經文句는 호국 경전이 하나인 金光明經을 천태종의 개조인 天台智者(陳, 538-598년)대사가 번역한 주석서이다.

68) 원당사는 제주목 지경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지금의 제주시 삼양동 원당봉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원당사지에는 창건당시의 오층석탑이 남아 있고 원당사에 관한 여타의 기록은 이원진이 쓴 耽羅志 기록이 유일하다.

69) 조선왕조실록 태종 8년(1408년)조.

‘議政府啓 定濟州法華修正二寺奴婢之數 啓曰 據濟州牧使呈 州境裨補二處 修正寺見有奴婢一百三十口 法華寺見有二百八十九 乞將兩寺奴婢 依他寺社例 各給三十口 其餘三百八十二口 屬典農 從之’

寺, 妙蓮寺, 海輪寺, 萬壽寺, 정의현에는 成佛庵, 靈泉寺, 대정현에는 法華寺 등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 전기에는 이 사찰들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중종 25년(1530년)에 간행된 新增東國輿地勝覽⁷¹⁾의 濟州牧·旌義縣·大靜縣 등 세 고을의 佛宇 항목을 살펴보면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사찰들을 파악할 수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濟州牧에 12개, 旌義縣에 2개, 大靜縣에 2개로 함께 16개의 사찰이 있었다. 대부분이 濟州牧 지경에 분포되어 있고 후에 발간된 南槎錄, 耽羅志 등에서 살펴보면 이미 폐사되거나 훼손된 사찰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건 연대가 밝혀져 있는 절은 하나도 없으며 선조 34년(1601년) 南槎錄의 기록에는 水精寺는 원나라의 원찰로 고려조에 지었다고 전하고 있다.⁷²⁾

표 1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제주의 사찰

寺刹名	新增東國輿地勝覽 (1530년)	주요내용	南槎錄 ⁷³⁾ (1601년)	耽羅志 ⁷⁴⁾ (1653년)	비고
尊者庵	漢拏山西嶺	修行洞		大靜縣東六十里	濟州牧
月溪寺	獨浦東南	益齋解歌詩 僧慧日詩	郭支岳西廢寺	瓮浦東南今廢	
水精寺	都近川西岸		郭支岳西	朝貢川西岸	
妙蓮寺	州西二十五里		郭支岳西廢寺	州西南二十釐	
文殊庵	州西南二十七里	一名 西資福 一名 東資福		州西大瓮浦口	
海輪寺	州西 獨浦口				
萬壽寺	巾入浦 東岸	僧慧日詩 僧慧日詩	元時創建廢寺	州東三十里	
江臨寺	州東威德浦口		州東面		
普門寺	巨口里岳北		都近川上今廢		
逝川庵	朝貢川上				

70) 제주대학교 박물관, (1996). 尊者庵址. 제주도.

지금의 서귀포시 하원동이며 한라산 영실 서편의 속칭 불레오름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존자암에 대해 가장 오래된 문헌은 동국여지승람 제주목 불우조의 기록이다.

71)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조선 전기의 지리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제작 경위를 살펴보면 중종 25년(1530년)에 완성된 이 책은 성종 12년(1481년)에 만들어진 東國輿地勝覽을 증보한 것인데 동국여지승람은 성종 8년(1477년)에 제작된 八道地理志에 우리나라 문사의 시를 添載하라는 성종의 명에 따라 제작된 것이다. 또 동국여지승람의 대본이었던 팔도지리지의 제작을 위해 자료수집의 목적으로 예종 1년(1469년)에 제작된 慶尙道續撰地理志 등의 각 도별 지리지를 대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국초부터 제작해 온 지리지 자료를 누적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72) 고창석, (2007). 제주도내 사찰의 창건 시기에 대한 관건. 제주역사연구. 세림.

小林寺 觀音寺	州東南 十里 朝天館浦			朝天浦上 安心寺 郭支寺今廢 元堂寺 頓水庵	州東十里 州東四十五里 州東二十里 州東八十里
靈泉寺 成佛庵	靈泉川東岸 成佛岳		廢寺		旌義縣
法華寺 窟庵	縣東四十五里 山川山房條	僧慧日詩	廢寺	今廢 窟庵	大靜縣

이외에도 1578년 林悌가 지은 南溟小乘 2월 15일조에는 ‘백록담을 둘러 본 후 頭陀寺로 향하였다’고 하여 쌍계암이라 불리어졌던 頭陀寺라는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⁵⁾⁷⁶⁾

효종 4년(1653년) 도내 사찰은 19개소로서 제주목에는 尊者庵, 月溪寺, 水精寺, 妙蓮寺, 文殊庵, 海輪寺, 萬壽寺, 江臨寺, 普門寺, 逝川庵, 小林寺, 觀音寺, 安心寺, 郭支寺, 元堂寺, 頓水庵 등 16개소, 정의현에는 靈泉庵, 成佛庵 등 2개소, 대정현에는 尊者庵, 法華寺, 窟庵 등 3개소가 있었으나 이 가운데 폐사된 사찰이 月溪寺, 妙蓮寺, 郭支寺, 法華寺 등 4개소였다고 하였다.⁷⁷⁾

이상에서 新增東國輿地勝覽 佛宇 중 1601년(南槎錄), 1653년(耽羅志)을 거치면서 여러 사찰들이 폐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이는 국가의 불교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가가 더 이상 절에 경제적인 지

73) 일종의 일기체 형태로 서술된 책인데 김상헌(1570-1652)이 1601년(선조 34년) 안무어사로 제주에 파견되어 기록한 일종의 기행문으로 1669년에 간행되었다. 당시 제주도의 전체적인 사회상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74) 1653년(효종 4년) 제주목사 이원진의 발의에 의해 당시 제주의 典籍 고홍진의 監校로 완성된 제주도의 지지이다. 제주도의 가장 오랜 읍지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후에 편찬된 제주읍지들은 耽羅志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17세기 중엽의 제주도의 지역 사정을 파악할 수 있다.

75) 임제. (1577). 南溟小乘.
相顧一嘘而下從上峰南轉向頭陀寺… 寺在兩溪之間故亦號雙溪庵洞壑深邃深亦佳境也… 赤木交陰不見天日…(상봉을 따라 내려온 뒤 남쪽으로 돌아 두타사로 향하였다… 절은 두 계곡 사이에 있으므로 또한 쌍계암이라고 한다… 골이 깊고 으스스하여 또한 가경이다…적송이 우거져 햇빛을 볼 수 없었다.)

76) 김창화. (2004). 제주의 폐사지. pp. 70-73.

77) 이원진. (1653). 耽羅志.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불우조.

원을 하지 않고 불우와 승려의 수 및 사원의 재산을 억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찰들은 규모를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邊協⁷⁸⁾(1565년, 명종 20년) 목사는 12월 9일 제주에 유배되어 온 보우대사를 때려 죽였고, 후임인 1568년(선조 1년) 郭屹⁷⁹⁾ 목사에 의하여 사찰들이 헐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李衡祥 목사가 ‘당 오백 절 오백’을 헐어 버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오듯이 이와 관련하여 그의 行狀인 瓶窩集에는 “신당 129곳과 절 두 곳⁸⁰⁾을 일시에 불태우고 불상을 바다에 던졌으며, 천 명에 가까운 무당들은 모두 그들의 案籍을 불사르고 귀농시켰다”고 하였다. 耽羅巡歷圖의 巾浦拜恩에도 부수어 헐어버린 사찰이 5곳이고 귀농시킨 巫覡(무당)이 285명이라고 하였다.⁸¹⁾ 이후 제주도에에는 사찰이 없는 무불교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후 제주의 근대 불교는 觀音寺의 창건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즉 1901년(광무 5년) 제주시 화북리 출신 안봉려관에 의하여 다시 시작되어 1908년 6월 제주시 아라리 한라산 기슭에 대흥사 제주불교 포교당을 세웠다. 1908년 해월굴에서 기도를 시작한 안봉려관은 김석윤과 함께 초가 법당으로 觀音寺를 창건하였고 1910년에는 영봉화상과 안도월이 통영군 용화사의 불상과 탕화를 모셔다 觀音寺에 봉안했다. 이 때부터 제주에서 불교 재건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觀音寺는 창건 초기 내륙의 중앙교단과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불사를 진행시키며 사세를 확장시켜 나갔다. 그러던 중 일본은 1911년 사찰령, 1915년 포교규칙을 제정하여 전국의 본사를 30개로 확정하고 이들 본사를 중심으로 그 외 사찰들을 말사로 등록, 포교담당자의 관리를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총독부의 종교단체 등록신고 정책에 따라 전라남도에 속해 있던 제주도의 觀音寺는 1918년 6월 11일 전남 대흥사 말사로 등록하여 설치허가를 받게 되었고 7월 19일에는 포교자로서 대흥사 주지였던 이화담이 신고하였

78) 朝鮮王朝實錄 명종조, 156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목사를 지냄. 부친상으로 12월 9일 사임함.

79) 朝鮮王朝實錄 명종조, 1565년 12월부터 1568년 제주목사를 지냄. 제주성 동쪽을 물러쌓고 제주목관아 운주당을 세움. 절과 불상을 없앴. 대호군으로 감.

80) 훼손된 사찰은 해륜사와 만수사이다.

81) 瓶窩集에는 ‘神堂一百二十有九及二刹 一時火之 投佛像于海 近千巫覡 皆焚其案而歸之農’, 耽羅巡歷圖에는 ‘燒火神堂一百二十九處 破毀寺刹五處 巫覡歸農二百八十五名’이라고 하였다.

다.⁸²⁾

이에 따라 1920년대 중반까지 대흥사 주지였던 이화담과 백취운 스님이 觀音寺 포교 담당자로 등록되었으나, 본격적인 타 지역 본사와 연계를 맺으며 포교 활동이 이루어진 것은 1924년 이희명 스님에 의해서였다.⁸³⁾

觀音寺는 1924년 음력 4월 8일 낙성식을 거행하고 초대주지에 안도월 스님을 임명하였다. 11월에는 제주불교협회가 창설되었고 한라산 중턱에 위치한 觀音寺를 대신하여 제주시 중앙로에 觀音寺 시내포교당인 대각사를 건립하였다. 觀音寺는 이를 기반으로 제주불교부인회 및 제주불교소년단 등을 조직하였고, 나아가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강습소를 설치·운영하였다.

또한 觀音寺 창건 이후 제주에는 각 지역별 사찰 건립과 승려들의 포교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24년 12월 함남 안변군 석왕사에서 이희명이 제주로 들어와 불교협회를 조직하고 포교당을 세웠다. 1925년 삼양동 옛 元堂寺 자리와 1926년 하원리 옛 法華寺 자리에 포교소를 세웠다. 1939년 해륜 포교당, 서김녕리 포교당이 세워졌고 1940년 판포 포교당, 호근리 포교당이 세워졌다.

한편 육지부에 있는 사찰들은 1924년 6월 白羊寺 포교당을 시작으로 위봉사(1929년), 선암사(1931년), 범주사(1932년), 봉은사(1938년), 실상사(1938년), 기림사(1940년)가 본격적인 포교를 위하여 포교당을 설치하였다.

제주도에서 1908년 근대불교가 시작되었으나 초창기 불교 포교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되는 최초의 자료는 1926년으로 왜색종교와 선종 양종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 점차 신도수와 포교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36년부터는 포교소와 1938년에는 포교자수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중일전쟁(1937년)의 영향으로 도민들이 전쟁의 상처를 종교로 치유하고자 하여 갑자기 신도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제주도지에 따르면 1926년 제주도의 불교 포교 현황은 다음과 같다.⁸⁴⁾

82) 대한불교조계종. (2004). 한국전쟁과 문화재 II-제주도 편.

83) 대한불교조계종. (2004).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II-제주도 편.

84) 제주도. (1993). 제주도지 1권.

표 2 불교 포교현황(1926년)

구분		사원포교소	승니포교자수(명)		신도수(명)	
			내지인	조선인	내지인	조선인
불교	眞宗大谷派	1	1	·	624	
	선교양종	4	·	5	·	1,040
계		5	1	5	624	1,040

일본불교는 1915년 12월 진종대곡파의 松本秀穂 등이 포교하기 시작하였다.

1930년 제주도편람에 의하면 제주도의 불교 포교소와 포교자수, 신도수는 다음과 같다.⁸⁵⁾

표 3 불교(1930년)

종교의 명칭	포교소	포교자수			신도수		
		조선인	일본인	계	조선인	일본인	계
불교	7	3	1	4	4,220	220	4,440

1939년 제주도세요람에 따르면 제주도내의 불교 포교자수와 신도수, 포교 상황은 다음(표4, 표5)과 같다.⁸⁶⁾

표 4 포교현황 (1930-1936년)

연도별	불교		
	포교수	포교자수	신도수
소화 5년 (1930)	8	2	4,068
소화 6년 (1931)	9	3	4,573
소화 7년 (1932)	13	8	5,379

생활상태조사(其二). (1928). 제주도. 조선총독부. p 126재인용.

85) 고정종 편. (1930). 제주도편람.

86) 제주도청. (1939, 소화 13년). 제주도세요람.

소화 8년 (1933)	14	9	5,112
소화 9년 (1934)	14	8	4,166
소화 10년 (1935)	15	13	5,394
소화 11년 (1936)	25	13	5,611

표 5 불교 포교 현황(소화 13년말(1938년) 현재)

포교수	포교자수	신도수
30	25	6,458

1968년 제주연감 종교단체상황 중 불교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⁷⁾

표 6 제주도 종교단체 상황(1968. 12. 31 현재)

구분	사찰수	교직자수(명)	신도수(명)
	101	252	36,186

1976년 제주연감 종교단체현황 중 불교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⁸⁾

표 7 제주도 종교단체 현황(1976. 12. 31 현재)

구분	계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사찰수	142	31	48	63
승려(명)	226	83	71	72
신도(명)	125,127	24,815	40,113	60,199

87) 제주연감사. (1969). 제주연감.

88) 제주연감사. (1977). 제주연감.

1995년 제주도 인구분포에 의하면 불교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8 제주도 문화예술 현황(1995년)

구분	전국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신도(명)	10,321,012	169,672	89,969	27,263	28,669	23,771
%	23.2	33.6	34.8	33.2	32.3	31.4

2000년 4월 제주도 문화예술 현황에서 불교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⁹⁾

표 9 제주도 문화예술 현황(2000년)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사찰수	253	77	52	72	52
승려(명)	359	124	54	112	60
신도(명)	93,266				

2003년도 제주도 문화예술 현황에서 불교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⁰⁾

89) 제주도, (2000). 문화예술현황.

90) 제주도, (2003). 문화예술현황.

표 10 제주도 문화예술 현황(2003년)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사찰수	246	72	50	72	52
승려(명)	337	118	53	114	52
신도(명)	93,552	40,744	17,590	21,295	13,923

제주도내의 사찰에 소장된 불상 및 불교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 국비 지원을 받아 대한불교조계종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국사찰 소장 불교문화재 일제 조사 10개년 계획(2002년-2011년) 중 전라북도·제주도 조사결과보고서(2003년)가 발간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사찰문화재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1 제주도 사찰 문화재 유형별 조사 현황(2003년)

유형	조각	불화	공예	탑·석조	서지	기타	계
건수	35	12	4	15	194	8	268
점수	46	12	7	15	662	9	751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된 제주불교문화재자료집에는 제주도내에 있는 사찰 중 36곳의 동산문화재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에 발간하였다.⁹¹⁾

제주도에는 2007년 현재 사찰수는 254개소(제주시 152개소, 서귀포 102개소)로 근대 이후 도내 사찰 숫자는 매우 늘어났지만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소장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은 소수에 불과하다.⁹²⁾

하지만 최근에 각 사찰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동산문화재들이 계속 발견되어 정보문화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제주도와 타지 사찰과의 근대 불교교류와 초기 사찰의 운영관계 등 여러 면을 알 수 있게 되었다.

91) 김창화 외. (2008). 제주불교문화재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92) 제주도. (2007). 문화예술현황.

표 12 제주도 불교문화재 현황(2007. 12월 현재)

종별		지정 번호	문화재명	소재지	지정일
국가 지정	보물	1187	불암사오층석탑	제주시 삼양1동	93.11.19
도 지정	유형 문화재	16	관음사목조관음보살좌상	제주시 아라동	99.10.06
		17	尊者庵지세존사리탑	서귀포시 하원동	00.11.01
		18	보림사목조관음보살좌상	제주시 건입동	02.05.15
		19	선덕사 소장 묘법연화경	서귀포시 상호동	03.07.02
		20	서산사 소장 목조보살좌상 및 복장 일괄	서귀포시 대정읍	04.09.09
		21	선광사 소장 목관분류 등 불경전적 일괄	서귀포시 남원읍	04.09.09
		22	남국선원 소장 목관분류 불 경전적	서귀포시 상호동	04.09.09
		23	정방사 소장 석조여래좌상 및 복장 유물 일괄	서귀포시 정방동	05.10.05
		24	月溪寺 목조아미타불좌상	제주시 한림읍	07.07.25
		25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제주시 월평동	07.07.25
		26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제주시 구좌읍	07.07.25
	민속 자료	1	복신미륵	제주시 건입동	71.08.26
		-1	동자복	제주시 건입동	71.08.26
		-2	서자복	제주시 용담동	71.08.26
	문화재 자료	4	월정사 소장 불상	제주시 오라2동	00.12.27
		6	월영사 소장 목조여래좌상	제주시 애월읍	04.09.09
		7	보덕사 소장 목조여래좌상	제주시 도남동	04.09.09

제 3장 조선시대 제주도 불상의 형식과 腹藏物

제1절 기년명 불상 소장 사찰연혁 및 불상형식

1.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종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0호, 2004. 09. 09)

* 소재지 :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1359번지 서산사

* 규 모 : 전체 높이 58cm, 무릎너비 33.5cm, 무릎높이 12cm, 어깨너비 25cm,
상호높이 11.5cm, 상호너비 14.5cm, 가슴너비 16cm

1) 사찰 연혁(그림 1, 2, 25, 부록 3)

서산사는 서귀포시 대정읍에 소재한 사찰이다. 대웅전은 돌벽담에 슬레이트 팔작지붕으로 지어져 있으며 2층 종루가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대웅전 내의 본존불은 근래에 봉안한 것으로 석가모니불이며 협시불은 지장보살과 대세지보살이다. 법당 안에는 신중탱화와 후불탱화, 지장탱화가 조성되어 있다.

사찰 입구에는 9개의 비석이 서 있는데 6개는 창건과 관련된 비이고 나머지 공덕비 3개는 최근의 정치인과 관련된 비이다. 비석들을 통하여 사찰이 1941년에 강창규에 의하여 창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966년경에는 성불사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서산사 창건주인 강창규는 독립운동가로 무오년 중문 法井寺에서 항일운동을 하였다. 산남 안덕면 사계리 태생으로 불교 스님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의 최고 지도자인 金蓮日의 장인이기도 하다. 1918년 10월 5일 산남 법정사에서

金蓮日, 朴暎洙 등이 주도하는 항일 운동을 전개하여 중문 경찰관 주재소를 파괴 전소시키고 일본인에 폭력행사를 가하고 서귀포 주재소를 점거하기 위해 서호리까지 가던 중 파견된 응원 경찰에 의해 동지 66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이 중 33명이 공판에 회부되었다. 그는 1919년 2월 4일 광주지법 목포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또 그의 아우 강수오는 이 일로 재판 도중 옥사하였다⁹³⁾.

2) 불상의 형식(그림 3, 4, 5, 6, 7, 8, 9)

이 보살상은 처음 조성 당시에는 삼존불 가운데 본존불의 좌우보처보살 중에 하나였을 것이나 본존불과 다른 보살상은 없이 홀로 남아 있다.

像의 재료는 나무이며 개금상태가 양호하여 전체적으로 잘 보존된 것처럼 보인다.

보살상은 좌상이며 머리에는 보관을 쓰고 있는데 청동제이다. 이 보관은 고대 인도 貴人들의 머리 장식에서 유래된 것으로 불상을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 보살의 상징으로도 사용되었다. 이 상의 보관에는 化佛이나 寶瓶 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상호는 약간은 길쭉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보발이 귓볼의 중앙 하단에 1줄로 통과하여 형식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마의 중앙에는 광명을 비춘다고 하는 백호가 있는데 아주 작게 표현하였다. 눈은 반개하여 일자형이나 꼬리부분이 약간 올라가 있다. 코는 상호의 각 부분과 비교해 볼 때 큰 편이며 콧날이 넓어 반원통형에 가깝다. 인중은 길고 뚜렷하며 입은 두툽한 편이다. 눈썹과 눈은 먹선으로 그렸고, 입은 붉은 칠을 하였다. 콧수염은 옆으로 세 줄을 그었고 입술 밑에도 먹선을 그렸다. 턱 밑에는 1조의 음각선을 넣어 양감 있게 처리하고 귀는 크고 두툽하며 귓볼은 뭉툭하다. 목은 짧으며 생사를 윤회하는 因果를 나타내는 것으로 惑道 또는 煩惱道, 業道, 苦道を 의미하는 三道가 표현되어 있다.

93) 김찬흡 편저, (2000).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p. 59.

법의는 통견으로 아주 두툼하게 처리하였다. 양어깨에서 흘러내린 법의 자락은 일직선으로 흘러 복부 아래에서 U자형을 이루고 있다. 가슴 부위까지 올라와 있는 군의는 일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띠매듭은 없다. 왼쪽 어깨로 넘어간 법의 자락은 왼쪽 등을 타고 큰 주름 하나를 형성하여 엉덩이 부분까지 늘어지고 있다. 보살상에 표현된 옷주름들 가운데 왼쪽 어깨에서 측면으로 흘러내린 옷주름과 오른쪽 어깨의 옷주름은 주목된다. 오른쪽 발목에서 흘러내린 법의자락은 상체의 옷주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무릎 이하가 많은 손상을 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손은 따로 만들어 끼웠으며, 손에는 아무런 지물이 없다. 오른손은 옆으로 들어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려 하고 있다. 왼손 역시 오른발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으며 엄지와 중지를 맞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수인은 석가여래의 說法印과 같은 모습이다.

앉은 자세는 왼발을 오른다리 위에 얹은 다음 오른발을 밖에서 왼쪽 다리 위에 얹은 이른바 吉祥坐⁹⁴⁾이다. 무릎은 넓고 높은 편이어서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하체가 손상을 많이 입어 원형으로 복원됐는지가 불분명하고 흉과 마포 등으로 보수가 되어 있다.

불상의 바닥은 사각형 구멍이 크게 나 있는데 원래의 腹藏孔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복장공 막음판은 유실되고 없다.

2.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종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4호, 2007. 07. 25)

* 소재지 :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4번지 월계사

* 규 모 : 전체높이 37cm, 무릎너비 26cm, 무릎높이 7cm, 어깨너비 26cm, 상호높이 13cm

94) 왼발을 오른다리 위에 얹은 다음 오른발을 밖에서 왼쪽 다리 위에 얹은 이른바 吉祥坐이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불상에서도 길상좌를 취하는 것이 많다. 인도에서는 간다라 불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길상좌를 하고 있다.

1) 사찰 연혁(그림 27, 40, 41, 부록 4)

月溪寺는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에 소재한 사찰이다. 月溪寺의 주지스님의 전언에 의하면, 月溪寺는 1934년 白羊寺 한림 포교소로 창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교제주교무원 연혁철에 의하면 1937년 이학삼, 채수삼 등이 한림에 대본산 白羊寺 한림 포교소로 창건하였다고 한다. 그 후 유지불능으로 인하여 1939년 한림포교소 포교사로 부임한 이세진 스님에 의해 현재 위치인 옹포리로 이전하고 寺名을 月溪寺로 개명하였다고 한다.⁹⁵⁾

이 때에 귀중품 목록에 보면 ‘본존: 1위 목조 좌상 고1척2촌, 광 9촌 白羊寺에서 전래’라고 되어 있어 한림에 백양사 한림포교소(月溪寺의 전신)를 창건하면서 白羊寺의 산내 암자인 藥師菴에서 목조아미타불좌상이 반출되어 月溪寺로 이안하여 봉안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시멘트 기와집이다. 앞에는 創建化主蔡萬德成追慕碑가 세워져 있다. 또한 요사채 뒷편에 시멘트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4개의 비를 모아 놓았다. 대부분이 일제 강점기부터 사찰 창건과 관련된 공덕비이다.

2) 불상의 양식(그림 28, 29, 30, 31, 32, 33, 34, 35)

이 불상은 재료가 나무이며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신체와 적당한 신체비례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의 형태는 얼굴, 상체, 하체가 안정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형의 불상이지만 주존으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있다.

불상의 상호는 이목구비가 적당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불상들처럼 약간 아래를 향하여 숙이고 있다. 나발의 머리는 원통형의 頂上髻珠와 반달형의 中間髻珠가 솟아 있으며 육계는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표

95)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pp. 287-288.

현되었다. 이마 한 가운데에는 백호가 조각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눈썹, 수염 등은 모두 채색만으로 처리하였다. 눈두덩은 약간 튀어나와 있으며, 그 하단부에 얇게 뜨고 있는 눈은 황으로 음각되어 있다. 이마에서 코로 이어지는 선은 우묵한 곳이 없이 동일면으로 이어져 있으며, 코의 하단 양옆으로는 음각선으로 콧바를 표현하였다. 귀는 얼굴 길이와 같을 정도로 매우 길게 표현되었는데 귀의 상단에 이륜을 따라 넓게 양각의 띠를 둘렀으며 귓구멍과 사이에 짧은 음각선을 수직으로 그어 내부를 표현하였다. 약간 힘을 주어 다문 입 주위를 우묵하게 파내어 양 볼과 턱의 양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얼굴 전면에 자연스런 미소를 짓게 하였다. 전체적으로 적당한 비례에 양감이 잘 표현된 얼굴이다.

불상의 복제는 袈衣-僧脚崎-覆肩衣-大衣의 순서로 착용하는 조선 후기 불상의 가장 일반적인 착의법을 채용하였다. 僧脚崎는 가슴에서 무릎 정도까지를 가려주는 옷으로 불상에서는 가슴을 가로지르는 띠로만 나타나 있다. 僧脚崎 위에 입는 복견의는 네모난 보자기 형태의 옷으로 이 불상에서는 가슴 하단에 수직으로 내려져서 오른팔을 감쌌으며 복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나타나 있으나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가장 바깥에는 왼쪽 어깨를 가리고 목을 돌아 오른쪽 어깨의 가슴 일부를 가려주고 오른팔의 아래를 지나 다시 왼쪽 어깨로 넘어 등 뒤로 넘겨진 변형편단우견의 대의를 입고 있다. 가장 속에 입는 옷인 군의는 조각상의 특징상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동시기 불화를 참조하면 가장 안쪽에 군의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군의는 평행으로 가로질러 표현하였는데 군의 상단은 한 겹의 사선이 비스듬하게 표현되었다.

옷은 매우 두터워 옷 속에 감춰진 몸은 거의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다. 주름은 매우 깊게 패여 있어 매우 입체적이면서도 울동적이며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주름은 대체적으로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배 대상으로서의 신성성을 고양시켜 주고 있다. 양손은 별조하여 팔목에 끼워 넣었다.

手印은 오른손은 무릎에서 약간 들어 엄지와 장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결가부좌한 한쪽 다리 위에 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역시 엄지와 장지를 맞대고 있다. 이러한 손의 모습은 아미타불의 수인인 下品中生印보다 오

른손이 약간 아래로 내려온 변형된 모습이다. 결가부좌한 무릎 폭이 넓어 안정된 느낌을 준다. 특히 오른손은 높이 들어 올렸을 때 깨질지도 모를 좌우대칭성을 지키기 위하여 낮게 설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三光寺 木造菩薩坐像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5호, 2007. 07. 25)

* 소재지 : 제주시 월평동 1193-2번지 삼광사

* 규 모 : 전체 높이 43cm, 머리높이 14cm, 어깨 너비 18cm, 무릎 너비 25cm, 무릎 높이 10cm

1) 사찰 연혁(그림 42, 부록 5)

삼광사는 제주시 월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이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의 목조기와집으로 1992년에 창건되었다. 삼광사 목조보살좌상은 임덕희 보살이 원불로 모시고 있다가 삼광사로 봉안한 것이다.

사찰 경내에는 서용종정의 법어비가 있다.

2) 불상의 형식(그림 43, 44, 45, 46, 47, 48, 49, 50)

이 불상은 재료가 나무이며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는 보살좌상이다. 복장에서 나온 발원문에 ‘阿彌陀佛觀音勢至三位’를 조성하였다고 하였다. 이 상의 보관은 금속제인데 2개를 조합하였으며 珠紋과 같은 圓紋이 가득 차 있는데 전면 구멍이 위아래로 뚫려 있다. 이 구멍의 용도는 화불이나 정병 등을 따로 만들어 끼우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 화불이나 정병이 유실되고 구멍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이 보살의 존명을 정확히 밝히기란 어렵게 되었으며, 記文에 의하면 관음보살 혹은 대세지보살일 것이다.

상호는 사각형에 가까워 조선후기의 불상들과 같은 모습이며, 보발이 컷볼을 통과하여 2조선으로 분리되어 어깨까지 내려와 있다. 양미간 사이로 내려와서 광명을 비춘다는 백호는 따로 만들지 않고 흰 점으로 표시하였다. 눈은 일자형으로 반개하였으며 눈두덩이 있고 그 위에 호형으로 눈썹을 그렸다. 코는 콧날이 넓어 반 원통형에 가깝고 콧볼의 상단만 약간 파서 형식적으로 처리하였다. 입은 코에 비하여 작은 편이며, 양 입가가 약간 눌러져 있다. 인중은 뚜렷하게 표현하였으나 아주 짧다. 눈썹과 눈은 먹선으로 그렸고, 입은 붉은 칠을 하였다. 콧수염은 옆으로 두 줄을 그었고 입술 밑과 턱 밑에도 먹선으로 수염을 그렸다. 턱 밑에는 1조선의 음각선을 넣어 양감있게 처리하고, 귀는 크고 두툼하다. 목은 짧으며 三道가 표현되어 있다. 머리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약간 숙이고 있다.

법의는 통견이며, 법의 자락이 대좌를 덮고 있는 상현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법의는 두터운 편이며, 옷주름이 아주 간략히 처리되었다. 측면의 왼쪽팔굽 좌측 부위에 있는 법의자락의 衣紋은 人형으로 조선후기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가슴 부위에 넓은 일자형 띠가 있는데 이것은 대체로 지금까지 裙衣로 보아 왔으나 최근에 군의가 아니라 대의의 안에 입는 옷으로 양쪽 가슴과 겨드랑이를 가리는 데 목적이 있는 僧祈支⁹⁶⁾라는 주장이 있다.⁹⁷⁾ 채색이 잘 되어 있는 불화에서 僧脚崎와 군의의 구별이 확실하겠지만 금색상의 단색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각이란 점 때문에 불상에서는 양자의 구별이 쉽지 않다. 더구나 직접적으로 겨드랑이나 가슴을 가리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불상 역시 마찬가지다. 군의는 평행으로 가로질러 표현하였는데 군의 상단은 한 겹의 사선이 비스듬하게 표현되었다.

96) 진홍섭. (1980). 한국의 불상. 一志社. p. 81.

범어로 僧脚欵迦(Samkaksika)이며, 僧脚崎(僧脚崎), 승각차(僧脚差), 승곤지(僧袞支)라고도 하며 줄여서 袷支(저지), 祈支라고 한다. 掩腋衣(엄액의)라고도 번역하며, 윗도리에 걸치는 의복으로 왼쪽 어깨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로 내려가는 의복이다.

97) 송은석.(2001). 朝鮮後期 佛菩薩像의 着衣法. 새로운 발견 조선후기조각전. 三星文化財團. pp. 102-105.

수인은 오른손은 무릎에서 약간 들어 엄지와 장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은 결가부좌한 왼쪽 다리 위에 대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여 역시 엄지와 장지를 맞대고 있다. 이러한 손의 모습은 아미타불의 수인인 하품중생인보다 오른손이 약간 아래로 내려온 변형된 모습이다. 양손은 별조하여 팔목에 끼워 넣었는데 양손을 끼운 부분이 양 무릎 바로 위에 위치한 점이 특징으로 應慧의 다른 작품인 광양 무등암 보살좌상과 같은 형식이다.

대좌는 상대와 하대 2단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좌에 아무런 문양이 없으며, 아주 낮게 처리하였다.

불상의 밑 즉 대좌의 밑면은 1매의 판자로 만들었다. 몸체와 무릎 부분은 겹에서 보면 별도로 제작하여 붙인 것으로 보이나, 불상 내부를 보면 1개의 원목으로 만들었고 앞의 자국은 나무가 벌어져 철못 2개를 연결하여 놓았다.

복장공은 사각형으로 작게 만든 것이 아니라 불상의 밑면이 각을 죽인 둥근 삼각형인데 같은 형식으로 축소하여 크게 만들었다.

복장공을 막음한 목판에는 연필로 쓴 한글이 뽁뽁이 적혀 있는데 신안 일심사에 봉안된 목조보살좌상의 복장 막음질판에도 같은 필체의 글씨가 다른 내용으로 적혀 있다.

3)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좌상⁹⁸⁾(그림 56, 57, 58, 59)

삼광사 목조보살좌상과 같이 제작된 불상이 전남 신안군 일심사에서 발견되었다. 일심사는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14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로 등록증에 창립일이 1920년 4월 20일로 되어 있다.

이 사찰의 주지실에 높이 42cm 밖에 되지 않은 소형의 목조보살좌상이 있는데 최근에 이 보살상에서 腹藏物이 발견되었다. 복장물 가운데 한지에 묵서된 발원문이 발견되어 이 보살상의 조성 연대, 불보살 명칭, 봉안처, 造像 動

98) 최인선. (2008). 전남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상과 복장물. 전남대 호남문화연구 42호.

機, 施主秩, 山中秩, 畫員, 緣化秩 등을 알 수 있다. 즉 강희 10년(1671년, 조선 현종 12) 신해 5월에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3위를 應慧와 戒贊비구가 조성하여 백양산 청심대에 봉안하였다는 것이다.

북장에서 나온 발원문에 의하면 ‘阿彌陀佛觀音勢至三位’를 조성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상은 제주삼광사와 같이 관음보살상 아니면 대세지보살상이다. 이 또한 상의 보관에는 현재 화불이나 정병이 유실되고 구멍만 남아 있는 상태로 일심사 목조보살좌상의 존명을 정확히 밝히기란 어렵다.

이 보살상의 규모는 전체 높이 42cm, 어깨 너비 20cm, 무릎 너비 25.7cm, 무릎 높이 5cm, 상호 높이 14.5cm, 상호 너비 9.5cm로 제주 삼광사와 거의 동일한 크기이다.

이 불상의 발원문은 韓紙에 墨書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 80cm, 세로 20.5cm이고, 횡서로 씌여 있으며 자경은 1.8cm다. 모두 8겹으로 접어져 있고 전후면에 글씨가 쓰여 있다. 이 조상기문은 조성 연대, 불보살 명칭, 봉안처, 造像 動機, 施主秩, 山中秩, 畫員, 緣化秩 순으로 쓰여 있으며 제주 삼광사 발원문과 필체가 같아 쓴 사람은 동일인으로 보인다.

이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은 應慧와 戒贊으로 이들은 17세기 전반에 크게 활동하였던 淸憲과 勝日 밑에서 조각을 수련한 후에 17세기 후반에 전라도와 경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應慧의 작품 도상 특징은 양손을 모두 무릎에 닿을 정도로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중품하생인을 선호하고 있는데 일심사 보살상 역시 같은 도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應慧의 작품으로 보살상이 3점 있는데 모두 통견이며, 裙衣 상단인 가슴 부위에 연화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넓은 일자형 띠로 처리하였고, 법의가 대좌를 덮은 상현좌를 취하고 있는 점 또한 특징이다.

彫刻僧 應慧는 최근에 白羊寺 정보박물관과 신안 일심사에서 그의 작품이 봉안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면서 17세기 후반에 한 유파를 형성하였던 조각가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應慧는 淸憲과 勝日에게서 수련을 받은 조각승이었으며, 印戒, 海機, 雷侃, 戒贊 등과 함께 17세기 후반에 활약하였던 장인이다. 印戒 비구는 應慧의 차화원으로 1689년에 만들어진 여수 흥국사 불조전 53불좌상의 수화원이다. 雷侃은 印戒의 보조화원이고 양식적으로 應慧의 조각풍을

계승하고 있다.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종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6호, 1999.10.06)

* 소재지 : 제주시 아라1동 387번지 관음사

* 규 모 : 전체 높이 75cm, 어깨너비 34cm, 머리높이 14cm, 무릎높이 13cm

1) 사찰 연혁(그림 60, 66, 부록 6)

觀音寺는 제주시 아라동 한라산 동북쪽에 있는 사찰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의 본사로 제주도의 약 30여 개의 말사를 관장하고 있다. 대웅전, 종루, 산신각, 불이문, 석탑, 부도밭, 해월굴 등이 있다.

觀音寺를 창건한 창건주 안봉려관 스님⁹⁹⁾은 1908년 10월 지금의 觀音寺 내에 있는 해월굴에 터를 잡고 기도를 시작하였다. 그 후 김석윤 스님 등과 함께 본격적인 창건 불사를 추진하여 다음 해인 1909년 음력 4월 8일에 법당과 요사를 신축하였다. 불상과 각단 탕화는 1910년 경남 통영 용화사에서 안도월 스님과 영봉 스님에 의해 봉안되었다. 1918년 6월 11일 대본산 대흥사 말사 제주도 포교당이라는 명칭으로 포교소 설치를 허가받게 된다.

觀音寺는 1924년 음력 4월 8일 낙성식을 거행하고 초대주지에 안도월 스님을 임명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제주불교협회가 창설되었고 제주시 중앙로에 觀音寺 시내포교당인 대각사를 건립하였다. 觀音寺는 이를 기반으로 제주불교부인회 및 제주불교소년단 등을 조직하였고, 나아가 중등교육기관인 중학강습소를 설치·운영하였다.

99) 안봉려관(1865-1938년). 아버지 안치복과 어머니 신씨 사이의 둘째딸로 태어났다. 보살계명은 봉려관이며 법명은 해월이다. 1899년 탁발을 나온 승려를 만나 불교에 귀의한 후 1907년 대흥사의 유장화상을 은사로, 청봉화상을 계사로 하여 출가하였다.

1936년 오이화 스님이 2대 주지에 취임하였고, 1937년에 대웅전, 보타루, 해월각 등을 완공하였다. 1939년 7월에 화재가 발생하여 대웅전, 승방 등이 전소되었으나 1941년에 대웅전, 선방, 해월각, 종각, 일주문 등을 세웠다.

1948년 제주 4·3사건이 일어나면서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격전지였던 觀音寺는 1949년 군경에 의한 방화로 전 건물이 모두 불태워졌다. 이후 觀音寺는 20여 년 가까이 폐허가 된 채 터만 남아 있다가 1969년 대웅전 준공을 시작으로 지금의 觀音寺로 중창하게 되었다.

2) 불상의 형식(그림 61, 62, 63, 64, 65)

현재 觀音寺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菩薩坐像이다. 菩薩이란 성불하기 위하여 수행에 힘쓰는 이의 총칭으로, 大道·大覺을 바라는 사람이므로 부처는 물론 아니고 중생이요 사람인 것이다. 보살은 부처의 정토에서 부처를 모시는 무리이므로 天上界의 복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표현할 때는 지상의 귀인 특히 여성의 상으로 표현한다. 보살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상은 菩提를 구하고 그것으로 밑으로 중생을 빠짐없이 교화하는 한없는 자비심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자비로운 성격을 나타내려면 여성상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두 머리에는 관을 쓰고 몸에는 하늘을 나는 天衣를 입었으며 목에는 목걸이, 가슴에는 영락을 걸쳤으며, 팔에는 팔찌를 끼고, 귀에는 귀걸이를 달았으며 손에는 연꽃, 淨瓶, 구슬, 法輪 등을 들고 상호는 아름답고 온화하다.

관음보살은 보살 중의 보살로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의 준말인데 범어로 Avalokite svara라 하고 한자로 아발로기더습벌라(阿縛盧枳低濕伐羅)라 음역한다. 범명의 의미를 한문으로 번역할 때 玄奘 이전의 舊譯에서는 光世音, 觀世音, 觀音, 觀世自在 등으로 번역한다. 여러 법을 관찰할 수 있고 자유자재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관음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고 안락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믿어져 대중에게 가장 친근한 보살로 신앙되어 왔다.

관음보살에 대해 언급한 경전으로는 觀音經이라 불리울 정도로 관음의 성격과 공덕을 구체적으로 설한 경전인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과 무량수경, 대방광불화엄경, 입법계품인데 이 밖에도 청관세음보살소복독해陀羅尼주경을 비롯한 많은 陀羅尼경이 관음보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재료가 나무이며 머리에는 三山寶冠을 쓰고 있는데 정면에 큼직한 연꽃무늬가 1단에 5개, 2단에 4개가 조식되어 좌우로 장식되어 있다. 보관 중앙에는 化佛이 표현되어 있다. 화불은 좌상으로 머리에는 육계가 표현되어 있으며 두 손을 모으고 있다. 화불의 상호 표현은 명확하지 않으며 얼굴 표정도 부정확하다.

보살상의 머리 부분은 보관을 쓸 수 있도록 층단을 두었다. 턱이 진 부분은 둥그렇게 낮은 그릇을 얹어 놓은 모양으로 머리 중앙에서 상투처럼 묶은 머리를 높게 틀어 올렸다. 머리칼은 일반적인 보살상에서 보이는 예처럼 이마로부터 冠이 쓰이는 곳까지만 머리칼을 표현하였다. 보발은 켓바퀴를 지나며 흘러내린 머리칼이 어깨에 닿아 원형을 이루다가 세 가닥으로 길게 늘어져 끝이 구불구불하게 흘러내리고 있다.

상호의 전체적인 형태는 방형이며 반개한 눈과 붉게 칠한 입술은 작고 꼭 다물어 단정하다. 눈썹은 선으로 그려져 있고, 두 눈썹의 중앙에는 백호가 있다. 코는 상호의 각 부분과 비교해 볼 때 큰 편이고 코 아래 인중은 넓게 표현되어 있다. 양 귀볼에는 8판의 연꽃무늬가 조식되어 있다. 얼굴의 전체적인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한결 양감이 있고 부드러운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다. 목에는 三道를 새겨 놓았고 가슴은 넓고 평평하다.

왼쪽 어깨에서 넘어간 법의 자락은 왼쪽 등을 지나 엉덩이까지 길게 늘어져 있다. 가슴 아래 명치 부분은 僧脚崎가 가로 지르고 있으며 僧脚崎 상단은 꽃무늬 형태로 조각되어 있다. 결가좌부한 무릎 위로는 군의 자락이 오른 발목의 중앙에서 모아져 물결 모양으로 휘감아 흘러내리고 있고 왼쪽 무릎 위에 흘러내린 군의자락의 끝단에는 ㄴ형을 이루며 겹쳐져 있다.

보살상의 양손은 별도로 만들어 끼웠으며 오른손은 올려 가슴에 들었고 왼손은 무릎 위에 놓아 엄지와 중지를 맞댄 下品中生印을 짓고 있다.

바닥은 제형으로 목판으로 마무리하였으며 중앙에서 뒤쪽으로 방형의 복장

공을 뚫어 놓고 腹藏物을 넣었다.

현재 머리에 쓴 보관은 17세기 후반에는 볼 수 없는 형태로 후대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종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6호, 2007. 07. 25)

* 소재지 :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2번지 용문사

* 규 모 : 전체높이 42cm, 무릎너비 25cm, 무릎높이 6.5cm, 어깨너비 18cm, 상호높이 15cm

1) 사찰 연혁(그림 67, 부록 7)

용문사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이다.

사찰 내에는 대웅전(정면 5칸, 측면 3칸의 팔작와가), 종각, 요사 2동 등의 건물과 5개의 비가 있다. 5개의 비 가운데 사적비와 창건주 공적비가 있어 사찰의 연혁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사적비와 불교제주교무원의 자료에 의하면 용문사는 1945년에 고정선 스님이 초가 2동을 지어 창건하였으며, 당시 명칭은 觀音寺 중양포교당 하도출장소였다.¹⁰⁰⁾ 그 후 법당이 협소하여 신도들이 정성을 모아 1969년에 현재의 법당을 와가로 중창하였다.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창건 당시 해남 은적사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1949년 목포 삼학사로 이안되었다가 1972년 용문사로 옮겨져 보관하고 있다.

2) 불상의 형식(그림 68, 69, 70, 71, 72, 73)

100)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pp. 276-277.

이 불상은 나무로 제작된 소형 불상이다.

머리는 나발이 촘촘하고 머리와 거의 구분이 없는 육계는 둥글다. 머리 중앙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가 있고, 정상에는 아주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상호는 머리와 턱 부분이 호형을 이루고 있는 장방형에 가까운 모습이다. 사각형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고, 코는 콧날이 곧게 뻗었으며, 입은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마는 넓고 양미간 중앙에 백호를 크게 돌출해 새김하였다.

목에는 삼도를 새겼다. 신체는 전체적으로 둥글며 옷 주름의 선도 매우 유려하다. 법의는 U자형으로 길게 트여 있다. 양쪽 팔꿈치 부분에서 나팔 모양으로 접혀진 폭이 넓은 옷 주름이 가부좌한 왼쪽 무릎 아래로 나뭇잎 형태로 드리워져 있다. 군의는 가슴에서 일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보이고 있는 양련형과 대비된다. 무릎 위로는 군의 자락이 중앙에서 모아졌다가 부채살 모양으로 넓게 펼쳐 있다. 등 뒤에는 왼쪽 어깨 뒤로 넘긴 옷자락이 길게 드리워져 유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체는 건장하고 당당한 편이지만 가슴은 평판적이고 아랫배가 볼록나온 형태로 어깨는 굴곡져 경직된 양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체는 결가부좌하였고 무릎은 상체에 비해 넓은 편이다.

수인은 오른손을 펴서 오른쪽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아 향마촉지인을 결하고 있으며 왼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약지를 약간 구부리고 있다. 손바닥에는 손금이 음각되어 있고 손은 별조해서 붙이고 끼워 넣었다.

몸체 부분은 통나무이며, 무릎 바깥 쪽 부분만 따로 붙여 불상은 2개의 나무로 만들어졌다. 바닥에는 복장공이 아주 크게 마련되었고, 범어 8자가 4자씩 횡으로 朱書되어 있으며, 그 옆으로 “平生至願爲父母願/佛施主 嘉善大夫 性還靈駕 伏爲/亡父 通政大夫 李武生/亡母 安氏 景德”이란 목서가 있다.

6.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종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3호, 2005. 10. 05)

* 소재지 : 서귀포시 정방동 236번지 정방사

* 규 모 : 전체 높이 61.5cm, 어깨 너비 28cm, 무릎 너비 42cm, 무릎 높이 14cm

1) 사찰 연혁(그림 79, 92, 93, 94, 95, 부록 8)

정방사는 서귀포시 정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이다. 1931년 서귀포시 영천동 현재의 선돌선원 위치에서 처음 창건되었으며 당시 사찰명은 쌍계사였다.¹⁰¹⁾ 현재 공양용 佛具에 ‘濟州道雙溪寺’(1932년 조성)란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 유물이 남아 있다. 그 후 1934년에 서흥동 지장샘 부근으로 사찰을 옮겼다고 하며, 1935년에 현 위치로 사찰을 다시 옮겨 대웅전을 짓고 공덕비를 조성하였으며, 장성 白羊寺의 포교당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연혁비에 의하면 金南夏 스님이 대웅전을 1935년 3월에 기공하여 동년 7월에 완공하여 創寺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 시멘트식 기와집이며, 靑銅의 석가모니 불을 본존불로 봉안하고 양협시불은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을 모셨다. 정방사에는 연혁비와 8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어 창건 역사를 알 수 있다.

정방사의 연혁을 기록한 사각형의 비가 대웅전 앞마당에 있다. 이 연혁비는 횡으로 23행에 걸쳐 있으며 측면에 “佛紀二五三二年(西紀一九八八年) 七月 日 正房寺 信徒一同 建立”라 하여 비문 건립 연대가 1988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에 따르면 1932년(소화 7년)에 창건되었는데 원래 정방사는 頭陀寺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연혁비에는 ‘漢拏山跋陀羅寺… 寺初創於坵上曰雙溪末

101) 김창화 외. (2004). 제주의 폐사지. 제주도, pp. 70-73.

久移於烘爐…」라고 쓰여 있다. 이는 김상헌의 『南槎錄』에 보이는 ‘向頭陀寺行巡多…寺在兩溪之間寺之一名雙溪庵…」雙溪庵이 雙溪로 추정된다.¹⁰²⁾

대웅전 앞마당 좌측에 시멘트로 단을 만들고 그 위에 22개의 비를 3열로 모아 놓았다. 거의 대부분이 공덕비이며, 일제 강점기부터 그 후에 세운 것이다.

2) 불상의 형식(그림 80, 81, 82, 83, 84, 85, 86, 87)

이 불상은 소형 불상으로 불상의 재료는 佛石(제올라이트)으로 추정된다.

머리는 나발이 촘촘하고 머리와 거의 구분이 없는 육계는 둥글다. 머리 중앙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가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정상에는 아주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양 미간 사이에는 백호가 양각되어 있다.

상호는 머리와 턱 부분이 호형을 이루고 있는 장방형에 가까운 모습이다. 사각형의 얼굴에 반쯤 뜯은 눈은 눈 꼬리가 거의 수평을 이루어 일직선형이다. 코는 콧날이 곧게 뻗었으며, 콧볼의 표시만 양쪽으로 간략히 둥그렇게 음각하였다. 인중은 넓고 낮은 편이고, 입은 굳게 다물고 작게 표현하였으나 양 입가를 눌러서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마는 넓고 양미간 중앙에 백호를 크게 돌출시켜 새김하였다. 목에는 삼도를 새겼으나 한 줄만 형식적으로 표현하였다.

신체는 어깨가 거의 각을 이루어 움츠러든 모습이며 법의의 선은 매우 유려한 편이다. 법의는 통견이며 U자형으로 길게 트여 있다. 오른쪽 어깨의 의문은 2조선으로 음각된 마치 넓은 띠문양과 같은 큰 대가 호형을 그려 반달과 같은 문양이나, 오른쪽 팔 굽의 하단까지 길게 늘어져 S자형을 이루고 있다. 왼쪽 어깨에서 내려온 의문은 3조선으로 수직처리 하였다. 왼쪽 팔꿈치 부분에서 흘러내린 옷 주름은 가부좌한 왼쪽 무릎 아래로 나뭇잎 형태로 드리워져 있다. 군의는 일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밑에 2조선의 평행문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처리 하였다. 결가좌부한 무릎 위로는 군의 자락이 중앙에서 모아졌다가 부채살 모양으로 넓게 펼쳐 있다. 등 뒤에는 왼쪽 어깨 뒤로 넘긴 옷자락이 길게 한 자락만 드리워져 유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왼쪽 팔굽의 측면 문양은 ㄱ형의 문양이 변형되어 삼각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102) 김창화 (2004). 제주의 폐사지. 제주도, p. 72 재인용.

수인은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이 위를 향하면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면서 구부려 손바닥이 무릎 위를 향하여 옷자락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러한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므로 아미타여래의 중품중생 혹은 중품하생과 같은 형식이나 아미타여래의 중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형에서 벗어난 형식이다. 이 불상은 과거칠불 가운데 3번째의 毘舍浮佛이다. 이러한 불상의 수인이 정확히 어떠한지를 밝혀주고 있는 경전은 없다. 아미타구품인 수인과 비슷하게 처리한 까닭은 비사부불 자체가 수명연장 사상과 관련이 있고 발원문에 무량수불을 친견하고자 하는 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적인 비례상으로 볼 때 무릎은 넓은 편이어서 안정감을 주고 왼쪽무릎 위에 이 시기의 특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옷주름 한자락이 접혀져 있다.

불상 내부는 끝로 파내어 木佛처럼 내부를 깊게 만들었으며, 이곳에 腹藏物을 넣은 후에 한단의 턱을 두고 반타원형의 목판으로 막아 놓았다.

3) 벌교 용연사 석조구류손불좌상¹⁰³⁾(그림 96)

2006년에 전남 벌교 용연사 석조구류손불좌상이 발견되었다. 용연사는 전남 보성군 벌교읍 월곡리 795번지 부용산 동쪽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용연사는 1922년 4월 8일에 창건하였다고 하며 처음에는 용은사라 하였다가 창건 30여 년 후에 용연사로 개칭하였다.

현재 용연사에는 대웅전, 관음전, 칠성각, 산신각, 벽안당, 일주문 겸 종각, 요사채 등 7동의 건물이 있다. 석조구류손불좌상은 용연사의 대웅전 본존불로 봉안되어 있다. 발원문에 의하면 용연사에는 ‘七佞五’로 ‘第五拘留孫佛’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 정방사의 불상은 ‘七佞三’로 ‘第三毗舍浮佛’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이 석불 또한 정방사 석조여래좌상과 같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拘留孫佛은 過去七佛의 제5로 구루손(拘樓孫), 구루진(拘樓秦), 가라구타(迦羅鳩駄), 가라가손제(迦羅迦孫提), 가라구촌타(迦羅鳩村駄), 가라구손타(迦羅鳩

103) 최인선, (2006). 벌교 용연사 석조구류손불좌상에 대한 고찰. 순천대학교.

浪駄), 갈라가촌타(羯羅迦寸他), 구손나(拘孫那)라고도 쓰며, 성취미묘(成就美妙), 정결(頂結), 소응단이단(所應斷已斷)이라 번역한다. 과거칠불의 하나이며, 현겁 천불 가운데 하나이자 바라문종족이며, 성은 가섭이고 아버지는 禮得, 어머니는 善枝이다. 人壽 4만세 때에 安和城에서 나서 尸利樹 아래서 성불하였다. 제1회 설법에서 4만의 비구를 교화하였다.

이 불상은 높이 57.5cm, 무릎너비 42cm, 무릎 높이 12.5cm이다. 불상의 재료는 석재인데 화강암처럼 강하지 않은 제올라이트(佛石)로, 조각하기에 용이한 것으로 보여진다. 개금상태가 양호하며 상호는 고개를 약간 숙여 구부정한 자세를 취해 조선 후기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머리는 나발이 촘촘하고 머리와 거의 구분이 없는 육계는 둥글다. 머리 중앙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가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정상에는 아주 낮은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있다. 양 미간 사이에는 백호가 양각되어 있다.

상호는 머리와 턱 부분이 호형을 이루고 있는 장방형에 가까운 모습이다. 상호는 전체적으로 사각형에 가깝고, 길고 날카로운 눈과 굳게 다문 입을 보여주고 있다.

신체는 어깨가 거의 각을 이루어 움츠러든 모습이며 법의의 선이 마치 목조 불과 같이 매우 유려한 편이다. 법의는 통견으로 U자형으로 길게 트여 있다. 오른쪽 어깨의 의문은 2조선으로 음각된 마치 넓은 띠문양과 같은 큰 대가 호형을 그려 반달과 같은 문양이나 오른쪽 팔 굽의 하단까지 길게 늘어져 S자형을 이루고 있다. 왼쪽 어깨에서 내려온 의문은 3조선으로 수직처리 하였다. 군의는 일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군의 밑에 2조선의 평행문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처리 하였다. 결가좌부한 무릎 위로는 군의 자락이 중앙에서 모아졌다가 부채살 모양으로 넓게 펼쳐 있다. 등 뒤에는 왼쪽 어깨 뒤로 넘긴 옷자락이 길게 한 자락만 드리워져 유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왼쪽 팔굽의 측면 문양은 ㄱ형의 문양이 변형되어 삼각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이 위를 향하면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면서 구부려 손바닥이 무릎 위를 향하여 옷자락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러한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므로 아미타여래의 중품중생 혹은 중품하생과 같은 형식이나

아미타여래의 중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전체적인 비례상으로 볼 때 무릎은 넓은 편이며, 원 무릎 위에 이 시기의 특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옷주름 한자락이 접혀져 있다.

불상 내부는 끝로 파내어 木佛처럼 내부를 깊게 만들었으며, 이곳에 腹藏物을 넣은 후에 한단의 턱을 두고 반타원형의 목판으로 막아 놓았다.

제2절 기년명 불상의 腹藏物

1. 腹藏物의 구성

불복장은 불상의 내부에 安立되는 모든 내용물과 의식을 칭한다. 즉, 불상을 조성한 후 법당에 봉안되기 전 불상의 내부에 의식과 함께 행해지는 과정을 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 安立되는 여러 물목을 통칭한다. 다시 말하면 복장은 불상과 보살상이 종교적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복장에는 발원문, 전적, 사경, 陀羅尼, 복식, 직물 등의 물목이 安立되어 있어 당시의 사회상과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장 물목을 통하여 조성연대와 봉안 사찰, 彫刻僧 등을 알 수 있어 불상 조사에 있어서 복장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 또한 安立된 여러 가지 물목을 통해 불교의 思想과 敎理가 내포되어 있어 불교미술사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복장에 대한 초기 연구는 1960년대에 시작되었는데 많은 양은 아니지만 단편적으로 개별 물목에 대한 조사 보고¹⁰⁴⁾가 있다. 개별 물목에 대한 세분화된

104) 閔泳珪. (1996). 장곡사 고려철불 복장유물. 인문과학 제 14-15합집.

文明大. (1969). 홍성고산사 불상의 복장조사. 고고미술 제9권 제1호.

姜仁求. (1975). 서산문수사 금동여래좌상복장유물. 미술자료 제18호.

鄭永鎬. (1975). 장육사 보살좌상과 그 복장발원문. 고고미술 제128호.

黃壽永. (1975). 안성 청원사 고려사경. 동양학 5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洪思俊. (1976). 홍산무량사 극락전 발견 주존불복장품. 미술자료 19호.

한국문화재보호협회충청남도지회. (1976). 서산문수사극락보전발굴조사보고서.

崔夢龍. (1977). 완도 관음사 목조여래좌상과 복장유물. 미술자료 20호.

연구는 서지, 陀羅尼, 직물, 복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전체적인 복장의 구성 형식과 개별 물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한 것은 2004년 수덕사 근역성보관에서 이루어진 불복장 특별전 도록이 있다.

복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복장에 安立된 발원문에서 ‘복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장은 고려시대(766년)가 가장 빠르다. 이 시기의 복장은 정형화된 형식은 아니지만 喉鈴筒을 중심으로 한 복장의 모습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8세기부터 복장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일본 역시 796년에 제작된 隆平永寶가 唐招提寺 金銅藥師如來立像에서 발견된 사례를 비롯하여 많은 수량의 복장들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탑 내에서도 복장이 安立된 불상이 발견되는 사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티벳, 태국 등지에서 현재까지 복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복장은 불교 유물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전으로는 造像經이 있다. 造像經은 복장을 안치할 때 필요한 모든 물목과 순서, 의식을 기록하고 있는 경전이다. 造像經으로는 불상의 구성과 그에 따른 공덕을 강조한 경전으로 한대에 번역된 조탑공덕경이 있으며 불상을 조성하는데 소요경비를 시주하거나 불상을 깨끗하게 소제하면 영험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상공덕경, 灌佛功德經 등이 있다.

造像經은 발원문과 여러 물목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종류를 나열하였으며, 喉鈴筒 안에 安立되는 순서, 黃綃幅子로 싸여지는 방법 등을 기술하고 있다. 五穀, 五香, 五杵, 五芥, 五色絲, 五藥, 五香, 五寶, 五寶瓶 등이 여러 물목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크게 보면 喉鈴筒 외부와 내부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내부는 五寶瓶과 그 안에 安立되는 물목, 五輪種子나 眞心種子 등의 방위

石宙善(1979). 고려 무량수여래의복장유물. 박물관신문 제90호.

千惠鳳(1982). 봉림사 목조여래좌상의복장전적. 서지학 제7호.

박경원. 정원경. (1983). 영태2년명납석제호. 부산시립박물관 연보 6.

洪潤植. (1984). 조선 초기 상원사문수동자상에 대하여. 고고미술 제164호.

朴相國. (1984). 상원사 문수동자상 복장발원문과 복장전적에 대하여. 한국불교학 제9집.

許興植. (1988). 1322년 새로운 불복장. 한국의 고문서. 민음사.

朴相國. (1990).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경전에 대하여 上. 서지학보 창간호.

朴相國. (1990).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경전에 대하여 下. 서지학보 제2호.

성보문화재연구원. (1977).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복장유물의 연구.

수덕사 근역성보관, (2005). 至心歸命禮-한국의 불복장.

홍윤식. (1988) 불불상·불화에 있어서 불복장의 의미. 한국 불교사 연구. 교문사.

와 관련한 것, 八葉, 외부는 四方呪, 五方鏡, 黃綃幅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점안 의식과 함께 복장의식은 造像經에 기술하고 있는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며 상은 하나의 불격을 갖추는 존재로 변화되어 법당에 봉안된다. 즉 불상은 신앙의 대상물로서 자격과 지위를 변화시키는 불교의식이 바로 복장인 것이다. 하지만 복장되어지는 모든 물목들이 造像經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일률적이지는 않는다. 복장에 따라 약간의 물목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喉鈴筒에 安立되는 위치상의 변화는 보이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造像經은 모두 6종으로 5종의 판본과 필사본이 1종이다. 1575년 용천사판 造像經과 1677년 嚮伽寺板 觀相儀軌, 1720년 화장사판 화엄조상, 1746년 金龍寺板, 1824년 楡岾寺板과 필사된 造像經이 있는데 각 판본의 표제는 다르지만 내용은 물목의 구성과 의미, 安立하는 차례 등을 설명하고 있다. 즉, 造像經은 불·보살상의 구성에 따른 제반 의식과 절차에 관한 기록을 모아 체계화한 경전으로 불상을 조성할 때 필요한 복장의 구성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불교의식을 구체화시킨 자료이다.¹⁰⁵⁾ 造像經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은함 또는 喉鈴筒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장 연구에 있어 기준은 1824년 楡岾寺板 造像經으로 복장의 모든 구성과 물목을 시대를 불문하고 비교대상으로 삼아 제시하고 있다. 楡岾寺板의 경우 喉鈴筒 안에 安立되는 여러 물목의 종류와 의미를 담고 있으며 安立되는 순서를 기록하고 있다. 각 물목은 그 의미와 상징에 따라 복장 안에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喉鈴筒 안에 安立되는 경우나 복장의식이 진행되는 모든 순서는 의식을 담당하는 통주스님의 진언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식을 띠고 있다.

1) 발원문

발원문은 불상의 구성에 관한 모든 기록을 담고 있는 물목이다. ‘願文’, ‘복장기’ 등으로 표기하는 예도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같다. 발원문의 발견을 통해 불상의 造成年代와 奉安 사찰과 전각, 畵員 또는 良工이라 기록되는 彫刻僧, 불상 조성의 일에 관련된 스님들, 시주자 등을 알 수 있으며, 내용상 發願, 緣

105) 남권희, (2004). 불복장과 安立물.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 수덕사근역성보관. p. 279.

化秩, 施主秩로 구분된다.

楡岾寺板 造像經 이외의 다른 판본에서는 발원문에 대한 설명은 보이지 않으며, 造像經에서는 ‘원문’이라 표기하였다. 楡岾寺板 造像經에서는 발원문을 ‘푸른 비단에 붉은 글씨로 증명한 모든 스님, 만든 사람, 심부름한 사람, 신도, 연화를 보고 듣고 따라 기뻐하여 도운 사람들을 일일이 써야 한다’¹⁰⁶⁾ 라고 설명하고 있다.

造像經에서는 ‘靑綃紅書’라고 하여 푸른색 비단에 붉은 색으로 쓰는 것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복장에 참여하거나 심부름한 사람까지 모두 기록하는 것으로 이르고 있다. 이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였어도 공덕 자체는 변함이 없음을 일깨우면서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發願과 功德은 같다고 설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발원문은 대부분 1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 다시 재복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상 안에는 1종류의 발원문만이 발견되고 있다. 조선시대의 발원문은 대체적으로 기록자는 한 사람으로 일정한 서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규칙성이 강조되어 있으며 書體 또한 일정하며 불상 조성과 관련된 기록, 대시주자, 스님, 發願들을 위주로 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복장 기록에서는 발원문 자체에 시주자의 이름만을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發願文에는 여러 가지 당시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발원문의 緣化秩에는 證師, 誦呪, 持香이 있으며 畫員秩에는 畫員, 別座, 化主, 都監, 監寺 등이 있다.

먼저 緣化란 勸化라 하여 불가에서는 법을 들을 인연이 있는 사람을 권하여 인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證師는 證明이라고도 하는데, 증명은 사찰의 고승으로서 불사 전반을 관장하는 막중한 소임으로 법회를 증명할 의무를 맡은 법사이다. 또한 證師는 불상 조성시에는 전체적인 일을 감찰하는 최고 우두머리이다.

誦呪는 주문을 외우고 陀羅尼를 암송하는 승려이다.

106) 造像經. 제불보살복장단의식조. 1824년 楡岾寺板.

‘靑綃紅書 證明諸師 梓匠 給侍 檀越 緣化見聞隨喜緣者 一一備書爲可也’

持殿은 持香이라고도 하는데 선종사원에서 법당관리를 맡은 승려이다. 持殿은 또한 殿主라고도 하는데 불전을 청소하고 향, 등의 일체를 맡은 소임이다.

畫員秩에서 畫員은 龍眠, 畫師, 畫工이라고도 한다. 畫員은 19세기에 들어와 일반적으로 金魚라 칭하고 있다.

別座는 典座라고도 부르며, 부처님이나 스님에게 공양할 반찬과 음식을 만드는 소임이다. 본래는 평상이나 기구를 맡은 소임이었다.

化主는 신자의 집을 돌며 절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모으는 소임으로서 불상 조성시 재정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都監이란 都監寺의 약어로 監院 위에 있어서 선원사무의 전부를 맡은 역할로 都總, 都守라고도 한다. 선종사찰에서는 六知事(都寺, 監寺, 副寺, 維那, 典座, 直歲)가 있는데, 監寺는 주지를 대신해서 절 내 일체의 사무를 감독한다.

三綱은 사원내 일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덕이 있는 세 사람의 役僧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綱은 綱繩을 뜻하여, 타인을 통령하는 덕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삼강은 바로 上座(사람 통괄), 寺主(사무 관장), 維那(규칙 감찰)이다.¹⁰⁷⁾

발원문에 보이는 同知, 僉知는 실제적인 관직이 아닌 상징적인 관직 명칭으로 지방의 부유한 양반, 노인들에게 지급되던 관직 중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복장 기록에서는 발원문 자체에서 시주자의 관직에 대해 기술한 예가 많이 없는 대신 시주자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예가 대부분인 관계로 관직명은 정확하지가 않다. 다만 발원문 자체에 시주자가 시주한 물목을 각각 명시하는 예는 많다.¹⁰⁸⁾

兩主는 부부 두 사람이라는 뜻이고 兩位는 죽은 사람의 부부를 말함이며 單身은 홀로된 사람이고 保體는 존칭으로 ‘님’이라는 뜻이다. 柴施主는 땔나무를 시주한 분으로 당시에 땔나무 시주는 워낙 큰 시주인지라 별도로 기록한 것이다.

제주에서 발견되는 조선시대 복장 발원문들은 불상 조성과 제작년도, 불보

107) 길상. (1998). 불교인사전 상, 하. 흥법원.
승려의 소임에 대한 내용을 참고함

108) 이선용. (2005). 불복장물 구성과 직물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p. 84.

살 명칭, 봉안사찰과 전각 등을 기록한 다음 왕과 왕비, 왕세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연화질과 시주질을 나열하는 등의 전제적인 서식을 일반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정방사 석조여래좌상은 봉안처 및 왕과 왕비, 왕세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 등에 대한 기술이 생략되어 있다. 서식이나 서체 등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발원문 기록자 한 사람에 의해 일정한 서식을 취하여 기록하고 규칙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서체 또한 일정하다.

그리고 불상을 조성함에 있어서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을 제외하고는 왕실이나 중앙관료의 후원이 없었다는 것에서 조선 후기 불상 조성에 지방 유지나 일반서민의 참여가 일반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신도 중에는 관료나 지방의 유력한 인사로 추정되는 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 성씨가 없이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신분이 낮은 하층민으로 보인다. 시주 명단을 보면 시주자들은 천민을 비롯한 거의 모두 신도들이며 또한 부부들 이른바 化主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승려들은 한두 명에 불과하고 시주 명단에서도 일반 신도들과 함께 적는 것으로 보아 승속의 구분 없이 시주의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상조성에 참여하는 조각승의 경우도 모두 승려 계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선 전기의 복장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문구가 17세기에 형식화되었다는 점은 불교에 유교의 충효사상이 융화되어 유교적 정치체계가 뿌리내렸음을 의미한다.

2) 喉鈴筒

喉鈴筒은 五寶瓶을 安立하는 통이다. 人間의 五臟六腑 중 그 중심이 심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喉鈴筒은 佛像의 심장이며 복장의 핵심을 이룬다. 奉安 위치도 가슴과 목 중간으로 시대에 따른 喉鈴筒의 봉안 위치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불상 안에 安立된 물목들의 훼손으로 인하여 복장이 처음 이루어지던 위치와 발견 당시의 위치가 변화되어 있는 복장들도 있다. 조선시대의 喉鈴筒은 원통형으로 뚜껑에는 관이 부착되어 있는 구멍이 있어 五寶瓶의 五色絲가 외부로 연결되어 喉鈴筒의 외부에서 四方鏡을 감고 있는 모습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여러 종류의 造像經에서 재료, 크기, 형태 등 喉鈴筒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있다. 하지만 명명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824년 楡岾寺板을 제외한 다른 경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銀盒, 喉鈴八葉筒, 筒, 후령팔엽통은합, 팔엽통, 후령은합팔엽통으로 命名하고 있다. 형태상으로는 ‘盒’과 ‘筒’이 혼용된 것으로 은합, 후령, 팔엽 등의 단어와 함께 결합된 명칭임을 알 수 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喉鈴筒이라는 명명은 기록상으로 1824년 楡岾寺板 造像經에서 나타나고 있어 가장 늦은 시대의 명칭이라 할 수 있다. ‘후령팔엽통은합’과 ‘후령은합팔엽통’은 두 명칭 모두 후령과 팔엽, 그리고 은합이 합쳐진 형태이다. ‘통’과 ‘합’을 형태상의 차이로 생각한다면, ‘후령’, ‘팔엽’은 喉鈴筒 이전의 명명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喉鈴筒이 종이로 제작된 경우 대부분 물을 들인 한지를 사용하거나 한지에 채색하여 제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직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五寶瓶

五寶瓶은 喉鈴筒 안에 安立되는 것으로 喉鈴筒이 복장의 중심이라면 五寶瓶은 喉鈴筒의 심장이다. 동·서·남·북·중앙을 상징하는 각각의 보병을 합쳐 五寶瓶이라 칭한다. 재료면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동쪽은 瑪瑙瓶, 서쪽은 珊瑚瓶, 남쪽은 摩尼瓶, 북쪽은 琉璃瓶, 중앙은 水淨瓶으로 만든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 喉鈴筒에서 발견되는 五寶瓶의 경우 대부분 방형의 직물이나 한지에 安立물을 넣어 사방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접어 말아 오색사에 감겨 있다. 오색사로 감겨 있는 五寶瓶은 작은 원통형으로 병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이는 여러 물목을 넣고 喉鈴筒 안에 安立하기 위하여 통과 유사한 모양으로 내부에 여러 물목들을 포장하기 용의하다는 점과 喉鈴筒의 크기에 적합한 형태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특히 조선시대 喉鈴筒에서 발견되는 五寶瓶의 경우 대부분 方形的 織物이나 한지에 安立물을 넣어 四方의 모서리를 三角形으로 접어 말아 五色絲에 감겨 있다.

造像經에서 五寶瓶 내부에 들어가는 물목은 모두 65가지이며, 각각의 보병

에 모두 13종류의 물목이 넣어진다.

(1) 五穀

五穀이란 五寶瓶 안에 安立되는 다섯 가지 곡식을 말한다. 동쪽은 大麥인 보리, 남쪽은 稷(기장), 서쪽은 稻(벼), 북쪽은 菽豆, 중앙에는 麻子(삼베씨)가 安立된다. 이는 보리의 싹을 틔운다는 뜻이다.

五穀은 상당 부분 훼손으로 인하여 껍질만 남아 있거나 방위별로 분류하여 安立되기보다는 각 방위에 造像經에 나타나는 여러 종자들이 혼합되어 각 보병에서 발견되고 있다.

(2) 五寶

오보는 五寶瓶안에 들어가는 다섯 가지의 보석을 말한다. 동쪽에 生金, 남쪽에 眞珠, 서쪽에 生銀, 북쪽에 琉璃, 중앙에는 琥珀이 安立되는데 造像經에서 그 의미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3) 五香

다섯 가지의 부처님의 향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佛香, 法香, 寶香, 羯摩香, 智香을 상징한다. 동쪽에 青木香, 남쪽에 丁香, 서쪽에 藿香, 북쪽에 沈香, 중앙에는 乳香을 安立한다.

(4) 五藥

다섯 가지의 병환을 다스리는 의미로 다섯 가지의 약이 不淨觀, 慈悲觀, 智慧貫, 謙心觀, 正念觀이라는 오장의 병을 다스리는 것을 가리킨다. 오약을 지니는 것은 다섯 가지 부처가 되는 약을 상징하며 동쪽에 人蔘, 남쪽에 甘草, 서쪽에 桂心, 북쪽에 阿梨, 중앙에는 附子が 五寶瓶 안에 安立된다.

(5) 五黃

五寶瓶 안에 安立되는 다섯 가지 黃을 말한다. 동쪽에 大黃, 남쪽에 雄黃, 서쪽에 小黃, 북쪽에 雌黃, 중앙에는 牛黃이 安立된다.

(6) 五吉祥草

다섯 가지의 吉祥草를 말한다. 동쪽에 矩舍草, 남쪽에 摩訶矩舍草, 서쪽에 宝利矩舍草, 북쪽에 苾芻矩舍草, 중앙에는 悉黨矩舍草이다.

(7) 五芥子

개자는 겨자씨와 갯씨의 통칭으로 개자의 다섯 종류를 말한다. 동쪽에 蔣蘿

靑芥, 남쪽에 紫芥, 서쪽에 白芥, 북쪽에 蔓靑芥子, 중앙에는 黃芥이다.

(8) 五時花

다섯 종류의 꽃으로 동쪽은 靑時花, 남쪽은 紅時花, 서쪽은 白時花, 북쪽은 黑時花, 중앙은 黃時花를 安立한다.

(9) 五寶提葉

다섯 가지의 보리수를 말한다. 동쪽은 香樹葉, 남쪽은 楸樹葉, 서쪽은 夜合樹葉, 북쪽은 梧桐葉, 중앙은 樹聖葉을 安立한다.

(10) 五彩幡

幡은 불교의식에 사용되는 장엄구의 하나로 오색의 다섯 가지 번은 부처님의 몸을 표시한다. 造像經 妙吉祥大教王經條에서는 동쪽은 靑色, 남쪽은 黃色, 서쪽은 紅色, 북쪽은 綠色, 중앙은 白色이다. 그러나 諸佛菩薩腹臧壇儀式條에서는 동쪽은 靑色, 남쪽은 紅色, 서쪽은 白色, 북쪽은 黑色, 중앙은 黃色으로 표시하고 있다. 실제 복장 안에서는 한지나 직물로 표현한다.

(11) 五色線

오색선은 喉鈴筒과 관련된 모든 물목을 연결하고 있는데 安立된 물목이 외부로부터 차단하여 다른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2) 五傘蓋

五寶瓶을 덮는 뚜껑을 말한다. 동쪽은 靑蓋, 남쪽은 紅蓋, 서쪽은 白蓋, 북쪽은 黑蓋, 중앙은 黃蓋를 安立한다.

(13) 五帛杵

五寶瓶 안에 安立되는 다섯 종류의 금강저를 말한다. 금강저는 의식구의 하나로 고대 인도에서 무기로 사용되었다. 동쪽은 靑帛杵, 남쪽은 紅帛杵, 서쪽은 白帛杵, 북쪽은 黑帛杵, 중앙은 黃帛杵를 安立한다.

4) 五輪種子와 眞心種子

(1) 五輪種子

오륜종자와 진심종자는 喉鈴筒의 내부와 뚜껑에 방위를 표시하는 것이다.

造像經에서는 모두 직접 기록하지 않고 綯에 梵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造像에서 발견된 복장에서는 그 모습을 찾기 어렵다. 동쪽은 사각형, 남쪽은 삼각형, 서쪽은 원형, 북쪽은 반달형, 중앙은 원형의 方輪을 만든 후에 각각의 오류자를 기록하며, 각각의 오류자를 圓輪에 아교로 붙인다.

(2) 眞心種子

진심종자는 喉鈴筒의 八葉蓋 위에 기록하는 것으로 모든 造像經에서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뚜껑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데, 이것은 八葉이 대부분 五寶瓶 위에 덮여 있는 형태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5) 四方呪와 五方鏡

四方呪와 五方鏡은 모든 造像經 판본에서 喉鈴筒의 방위와 관련하여 기록하고 있는 물목 중의 하나이다. 모두 喉鈴筒의 외부에서 방위를 나타낸다. 四方呪는 造像經에 ‘통 밖에 쓴다’라고 기록하면서 동·남·서·북을 가리키는 범어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五方鏡은 동·남·서·북·중앙의 방위를 각 형태별로 표현한다. 동쪽은 方鏡, 남쪽은 三角鏡, 서쪽은 圓鏡, 북쪽은 半月頃, 중앙은 圓鏡이다. 그 중 중앙을 제외한 四方鏡은 통의 외부에 부착되어 방위를 표시한다.

소재면에 있어서 금과 은 또는 종이로 대체한다고 하였으나 대부분은 금속제를 사용하였다.

6) 黃綃幅子

黃綃幅子は 喉鈴筒에 관련한 모든 물목의 安立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喉鈴筒을 감싸는 물목이다. 대부분 직물로 되어 있다. 黃綃幅子에 대한 기록은 1346년 문수사 금동아미타불상 복장에서 처음 등장한다. ‘黃綃幅子’라 명명한 것은 1575년 용천사판 화엄조상부터 기록이 보이며, 모든 판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조선시대의 경우 喉鈴筒을 黃綃幅子로 감싸는 모습은 대부분 유사하다. 喉鈴筒을 黃綃幅子の 가운데에 놓고 감싸는데, 뚜껑의 喉穴의 管 부분에서 黃綃幅子를 모으고 五色絲로 감싼다. 오색사의 끝부분은 풀과 같은 것을 발라 접착시킨다. 오색사 위에는 한지나 직물을 길게 잘라 감는데 끝부분은 역시 접착제를 발라 접착시키며 이것을 ‘封’이라 하는데 誦呪스님이 墨書한다.

대각선이나 같은 방향의 자락의 끝은 서로 묶어 喉鈴筒의 포장을 마무리 한다.

喉鈴筒을 싸는 黃綃幅子의 내부에는 방위를 주서하거나 묵서 한다. 사방위를 모두 분서한 후 사방위 중 한자를 일자만 함께 기록하는가하면, 한 방위의 한자만을 주서하기도 한다. 대부분 정방형으로 된 직물도 보인다. 직물의 재료는 면, 견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조선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정형화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造像經에 의하면 喉鈴筒 안에 모든 물목들을 安立한 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黃綃幅子로 싸기를 끝낸다....黃綃幅子 안에는 먼저 願文을 안하고, 다음에는 寶篋呪를 안하고, 다음에는 천원지방을 싼 喉鈴筒을 안하되 黃綃幅子로 싸고, 幅子의 끝과 오색실을 빙 둘러 배후에 접착한다.’¹⁰⁹⁾

2. 기년명 불상의 腹藏物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서산사의 보살상은 대좌 밑에 가로 14cm, 세로 13cm의 사각형 腹藏孔이 뚫려 있고 그 안에서 腹藏物이 발견되었다. 腹藏物의 내용은 발원문을 비롯한 기문류 6장, 진언문 2장 그리고 복장 내용물 등이다. 그런데 腹藏物을 싸고 있는 黃綃幅子나 그 안에 있을 喉鈴筒은 유실되고 복장의 내용물 가운데 일부만 남아 있다.

(1) 記文類

① 發願文(그림 10, 11, 12, 13, 14, 15, 16, 17)

이 발원문은 연결되어 있지 않고 4장이 각각 낱장으로 흩어져 있다. 발원문

109) 造像經. 黃綃幅子內安立차제조. 1824년 楡岾寺板 참조.

의 크기는 각각 ① 가로 59.5cm, 세로 19.7cm, ② 가로 63.3cm, 세로 20cm, ③ 가로 69.5cm, 세로 20.4cm, ④ 가로 45.5cm, 세로 21cm 크기이며, 장방형 한지에 行書로 묵서하였다.

첫째 장은 이 보살상의 ‘發願文’으로 조성 연대와 참여자의 명단만 나와 있을 뿐 보살상의 명칭과 봉안처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嘉靖十三年甲午春

造成同發願文

佛像眞空無像宗

古今非有亦非空

妙体如如流法界

月輪赫赫大千中

主上殿下

王肥殿下

世子邸下

觀察使南世雄

牧使奉嗣宗

都事朴世昀

判官趙崇禮

座首金健

別監柳洽

生員羅益文

佛像大施主羅崇義兩主

上金大施主梁益淮兩主

그리고 이 발원문의 첫째 행과 둘째 행 사이에 ‘佛紀二千五百六十一年也至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三百九十三年四月初一日改金’이란 2행의 글을 후대에 써 넣고 있다. ‘嘉靖十三年甲午’는 ‘佛紀二千五百六十一年’에 해당하며 1534년(중종 29년)이다. 즉 1534년에 이 보살상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며, 1926년 4월 1일에

개금하였다.

발원문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관찰사 南世雄과 목사 奉嗣宗은 朝鮮王朝實錄에 나오고 있다. 南世雄은 중종 29년(1534년) 2월 6일에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되고, 중종 30년(1535년) 6월 27일에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¹¹⁰⁾ 奉嗣宗은 총 5회에 걸쳐 실록에 기재되어 있는데 중종 7년(1512년)에 禮曹佐郎, 중종 19년(1524년)에 安岳郡守, 중종 31년(1536년)에 羅州牧使 등을 지내고 있었으며 1537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¹¹¹⁾ 그러므로 奉嗣宗의 정확한 나주목사 재임 기간은 알 수 없으나 1534년 봄부터 1536년 4월 4일까지는 재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살상은 발원문에서 어느 사찰에서 조성하여 봉안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그 봉안처를 알 수 없다. 다만 조성한 지역의 관찰사와 목사가 전라도와 나주인 점으로 보아 이 보살상은 나주지역이거나 전라도의 어느 사찰에서 조성되고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¹¹²⁾

두 번째 장의 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供養大施主 梁竺同兩主

施主 尹末乙兩主

宋淸山兩主

夢金伊兩主

金夫兩主

110) 朝鮮王朝實錄. 중종 29년 및 30년조.

111) 朝鮮王朝實錄. 중종 7년, 19년, 31년, 32년조.

112) 정영호 교수 교시.

달성사 반가좌상이 서산사 목조보살좌상과 동일한 조각승인 향엄에 의하여 조성되었다.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의 발원문에 보면 조성한 지역의 관찰사와 목사가 나주 지역인 점으로 미루어 원소장처가 나주 운흥사가 아닌가 조심스레 추정해 본다.

운흥사는 덕룡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고찰로서 신라 효공왕 때 연기조사가 창건하였다. 사적기에 의하면 웅점사→웅치사→운흥사로 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찰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사찰이름인 熊 자 아래에 불(火)을 상징하는 점 4개가 있는 탓으로 하여 雲자로 바꿨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최근 나주 운흥사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사찰이었음이 여러 문헌 및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月分保体
六月伊兩主
郭道里孫兩主
儀文比丘
伐乙道兩主
眞柒施主金壽丁兩主
俞弘信兩主
羅番其兩主
今尹
小邊
尹末乙金兩主
善孫兩主
鄭仁夫兩主
鄭春孫兩主
朱成生乙兩主
周世熙兩主
白貴孫兩主
李同月兩主
李崇智兩主
陳得林兩主
吾使郎兩主
鄭瑞兩主
林千石兩主
千非保体
朴莫同兩主
仲山兩主
西元生兩主
金君世兩主
宋莊平兩主

羅漢永

長守兩主

丁尹兩主

孫順年兩主

思才兩主州

두 번째 장은 供養과 眞染 시주자의 명단 38명(兩主라고 하여 대부분 부부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거의 2배수에 해당함)이 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 기문의 중앙과 좌측 상단 사이에 다른 글씨체로 다음과 같이 써 넣고 있는 부분이 있다.

京畿道

楊州郡

水落山

鶴林庵

이 부분은 글씨체와 글자의 크기가 달라 후대에 써 놓은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한 때 이 보살상을 경기도 양주 수락산 학림암에서 봉안한 사실이 아닌가 한다.

세 번째 장의 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金致敏兩主

朴奉伊兩主

羅儀孫兩主

金小才兩主

萬從兩主

龍山兩主

孫住山兩主

金春孫兩主

朴□□兩主

朗□

徐孫兩主

孫□兩主

證明 處仁

持殿 性修

畫員 香嚴 倚奉七伊

智軒

別座 修仁

熙願

崇竺

供養主 印崇

持寺佛像大化主性一

化主 淡熙

丹青化主 信行

盖瓦化主 學澄

願堂大施主 金江兩主

梁竺同兩主

金夫兩主

文山兩主

羅外山兩主

芻伊智

□千石兩主

金世貞兩主

丹青大施主儀孫

孔住山兩主

姜春儀

네 번째 장은 중앙에서 좌측 부분이 유실되어 5~6명의 명단을 알 수 없으며 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申子同兩主
 李五奇兩主
 鄭仁孫兩主
 尹夫仇知兩主
 姜小山兩主
 申學文兩主
 鄭自丁兩主
 鄭□忠
 金斤平
 金從孫
 陳氏
 申萬松兩主
 申光文兩主
 龍非
 黃仲廷兩主
 金忘金兩主

 □□□保体
 今今保体
 鳩非保体
 □□之
 芑伊智保体
 訥非

이 부분 역시 시주자의 명단으로 인명만 나열되어 있는데 姓氏도 없는 천민
 까지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佛像腹藏儀’라 하여 위의 기문과 다른 글씨체로 쓰여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佛像腹藏儀

主上殿下

王妃殿下

世子邸下

觀察使南世雄 都使朴世昀

牧使奉嗣宗 判官趙崇禮

座首金健 別監柳洽 李璿

生員羅益文

이 부분은 비록 글씨체가 다르지만 발원문 첫째 장과 같은 내용인 점으로 보아 조성 당시에 쓰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발원문은 고려시대 瑞山文殊寺 佛像에서 발견된 것이 있다. 하나의 불상에서 두 종류의 발원문이 나와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전자를 一般發願文, 후자를 彌陀腹藏發願文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유의 발원문이 아닌가 추정된다.¹¹³⁾

다음으로 개금한 사실을 기록한 기문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佛紀二千五百六十一年에 造成이고至二千九百六十

六年己卯八月初九日改金佛事面回向갓지年代

가四百五年耳 畫師比丘 河龜峰

監院比丘 尹奉天

化主處士 徐性集

持殿童子 高斗旭

證師比丘 崔慧峰

불상의 조성 연대는 佛紀 2561年(1534년)이며, 佛紀 2966年 乙卯 8月 8日

113) 정은우, (2001), 고려 후기 불교조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 34.

(1939년)에 개금하였다. 당시의 畫師는 河龜峰이며 證師는 崔慧峰 스님이다.

마지막으로 개금불사를 하였던 내용의 기문인데 3행으로 아주 짧다.

(4-1)

改金佛事

佛紀二千五百二十三年

西山寺住持文星彬

② 金剛手菩薩呪文(그림 18)

이 주문은 2장으로 포개져 있으며, 크기는 가로 50.5cm, 세로 71.5cm이다. 우측 상단과 하단에 구멍이 나 있으며, 한 판에 3장을 반복해 놓았다.

(2) 喉鈴筒(그림 19, 20, 21, 22, 23, 24)

喉鈴筒은 노란 보자기(黃綃幅子)에 싸여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五寶瓶, 五穀, 五寶, 五藥, 五香, 五黃, 五芥子, 五時花 등 실질적인 腹藏物이 들어있는 통을 말한다. 이 통은 造像經에 ‘팔엽개를 갖춘 뚜껑의 중앙에 후혈을 통하게 하고 통의 크기는 오병이 들어갈 정도로 만든다. 塑像에는 圓筒(둥근 통)을 쓰고 탕화에는 方筒(네모진 통)을 사용한다. 통 밖의 사면에는 四方呪를 써서 사방을 표현한다. 통의 덮개는 방위에 따라 眞心種子를 쓰되 조심하여 방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造像經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불상의 喉鈴筒 모양은 원통이며 탕화의 喉鈴筒 모양은 네모진 통이다.

그런데 서산사 복장물은 약초만 한지에 감싸여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흩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은 喉鈴筒과 그 안에 있었을 五寶瓶이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발원문 (1-1)의 내용에 의하면 이 보살상은 1926년 4월 1일에 개금하였으며, 기문(3-1)에 의하면 1939년 8월 9일 다시 개금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개금을 할 때에 腹藏物을 보고 있었으므로 아마도 그 때부터 喉鈴筒을 비

릇한 여러 가지 腹藏物들이 삭아서 없어져 그대로 방치하여 왔던 것이 아닌가 한다.

현재 남아 있는 腹藏物은 다음과 같다.

舍利 3과: 대 1cm, 중 0.7cm, 소 0.5cm

五方鏡 2개: 반원형 지름 3.5cm, 사각형 가로 3cm, 세로 2.7cm

팔엽대홍련 1개: 지름 6.2cm

백옥제 寶塔: 높이 4.2cm

琥珀 6개: 대 지름 2.1cm, 중 지름 1.6cm, 소 지름 0.9cm

水晶 2개: 길이 1.7cm, 지름 1cm

약초 봉지 13개: 梧桐, 眞珠, 木香, 甘草, 人蔘, 附子, 結?, 黃介, ?香, 粗, 稷, 人蔘須氣黃, 小黃 등

지금까지 알려진 腹藏物로 喉鈴筒이 발견된 일부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13 喉鈴筒 발견사례

소장처	불보상명칭	연대	크기(cm)	비고
온양민속박물관	·	1302년	높이:4.4, 지름:6.4	
대구 백종흠	청동천수관음좌상	1322년	높이:6.7, 지름:5.5	
청양장곡사 하대웅전	금동아미타여래	1346년	높이:6.5, 지름:9.0	
서산 문수사	금동아미타여래	1346년	높이:7.0, 지름:6.0	
광주 자운사	목조여래좌상	1388년	높이:17.2, 지름:11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	1466년	크기 알 수 없음	
<u>제주 서산사</u>	<u>목조보살좌상</u>	<u>1534년</u>	<u>크기 알 수 없음</u>	
홍성 고산사	목조여래좌상	1543년	높이:5.0, 지름:6.5	
완도 관음사	목조보살좌상	1569년	높이:7.1, 지름:4.4	
부여 무량사	소조아미타여래좌상	1633년	높이:15.0, 지름:6.5	
동국대학교박물관	목아미타삼존불감	1637년	높이:4.7, 지름:2.1	
완주 송광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좌상	1640년	높이:10.4, 지름:4.8	
완주 송광사 극락전	소조삼신불좌상	1641년	높이:32.8, 지름:13.5	
광양 상백운암	목조아미타삼존불감	1644년	높이:5.0, 지름:2.0	
<u>제주 월계사</u>	<u>목조보살좌상</u>	<u>1661년</u>	·	

제주 삼광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671년	황색 비단에 싸여 있어 내용물 및 크기를 확인하지 못함	동일 조각승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상	1671년		
영광 불갑사	목조시왕상	1654년	높이:10.7, 지름:4.5	
광양 무등암	목조대세지보살좌상	1678년	높이:10.5, 지름:3.1	
강진 옥련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684년	높이:8.6, 지름:2.4	
화순 쌍봉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94년	높이:8.8, 지름:3.6	
화순 쌍봉사 명부전	목조시왕상	1694년	높이:10.0, 지름:3.2	
전주 삼경사	목조여래좌상	17세기	높이:8.2, 지름:3.9	
제주 하도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700?	높이:7.0, 지름:2.3	
제주 서귀포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1702년	황색 비단에 싸여 있어 내용물 및 크기를 확인하지 못함	
별교 용연사	석조구류손보살좌상	1702년	높이:5.5, 지름: 2.8	
영광 불갑사	목조나한상	1706년	높이:10.4, 지름:3.8	
전주 삼경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708년	높이:9.0, 지름:3.2	
고흥 봉래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1708년	높이:10, 지름:2.4	
순천 선암사	목조비로자나불좌상	1736년	높이:8.6, 지름:4.6	
온양민속박물관	목조대세지보살좌상	1788년	높이:6.5, 지름:4.5	

2)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소재 太古宗 月溪寺에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은 어떤 연유로 현재 이곳에 봉안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 불상의 원래 봉안처인 白羊山의 藥師菴은 白羊寺의 부속 암자로 1932년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린 藥師菴 귀중품 목록에는 1척 6촌(48.5cm)의 약사여래불과 좌우보처의 삼존불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원래의 阿彌陀三尊佛像은 당시에 이미 白羊寺 등 외부로 반출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기문류

① 발원문(그림 36, 37)

月溪寺 木造阿彌陀佛坐像 腹藏發願文은 白色楮紙에 墨書로 기록되어 있으며
완형이 잘 남아 있다.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55.8cm, 세로가 84.7cm이며, 황으
로 쓰여 있다.

發願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時維

願文

順治十八年歲次辛丑孟秋日鴨城白羊山藥師菴新造像佛兼畫佛既已畢功安於寶座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奉爲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干戈息靜國民安 天下太平法輪轉 道內監兵壽命長 城主兩位厄消除 四事施主增
福壽十方施主厄消滅

施主秩

主佛大施主貴介兩主

鄭訥(叱)山兩主

申戒宗兩主

補處施主金哲伊兩主

梁厚承兩主

莫介兩主

補處施主金士立兩主

裴正儀兩主

玄羅云兩主

休木施主金夢得單身

李珏兩主

金大得兩主

供養大施主金以信兩主

李之翰兩主

李男兩主

施主敬禮兩主

徐以生兩主

李貴善兩主

波湯施主閔花兩主

徐夢善兩主

於正兩主

施主思郎春兩主

董慶成兩主

思遠比丘

施主孫厚臚兩主

懶熏比丘

施主金天福兩主

金夏日兩主

施主朴命山兩主

玉今兩主

施主應禮兩主

德進兩主

施主崔一男兩主	金永立兩主
施主金早(ㄱ)金兩主	金加外金兩主
施主玉進單身	黃今福兩主
施主李明信兩主	徐天泉兩主
施主李鶴只兩主	者斤介兩主
施主孫生伊兩主	劉壽萬兩主
施主義哲比丘	白秋光兩主
施主玄無金兩主	儀云比丘
施主宋仲一兩主	金順燁兩主
施主金一男兩主	李天老兩主
施主朴士永兩主	沈浩澤兩主
施主朴芑金兩主	余自銀兩主
施主一禮兩主	玉今兩主
施主延春兩主	朴四信兩主
施主金命吉兩主	趙得仁兩主
施主梁應立兩主	李信吉兩主
施主徐永立兩主	戒春兩主
施主金慶建兩主	金俊石兩主
施主朴春福兩主	愛香兩主
施主吳善生兩主	崔信元兩主
施主朴生伊兩主	崔敬伊兩主
施主柳成立兩主	朴時暉兩主
施主鄭弼兩主	尹戒云兩主
施主孫厚宗兩主	徐戒察兩主

本寺

住持 自璿

持寺 覺軒

三綱 敬如

緣化秩

證明 天敏

持殿 靈珠

畫員 雲惠

尙全

來往 性元

供養主 得文

別座 法明

幹善道人 崇信

불상의 내부 복장에서 나온 白紙墨書의 발원문에는 제작시기와 봉안처 그리고 彫刻僧의 이름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順治十八年歲次辛丑(1661)년에 鴨城白羊山藥師菴에서 造像하였으며 彫刻僧은 雲惠와 尙全이라고 나와 있다.

불상의 내부 복장에서 나온 白紙墨書의 발원문에는 봉안처도 기록되어 있는데 ‘鴨城白羊山藥師菴新造像佛兼畫佛’이라 하여 불상과 불화를 조성하여 鴨城白羊寺의 藥師菴에 봉안하였다고 되어 있다. 白羊山은 현재 白羊寺가 위치한 白巖山으로 추정되는데 백암산내에 藥師菴이 있다.

白羊寺는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암산에 있는 사찰이다. 鄭道傳(1337-1398)이 白巖山淨土寺橋樓記의 일부 내용을 보면, ‘오직 이 산은 장성군 북쪽 30리에 있는데 그 이름을 白巖이라 하였으며 암석이 모두 흰 색깔이라서 그렇게 이름 하였다’ 한다. 白巖山 석벽은 깎아지른 듯 험하고 산봉우리는 중첩하여 맑고 기이하며 웅장한 모습이 실로 이 지역의 명승지가 될 만하므로 신라 때의 어떤 異僧이 처음으로 절을 짓고 살았다고 하기도 하고 백제 무왕 때 세워졌다고 전하기도 한다. 본래 이름은 백암사였고, 1034년 중연선사가 크게 중창 보수한 뒤 정토사로 불려졌다.

藥師菴은 白羊寺 뒤 백학봉 아래에 있는데 현재 석조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있다. 藥師菴과 白羊寺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어 두 절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조선 선조 때 환양선사가 영천암에서 금강경을 설법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물려들었다고 한다. 범회가 3일째 되는 날 하얀 양이 내려와 스님의 설법을 들었고 7일간 계속되는 범회가 끝난 날 밤 스님의 꿈에 흰 양이 나타나 ‘나는 천상에서 죄를 짓고 양으로 변했는데 이제 스님의 설법을 듣고 다시 환생하여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고 절을 하였다 한다. 이튿날 영천암 아래에 흰 양이 죽어 있었으며 그 이후 절 이름을 白羊寺라고 고쳐 불렀다.

다른 하나는 어느 날 팔영선사가 藥師菴에서 불경을 읽고 있던 중 백학봉에서 양 한 마리가 내려와 범화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돌아갔는데 이런 인연으로 ‘淨土寺’에서 ‘白羊寺’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발원문의 鴨城은 ‘장성’의 별칭으로 추정되나 여타 지리서나 역사서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2) 喉鈴筒(그림 38, 39)

불상 하부에 마련된 장방형의 복장공 안에서는 불상 발원문을 비롯하여 黃綃幅子에 싸인 喉鈴筒과 圓覺經, 주사로 적은 두 종류의 陀羅尼 腹藏物 목록과 오보경, 五方鏡, 수정 등이 발견되었다.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1) 기문류

① 발원문(그림 53, 54)

이 발원문은 韓紙에 墨書되어 있으며, 크기는 가로 80cm, 세로 20.5cm이고, 횡서로 썩여 있으며 자경은 1.8cm다. 모두 8겹으로 접어져 있고 전후면에 글씨가 쓰여 있다. 이 조상기문은 조성 연대, 불보상 명칭, 봉안처, 造像 動機, 施主秩, 山中秩, 畫員, 緣化秩 순으로 쓰여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時維

康熙十年辛亥五月日白羊山

阿彌陀佛觀音勢至三位畢功

安于清心臺

願以此功德 我等與衆生

普及於一切 皆共成佛道

發願以故命禮三寶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

施主秩

佛像供養兼大施主金慶生 兩主

烏金大施主車得祥 兩主

山中秩

施主准眼比丘

施主朴永龍 兩主

施主愛節 兩主

尹起敏 兩主

元惠比丘

朴貴福 兩主

梁尹伊 兩主

朴山伊 兩主

朴士日 兩主

金愛生 兩主

金斗煥 兩主

金於起重 兩主

永代 單身

朴厚重 兩主

金戒生 兩主

大禪士善河 比丘

大德贊有 比丘

大士 雷建 比丘

一圭(?) 比丘

義均 比丘

惠能 比丘

住持 自禪 比丘

持寺戒英 比丘

三綱懶訓 比丘

證明惠還 比丘

持殿双衍 比丘

畫員

應慧 比丘

覺軒 比丘	戒贊 比丘
朱莫山 兩主	緣化秩
隱日 單身	供養主 坦祐比丘
冬節 單身	明善比丘
	往來 就彬 比丘
	別座 戒行 比丘
	化土 海澄 比丘
	冶匠居士金自明

2-4행은 ‘康熙十年辛亥五月日白羊山/阿彌陀佛觀音勢至三位畢功/安于清心臺’로 이 像의 조성 연대, 불보살상 명칭, 봉안처 등을 알려 주고 있다. 즉 강희 10년(1671년, 조선 현종 12) 신해 5월에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3위를 조성하여 백양산 청심대에 봉안하였다.

白羊山은 전남 장성군에 있는 산으로 일명 白巖山¹¹⁴⁾이라고도 하였다. 白羊山은 逍遙太能(1562-1649)이 13세 때 白羊山에 놀러갔다가 物外庵의 선경을 보고 느낀바 출가하였고¹¹⁵⁾, 蓮潭有一이 1745년 봄 白羊山 물외암에서 10일간의 불공을 수행하였으며¹¹⁶⁾, 涵溟台現(1844-1902)이 14세 때인 1851년에 장성 白羊山으로 출가한 사료¹¹⁷⁾에서 볼 때 장성에 있는 淨土寺 오늘날 白羊寺가 있는 산을 가리키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 불상을 봉안하였던 清心臺 즉 清心庵은 백양산에 있다고 하였는데 현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白羊寺에는 雲門庵, 清流庵, 藥師庵, 物外庵, 靈泉庵, 天真庵, 西陽庵, 金剛庵 등 8암자¹¹⁸⁾가 있었다고 하는데 6·25 한국전쟁 중

114) 新增東國輿地勝覽 長城縣 山川條 白巖山 현 동쪽 30리에 있다.

輿地圖書(1760년) 長城府 山川條 白巖山 在府北四十里自井邑內藏山來

(이렇게 치소에서 방향과 거리가 다른 것은 1655년(효종 6)에 정유재란 후로 장성과 珍原이 합하여 장성부가 되어 치소를 金鰲山 밑에서 聖子山 밑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115) 梵海撰·金命世譯. 東師列傳. 逍遙宗師. p. 164.

116) 蓮潭大師自譜行業 蓮潭大師林下錄 卷四. 韓國佛教全書 제10책. pp. 283-286.

…乙丑春修十日佛供於白羊山物外庵…

117) 東師列傳. 涵溟講侶. p. 447.(…十四出家於長城白羊山…)

에 모두 불에 타버리고 없어졌지만 그 후에 대부분 복원되었다. 8암자에 妙蓮庵, 白蓮庵, 地藏庵, 淸涼院 등을 더하여 백양사 12암자라고도 하는데 묘련암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고 나머지 3암은 복원되었다고 한다¹¹⁹⁾. 이처럼 12암자에도 청심대는 등장하지 않아 발원문에 등장한 청심대는 白羊寺와 관련없는 백양산 내에 위치한 단독의 암자로만 추정된다.

6-11행은 이 像을 조성한 동기이다. ‘원컨대 이 공덕이 일체에 널리 미쳐서 우리들과 못 이웃들 모두가 불도를 이루어지이다.’는 발원을 살펴보면 이 불상을 조성한 공덕으로 모든 스님들과 중생들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바라고 삼보에 귀의하기를 빌며 왕실의 수복과 안녕을 발원하고 있다. 다른 불상들의 발원동기와 다른 점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발원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시주질 21명, 산중질 11명, 화원 2명, 연화질 6명 등 모두 40명의 인명이 등장하고 있다. 산중질과 연화질을 합하면 17명인데 실제로 이들이 청심대에서 활동하였던 스님들이다. 숫자적으로 볼 때 당시 다른 사찰의 규모와 비교되며,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청심대는 작은 규모의 암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원문에 보인 인명 가운데 화원을 제외하고 다른 자료에 보이는 인명은 다음과 같은 스님이 있다.

시주자 가운데 元惠比丘가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원혜의 자료는 1652년에 深源寺에 세워진 취운당대사비¹²⁰⁾의 비음 本寺流에 前住持元惠가 있고, 1657년에 조성된 함양 法印寺 목조아미타불좌상의 腹藏發願文 大施主秩에 나온다.

시주자 覺軒 비구는 逍遙太能의 법을 이어받은 松筠克敏의 문인으로 법명은

118) 朝鮮寺刹一覽表. pp. 80-82.

119) 이계표. 白羊寺의 역사. 불교문화연구 제6집. 南道佛教文化研究會. p. 30.

120) 한국학문헌연구소편. 楡岾寺本末寺誌. 深源寺 寶蓋山深源寺翠雲堂大師碑銘并序. pp. 663-635.

취운당은 비문에 의하면 성은 孫氏이며 강화인이고 이름이 學璘이며 호는 翠雲이다. 1575년 12월 9일에 출생하였으며 15세에 印淨에게 출가하였고 西山의 若弟子인 淸蓮에게서 10여 년간 수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竺修窟에서 9년간 면벽 수행하였고, 雲達山에서 5년간 수행하였다. 그 후 명산을 편력하다가 寶蓋山에 들어가 16년 머무르다가 1650년 9월 9일에 입적하였다. 제자 性元 등이 奉骨 수편을 정성껏 씻어 舍利를 찾아 高弟 印祐와 동지들이 협력하여 浮屠를 1650년 11월 8일 심원사에 세웠다. 비문은 통정대부홍문교리 鄭斗卿이 짓고 산중명필 廣惠가 써서 1652년 심원사에 세웠다. 그의 제자는 法惠, 六行, 惠珪, 雲玄 등 40여 인이다.

晦跡이며, 도반으로 寒谷性玄, 松梅法熙 등이 있다.¹²¹⁾ 각현은 제주시 月溪寺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발원문¹²²⁾에 의하면 白羊山 藥師庵의 持寺직을 1661년에 맡고 있었다. 藥師庵은 白羊寺의 8암자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므로 각현은 17세기 중엽 경에 백양산에 있었던 藥師庵과 청심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전라도 스님으로 파악된다.

1671년 당시 淸心臺에 주석하고 있었던 대선사 善河는 逍遙太能¹²³⁾의 제자¹²⁴⁾로서 법명이 影月이며, 태능의문인이었던 선암사 승려 침굉현변¹²⁵⁾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던 스님이다. 善河에 대한 또 다른 자료 하나가 여수 흥국사 무사전 지장보살상 등의 발원문에 畫員 印均 尙儀(尙僅) 慈敬 靈侃 智玄 善河 淳玉 淳一 淸學 明淡 德軒 頂峰 등으로 나오는데 인균은 17세기 중엽에 활동하였던 유명한 조각가였으며, 善河는 인균을 수장으로 하는 인균파의 조각가 가운데 1인이다. 조각가 善河와 대선사 善河를 동일인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이인으로 보아야 할지 단정할 수 없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점으로 보아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善河 스님에 대한 행장은 현재 찾을 수 없어 그가 조각승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 다만 善河보다 후대에 활동하였던 雪岩秋鵬의 행적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121) 海東佛祖源流.

122) 송은석. (2007).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p. 469-470.

順治十八年歲次辛丑孟秋日鴨城白羊山藥師庵新造像佛…本寺 住持 自璿 持寺 覺軒 三綱 敬如…畫員 雲惠 尙全…

김창화. (2008). 제주불교문화재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123) 太能(1562-1649)은 성이 오씨이며, 전남 담양 출신으로 逍遙는 그의 호다. 1574년 13세에 장성 白羊寺에서 眞에게 출가하였다. 浮休善修에게 대장경을 배워 선수 휘하의 수 백 명 제자 가운데 耘谷冲微, 宋月應祥과 함께 법문삼걸이라 불렸다. 다시 묘향산 淸虛休靜의 문하에 들어가 20년 동안 공부하고 법을 받았다. 임란 때에 전투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1601년부터 금강산, 오대산, 구월산 등에 머물면서 교화를 펼쳤고 만년에 지리산의 연곡사에 머물며 교화하다가 입적하였다. 효종이 慧鑑禪師라 시호했다. 휴정의 제자 중에서 그는 鞭羊彦機와 함께 선의 양대 고승으로 추앙되었으며, 그를 따랐던 수백 명의 문하가 일파를 이루어 소요파라고 불렸다. 문하의 枕肱懸辯은 그의 선을, 海運敬悅은 그의 교를 각각 이었고, 傳法제자만도 30여 명에 이른다.(東師列傳, 海東佛祖源流)

124) 韓國學文獻研究所編. (1983). 金山寺誌 逍遙堂大師碑銘. 亞細亞文化社 p. 189.

125) 枕肱懸辯(1616~1684), 성은 윤씨이며 나주인으로 어머니는 최씨이고, 자는 而訥이다. 9세 때에 天風山의 處愚에게 출가하였고 뒤에 방장산 太能의 법을 이어받고 선암사의 주지가 되었다. 송광사, 연곡사 등 호남의 큰 절에 두루 머물고, 만년에 금화산 정광사에 있다가 입적하였다. 저술로 침굉집이 있다. (海東佛祖源流)

雪岩秋鵬은 1651년에 평남 강동에서 태어나 원주 法興寺의 宗眼에게 출가하였으며, 묘향산 보현사 月渚道安에게서 10여 년 동안 공부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그는 선과 교 양종에 통달하고 시문을 잘했으며, 해남 대둔사 13대 종사 가운데 5대종사로 추앙받았다. 이와 같은 큰 선승이 宗匠으로 활동하였다는 문헌과 그 조각작품이 남아 있다. 秋鵬의 스승이었던 道安은 그를 ‘西山의 嫡派요 유명한 宗匠¹²⁶⁾’이라 하였으며, 실제로 秋鵬의 조각 작품이 현존하고 있다. 秋鵬은 17세기말부터 18세기 초엽에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色難이란 巨匠과 함께 활동(1693년 구례 천은사 응진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 1694년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 1698년 해남 성도암 나한상(제주 觀音寺 봉안), 1700년 해남 성도암 나한상(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영암 축성암 소장)하였으며 단독작품으로 구례 화엄사 각황전 관음상(1703년)을 조각하였다.¹²⁷⁾

대둔사 4대종사인 道安의 제자 秋鵬이 이처럼 대선사로 활약하면서도 彫刻僧으로 활동하여 여러 작품을 남기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선사 善河 역시 秋鵬처럼 큰 스님으로 활약하면서 조각도 병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¹²⁸⁾

大師 義均에 관한 자료는 1636년에 구례 화엄사의 중건이 완료되면서 山中大德으로 나오며, 1641년에 조성된 완주 송광사 불상(보물 제1274호)의 발원문에 등장한다. 이들이 동일인이라면 의균은 17세기 중엽에 화엄사, 완주 송광사, 白羊寺 등지에서 활동하였던 스님으로 추정된다. 大師 惠能은 군산 동국사 법당의 본존불 발원문 시주질에 등장한다. 동국사 삼존불은 김제 금산사에서 이운된 불상으로 최근에 그 腹藏物이 공개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불상은 順治 七年(1650)에 畫員 應梅 寬海 天明 性律 魯元 思俊 雷忍 등이 조성하였다.

持寺 戒英은 1657년에 작성된 함양 法印寺 목조아미타불좌상 腹藏發願文¹²⁹⁾

126) 道安. 月渚堂集. 西山嫡派名宗匠(白谷集 外. (1994). 한글대장경 동국역경원. p. 492)

127) 최선일. (2007). 朝鮮後期僧匠 人名辭典. 도서출판 양사재. p. 183.

128) 吳珍熙. (2006). 彫刻僧 色難派와 華嚴寺 覺皇殿 七尊佛像. 講座 美術史 26-1집.

129) 송은석. (2007). 17세기 朝鮮王朝의 彫刻僧과 佛像.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p. 514-516.

시주질 명단에 등장하며, 1686년에 기록된 金剛山百川橋重創記¹³⁰⁾에 助役의 일원으로 나오고, 1683년에 조성된 곡성 도림사 掛佛幀¹³¹⁾의 三綱 靈悟比丘 明善比丘 戒英比丘로 나온다. 別座 戒行 역시 위의 앞 두 기록에 등장하고 있다.

證明 惠還 比丘는 1678년에 세워진 松廣寺 事蹟碑¹³²⁾의 배면에 시주자로 등장한 점으로 보아 전남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큰 스님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 공양주 坦祐와 明善도 간략하게나마 다른 기록에 보이고 있는데, 明善은 持寺 戒英과 함께 곡성 道林寺 掛佛幀을 조성할 때 三綱으로 참여하였고, 1663년에 세워진 화엄사 碧巖國一都大禪師碑의 陰記에 등장한다.

別座 戒行은 1657년에 조성된 함양 法印寺 목조아미타불좌상 腹藏發願文의 대시주질에 나오며, 1686년에 기록된 金剛山百川橋重創記의 본사질에 나와 당시 유점사에 주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1690년에 조성된 홍성 龍鳳寺 掛佛의 화기 本寺秩에 나온다.

화사 海澄은 1654년에 조성된 고창 文殊寺 평등대왕상 복장발원문¹³³⁾의 大德秩 다음에 海澄比丘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문주사에 주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진언문(그림 55)

보살상의 밑면에 있는 복장판 안에는 진언문이 몽치로 가득 차 있었는데 7몽치였으며, 대략 50여장이었다. 크기는 가로 45.7cm, 세로 18.5cm이며 全身舍利寶齒眞言 등의 제목 없이 횡서로 19행의 朱書된 범어만 가득하다.

이 진언문은 寶篋印陀羅尼經 혹은 寶篋印心呪經(보협인심주경)이라고도 하

130) 韓國學文獻研究所編. (1997). 金剛大本山 楡岾寺本末寺誌, 亞細亞文化社刊. pp. 72-74.

13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掛佛 - 調査報告書Ⅱ.

132)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6). 한국의 사찰문화재-광주광역시·전라남도 I·II·III자료집. p. 223.

133)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3). 한국의 사찰문화재 - 전라북도/제주도 자료집. p. 125.

송은석. 앞의 논문. pp. 516-517.

며 具名으로는 一切心如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며 唐의 不空譯이다. 그 내용은 40구로 된 寶篋印陀羅尼의 공덕을 설하고 있으며, 이呪를 誦讀하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극락에 가게 되고, 병자는 쾌유하여 수명을 연장하게 하고, 빈궁한 사람은 무량의 복덕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¹³⁴⁾

(2) 喉鈴筒(그림 51, 52)

喉鈴筒은 황색 비단인 黃綃幅子에 싸여 있다. 이 黃綃幅子의 표면에 ‘封’자와 ‘南’자를 朱書하였다. 喉鈴筒을 감싸고 있는 노란 보자기인 黃綃幅子의 매듭이 너무 단단히 조여 있어 풀 수가 없어 喉鈴筒의 내용물은 조사할 수 없었다. 喉鈴筒은 청동제의 원통형으로 추정된다.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지금 현재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복장공이 막음질되어 있어서 腹藏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목조관음보살좌상에 관한 기록은 觀音尊影佛施主改金과 世音菩薩改金願文이 있다.¹³⁵⁾ 이런 기록을 통한 조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世音菩薩改金願文>

月照長空에 影落千江之水호고 佛現娑婆에 智投萬物之機호시나 今此 濟州道는 淸康熙四十一年 壬午에 牧使 李衡祥이 毀佛寺 廢僧尼호 以後 百九十年 以來 淸光緒二十七年 辛丑은 距今 二十五年前 本島 禾北里 乙丑生 安氏 信女는 願地有種의 忽生其芽호야 佛日을 挽回나 踰踰乏弱에 百障이 多端으로 經過多年에 投削髮於 海南郡 大興寺 有藏老尼호야 入島誓願인 바 信師 己卯生 安氏는 嶺南 山淸人으로 寅緣이 際會호야 偶然 入島호니

134) 조명기. (1962). 寶篋印陀羅尼經. 考古美術 3卷 6號.

135)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에서 재인용.

卽 癸丑 早春也라. 同志 盡力하야 安氏로 安其寺於 漢拏山中 腰하야 奉安 觀音佛像하고 以祝安島之全力하니 其功이 安在오 自此로 雨以時하고 風以 調하야 安島民樂함을 以何 明智로 安知卒然□德가 余自金剛山 乾鳳寺로 四年前 辛酉 冬에 拜探喚酷志安老師 入寂 三兆之異顯勝處以來 昨年 甲子 十月 十五日 三重入島라가 本島 五萬戶 二十萬人衆에 但深山單寺난 現今時局에 風潮所愧라. 城市에 佛氏聖化를 廣布宣傳이 爲可宜키로 寺衆 官民當地人士에 合意的 組織 濟州佛教協會하야 全 十一月 二十五日에 第一期總會를 觀德亭에 開設하니 佛佛之言이 老幼口登이라. 城內二徒里 一千三百六十二番地에 濟州佛教布教所를 乙丑 四月 佛誕日에 落成하야 假 安釋迦尊相타가 全 八月 二十四日에 海南郡 大興寺로서 觀音尊像을 入島 奉安하니 二百二十七年前 改金헌 文徵이 現矣라. 今日 緣會에 拘衣新金하야 今 九月 二十四日 起始로 十月 初一日 點眼하니 蓮龕這裏에 儼然 光相이 爲誰而安此焉이신고 有願誠祝하시난 全島 人士에 皆應必遂之無上大福田歟인저.

世尊應化 二千九百五十二年 乙丑 陰十月初一日¹³⁶⁾

金剛山 衲晦明 日升

漢拏山 息利化 漢秀

緣化所

증명 비구 회명일승

회주 비구 이화한수

송주 비구 금해守日

지전 비구 윤개정옥

종두 사미 한일

봉다 사미 용준

시자 사미 의술

별좌 비구니 봉려관

도감 비구 도월정조

136) 世尊應化 二千九百五十二年 乙丑 陰十月初一日는 1925년이다.

공사 비구니 경우

화주 비구니 경화

대중 신사 오일화 신사 장불신 신사 강영봉 신녀 강정선화 신녀 남정진각
신녀 김계생 신녀 김심안 신녀 강혜법 신녀 문임화

대본산 대홍사

주지 비구 취운혜오

감무 비구 선월

법무 비구 태환

감사 비구 원담

제주불교협회

회장 비구 이회명

부회장 신사 김태민

홍무 신사 양흥기

평의장 조익현

평의원 송석돈 외 8인

찬성부장 이윤희

찬성부간사 오중현 외 23인

서무부장 문재창 서무부간사 김형탁 외 3인

포교부장 안도월 포교부간사 오이화 외 3인

성도부장 차승옥 성도부간사 고영하 외 1인

구제부장 봉려관 구제부간사 신봉래선 외 3인

교육부장 강태현 교육부간사 양창보 외 1인

고문 전전선차 외 8인

포교사 비구 회명 일승

사회장 홍종시

大施主秩

대본산 대홍사중 일동

신사 임인생 송택훈 신녀 을묘생 김대명화 신녀 일사생 김응해

신녀 계사생 방수선 신사 무오생 박성훈 신사 갑오생 현종식

비구 진하승자

신녀 병신생 한광명 신사 무오생 김만수 신사 무오생 김용구 신녀 계미생 홍묘련화

신사 무신생 신재남 동자 을축생 고희준 신녀 기해생 안만옥 동녀 계해생 전옥순

신녀 병신생 김정안 신사 기해생 김해색 신녀 을미생 신평숙 동자 경신생 송택목

비구니 경우

신사 갑오생 양흥기 신녀 경오생 김청련화 신사 계미생 이봉훈 신녀 정해생 정□비

신녀 경자생 현목련 신녀 임진생 김명화 신사 을사생 오윤행 신녀 기해생 오선화

신사 경오생 차승옥 신녀 정묘생 윤덕하 신사 갑진생 차윤홍 신녀 기해생 차정숙

신사 기묘생 고영하 동자 갑인생 고윤학 동자 경신생 고윤탁 동자 경신생 이태구

동자 무오생 백영휴

경성부 수송동 완옥궁

상궁청신녀 을사생 정씨 보살행

제주불교협회 회원 일동 일천칠백팔십삼인

급다소결연동참신도일동 일백육십오인

신녀 경오생 고정자

제주도 성내 이도리

제주불교포교소

조선 제주도 성내

제주불교협회

-출처: 제주관음사-

우선 觀音尊影佛施主改金の 기록은 불상 개금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 그 중에 ‘康熙三十七年戊寅九月二十二日點眼 靈岩郡成道菴改金 海南郡大興寺南菴奉安’과 같은 내용이 있어 불상 개금연대가 1698년임을 알 수 있다.¹³⁷⁾

觀世音菩薩改金願文은 이 보살좌상이 제주도로 이운하여 봉안한 내역을 적고 있다. ‘乙丑八月二十四日에 海南郡大興寺로서 觀音尊像을 入島奉安하니 二百二十七年前改金한 文徵이 現矣’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자의 자료가 발견됨을 밝히고 있고 이로써 후자의 개금원문이 1925년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觀音寺 목조관음보살상의 처음 봉안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觀音尊影佛施主改金の 기록은 불상 개금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어서 개금 장소와 개금 후 봉안처를 알 수 있다. ‘康熙三十七年戊寅九月二十二日點眼 靈岩郡成道菴改金 海南郡大興寺南菴奉安’에서 1698년 영암군 成道菴에서 色難 등이 개금을 하고 해남군 대흥사 남암에 봉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대흥사 남암지에는 고려시대 조성한 8m의 거대한 마애불입상이 남아 있다.¹³⁸⁾

또한 觀世音菩薩改金願文에는 이 보살좌상이 제주도로 이운하여 봉안한 내역을 적고 있다. ‘乙丑八月二十四日에 海南郡大興寺로서 觀音尊像을 入島奉安하니 二百二十七年前改金한 文徵이 現矣’라는 내용이 있는데 전자의 자료가 발견됨을 밝히고 있고 이로써 후자의 개금원문이 1925년에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을 개금한 영암군 성도암은 大屯寺志에 ‘임해령 바깥 3리에 있으며 석벽에 쇠줄로 사다리를 놓았다. 항상 선객 5, 6인이 살며 소나무 잎을 먹고 지낸다’라고 언급되어 있다.¹³⁹⁾ 그리고 梵海의 東師列傳 서문에는 ‘成道菴은 頭輪山 남쪽 외산에 있다’라고 적어놓으며, 범해가 머물렀던 암자라고 적혀 있다. 이 成道菴의 위치는 조선 후기 제작된 全羅左道靈岩郡梨津鎭地圖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지도에는 成道菴을 두륜산 옆 주봉 밑에 그렸는데, 梨津鎭에서 15리 떨어진 것으로 표기하였다. 강진 도암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137) 최선일. (2006). 조선 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102

138) 문화재청. (2006).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남도.

139) 대둔사지간행위원회·강진문헌연구회. (1997). 大屯寺志.

大屯寺志에는 成道庵(在海臨嶺外三里許 石壁斗絶以鐵索爲梯 常有禪客五六人 食松葉留住焉)이다. 이 사적기는 근래 대둔사에서 한역되었다. 최선일. (2000). 조선후기 전라도 彫刻僧 色難과 그 계보. 미술사연구 제14호 별책 p 47 재인용.

면 해남 남창이 나오는데, 成道菴은 바로 남창 가기 전에 위치한 곳이라 여겨진다.¹⁴⁰⁾

이 불상을 개금 후 봉안했던 대흥사는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에 위치하고 있다. 대흥사의 창건연기를 전하고 있는 자료로는 竹米紀, 挽日菴古記, 北菴記 등이 있으며 1823년 간행된 大菴寺志는 이들 자료를 종합한 내용과 함께 이때까지의 사찰 역사를 총정리한 책이다.

대흥사 창건에 대하여 挽日菴古記에서는 426년(백제 구이신왕 7년) 신라 淨觀尊者가 창립하였다는 설이 있으며 정관스님이 대흥사 산내 암자의 하나인 만일암을 창건하고 508년(무령왕 8년)에 선행비구가 중건하였다고도 한다. 또 竹米紀에는 544년(신라 진흥왕 5년) 아도화상의 창건설을 전하며 자장 스님과 도선 스님이 계속하여 중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웅진전 앞에 세워져 있는 삼층석탑의 제작 연대가 통일 신라 말기 경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늦어도 대흥사는 통일신라 말기 이전에 창건된 고찰로 보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는 근대 이전에 대둔사와 대흥사로 불리었다가 근대 이후 대흥사로 정착되었다. 해남 두륜산을 배경으로 자리한 대흥사는 임진왜란 이후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해지면서 조선 불교의 중심도량이 되었다. 풍담 스님으로부터 초의 스님까지 13대종사가 배출되었으며, 만화 스님으로부터 범해 스님에 이르기까지 13대강사가 배출되었다.

이 불상은 1698년 이전에 제작되어 1698년 영암군 成道菴에서 色難 등이 개금하여 해남군 대흥사 남암에 봉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1908년 제주 觀音寺를 창건한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1925년에 제주도 제주불교포교당으로 이운하였던 것이다. 당시 제주 觀音寺가 대흥사 말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운이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5)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 기문류

140) 최선일, (2000). 조선후기 전라도 彫刻僧 色難과 그 계보, 미술사연구 제14호 별책, pp. 47-48.

① 발원문(그림 74, 75)

이 발원문은 1장이며, 윗부분만 좀이 먹어서 약간 훼손되었을 뿐 완형으로 잘 남아 있다. 크기는 가로 49cm, 세로 34cm이며, 세로 24행이고, 각 행의 간격은 1.8~2cm 정도이다.

發願文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靈山教主釋迦牟尼佛前謹獻發願文

稽首歸依釋迦佛	自從多劫至于今
及諸十方諸如來	隨身口意十不善
哀憫攝受長齊運	使效鷲子營寶殿
願垂悲智滅作罪	竊慕闍王成粹儀
承斯妙利功德製	先亡祖考生淨邦
賴此良緣命福亨	現存眷屬俱安樂
無明煩惱所迷惑	六根清淨得神通
願不心與相續起	四智圓明獲菩提
邪魔惡神並災厄	身心平妥動靜間
如許罪垢悉皆消	居住安康坐臥中
一切有願畢圓滿	報年臨欲命終時
多般所欲盡成就	願造之佛來接引
直往西方見彌陀	使得文殊多種智
獲夢摩頂授記蒞	常行普賢大萬行
天衣拂石雖磨盡	惟願諸佛作訂明
我願深深不可窮	緣垂洞鑑三寶禮

緣化秩

證師道性

佛遵守悟

大施主嘉善大夫性還比丘伏爲

亡父通政大夫李武生

亡母安氏景德

兩主

畫員進悅

供養主明學

別座懷俊

化主居士德澄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고
 시방의 모든 여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합니다.
 옛날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신구의 때문에 열 가지 선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아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섭수하시어 길이 행운이 깃들게 하시고
 원컨대 지혜를 북돋아서 이제까지 지은 죄를 멸하게 하소서
 까마귀를 본받아 보전을 경영케 하시고
 간절히 진왕을 사모하면서 졸의를 이루도록 하소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공덕을 짓게 하여
 이처럼 좋은 인연을 힘입어 명과 복이 형통하게 하시고
 먼저 돌아가신 조상님께서서 정도에 왕생하게 하옵시며
 살아있는 권속들을 모두 안락하게 하소서
 무명 번뇌의 미혹한 마를
 원컨대 마음에서 상속하여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육근은 청정하여 신통을 얻어서
 네 가지 지혜가 뚜렷이 밝아서 보리를 얻게 하소서
 사마악신과 그리고 재앙과 액난과
 최악의 때가 한꺼번에 소멸하고
 몸과 마음이 해마다 움직이고 고요한 중에 편안하고
 도리어 앓거나 늡거나 평온하게 하여지이다.
 모든 원하는 일이 원만하고
 많은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성취하게 하소서
 이제 목숨이 다할 때가 되어
 부처님께 나아가면 영접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곧바로 서방에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뵈옵고
 꿈속에서 이마를 어루만져 주시고 수기를 내려 주옵소서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어서
 항상 보현보살이 육도만행을 실천하고
 하늘 옷이 돌을 스쳐 비록 달아서 없어져도
 나의 원은 깊고 깊어가서 다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모든 부처님은 증명하시고
 이를 인연하여 흰히 보시고 삼보전에 예배하나이다

대시주 가선대부 성환 비구 복위
 망부 통정대부 이무생
 망모 안씨 경덕 양주
 연화질
 증사 도성
 불존 수오
 화원 진열
 공양주 명학
 별좌 회준
 화주거사 덕징

위 발원문은 통상의 발원문과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채롭다. 대체로 발원문은 불상명, 조성연대, 봉안처, 발원동기, 제작에 참여한 인물 순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발원문은 불상의 조성연대와 봉안처가 없다.

이 발원문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가선대부 성환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불상을 조성하였으며, 불상명은 석가모니불이고, 조성한 조각장은 進悅이라는 스님 정도이다.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이 불상 조성을 발원한 嘉善 性還은 1656년 완주 송광사 오백나한상을 無染과 같이 제작한 승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性還에 대한 자료는 1657년 법인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661년 범어사 목조석가삼존불

상, 1743년-1744년 보림사 중창기에 기록이 나온다.

표 14 性還에 대한 자료

순	불상명	연대	彫刻僧	지역
1	송광사 오백나한상	1656년	無染, 性還	완주
2	法印寺 목조아미타불좌상 腹藏發願文	1657년	대시주길	함양
3	범어사 목조석가삼존불상 복장 발원문	1661년	寺中秩에 나옴	부산
4	보림사 중창기(通政 瑞玉 나무를 止川浦 曹溪山에서 삼)	1743년	片手 順罔 申在興 宇信 燭明 性還 肯戒 學成 等 住持 霽輝 通政 別座 瑞玉 都監 孟淑	
5	보림사 중창기(법당중건)	1744년	片手 宇信 燭明 性還 肯戒 肯念 覺惠 等 供養主 明敏 通政 都監 瑞玉 嘉善 別座 文忍 三綱 抱行 晚悟 穎輝 書記 汝明 住持 心演	

발원문에 기록된 증사인 도성은 보림사 중창기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표 15 道性에 대한 자료

순	불상명	연대	도성에 대한 자료	지역
1	보림사 중창기(관음전 중창)	1706년	木手 雪淨 別座 九坦 有澄 兩殿勸化次 住持 道性	
2	보림사 중창기(佛子閣, 향로전 중건)	1721년	片手 兼 別座 震聰 副 允玉 瑞敏 抱訔 抱然 曰眞 等 供養主 曰沾 兩閣 監役 嘉善 通認 住持 道性	함양

발원문에 기록된 供養主 明學은 1684년 송광사 불조전 불상 제작에 시주자로 나와 있다.

표 16 明學에 대한 자료

순	불상명	연대	명학에 대한 자료	지역
---	-----	----	-----------	----

1	송광암 극락전 본존불 발원문	1680년	肩間珠施主 <u>明學</u> 比丘	고흥
2	송광사 불조전 불상	1684년		

발원문에 기록된 별좌 懷俊에 대한 자료는 1684년 강진 옥련사 불상 발원문, 1736년 고법당 불상 삼존 개금 때, 1745년, 나한전 중창 때, 1753년 능인전 수리 및 매화당 신축 때에 참여한 기록이 나온다.

표 17 懷俊에 대한 자료

순	불상명	연대	회준에 대한 자료	지역
1	옥련사 불상 발원문	1684년	檀那芳目 主佛大施主宗見比丘 ... 寺衆 <u>懷俊</u> 智楫 明眼 德仁 明敏 守 欣 時贊 贊應 日軒 雷然 法輝 印安 海宣 釋梅 守圭 釋和 攝 道 三哲 普照 玲圭 思圭...	강진
2	옥련사 고법당 불상 삼존 개금	1736년	化主 智卞 別座 文忍 三綱 首 僧 孟淨 三寶 <u>懷俊</u> 持事 宇遠 住持 神察	강진
3	옥련사 나한전 중창	1745년	片手秩 片手 宇信 副片手 燭明 學性 肯戒 肯念 本學 供養主 自玄 四牌將 <u>懷俊</u> 汝澄 肯海 晚悟 山牌將 鵬信 大都監 通政 大夫 前住持 廣惠 別座 八俊 三綱 震懷 寬信 月機 補主 肯 悟 書記 孝勤 大同 補主 順元 書記 侃俊 住持 霽輝	강진
4	능인전 수리 매화당 신축	1753년	木手秩 片手 順性 副 肯念 等 益 平贊 肯華 德閑 壯海 道俊 軌活 別座 等玉 四牌將 穎森 見初 <u>懷俊</u>	강진

② 경전(그림 77)

몇 권 분량의 경전이 있으나 제본이 흐트러져 결장이 없으며 刊記도 없다. 경전은 大方廣佛華嚴經疏鈔卷五之一, 大方廣佛華嚴經疏鈔卷五之二, 大方廣佛華嚴經疏鈔卷十七之一, 大方廣佛華嚴經疏鈔卷十七之三二, 大方廣佛華嚴經疏鈔卷十七之三三 등이다.

③ 다라니경(諸佛菩薩腹藏眞言)(그림 78)

이 다라니경의 크기는 가로 47cm, 세로 18cm이며, 28행의 목판본이고 총 9장이다. 1행에 이經의 제목이 있으며 뒤에 刊記도 없고 오로지 朱書된 범어로만 찍혀 있다.

(2) 喉鈴筒(그림 76)

黃綃幅子에 청동제 喉鈴筒이 들어 있다. 黃綃幅子は 가로 21.5cm, 세로 20.5cm이며 모서리 부분에 “南”가 朱書되어 있다. 黃綃幅子를 묶은 오색사를 풀자 청동제 喉鈴筒이 나왔는데 겉면에 五方鏡이 있다. 喉鈴筒은 크기가 높이 7.5cm, 지름 2.4cm이고 원통형이며, 현재의 상태가 대단히 양호하다. 뚜껑을 열자 청동제의 팔엽대홍련과 양면원경이 나왔고 그 밑에 천으로 된 五寶瓶이 있었다. 이 五寶瓶은 양호한 것처럼 보였으나 오색사로 연결된 것을 풀자 검정색의 五寶瓶을 이룬 천(명주)은 거의 삭아 있었다. 빨간색 五寶瓶만 풀어 보았는데 그 안에 五方位에 따른 五穀, 五寶, 五藥, 五香, 五時花, 五吉祥草 등으로 보이는 것들이 들어 있었다.

6)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1) 기문류

① 발원문(그림 88, 89, 부록 9)

이 발원문은 장방형 한지에 行書로 墨書하였으며, 크기는 가로 55cm, 세로 42cm이고, 字徑은 1-1.2cm 정도이다. 앞면에는 ‘時維’로 시작되는 첫 행부터 끝 행의 ‘朴愛善’까지 16行이 횡으로 쓰여 있다. 뒷면에는 ‘七月三’이란 3자만 횡으로 간략히 쓰여 있고 나머지 면은 글자가 없다. 이 발원문은 둘째 행에 조상 연대와 봉안처가 나와 있고, 4행에 불상의 명칭이 있다. 5행에 불상을 조성하게 된 동기가 있고, 6행에 불상을 조성하였던 장인이 한 사람 나온다. 그 뒤로는 시주자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데 9명의 인명이 보인다. 발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면)

時維

康熙四十一歲次壬午年五月二十日畢功全羅左道 順天北嶺 桐裡山大興寺緣化比丘等

發願文

第三毗舍浮佛 大施主 尹士奉 兩主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碩德 名現 畫員 守日 比丘

腹藏施主 金氏

張漢英

朴氏以禮

宋蔓立

末醬施主 靑金

尙德

粉禮

布施大施主 崔氏

金振云

朴愛善

(뒷면)

七俚三

(앞면)

강희 41년 5월 20일에 완성하다. 전라좌도 순천 북령 동리산 대흥사 연화비구 등
발원문

제3 비사부불. 대시주 윤사봉 내외

원컨대 이 불상을 조성한 공덕이 일체중생에게 보급되고, 저희들과 중생들
이 함께 무량수불을 친견하고 모두 함께 佛道를 이루기를 비나이다.

석덕 명현 화원 수일 비구

복장시주 김씨

장한영

박씨이레

송만립

말장시주 청금

상덕

분례

보시대시주 최씨

김진운

박애선

(뒷면)

7 가운데 3

발원문에 ‘康熙四十一歲次壬午年 五月二十日畢功 全羅左道 順天北嶺 桐裡山
大興寺’이라 하여 정확한 조성시기와 봉안처를 알려 주고 있다.

정방사 석조여래좌상의 처음 봉안처는 전남 순천의 북쪽에 있는 동리산 대
흥사라는 것이다. 桐裡山은 우리나라 선종구산문 가운데 하나인 泰安寺(大安
寺)가 있는 유명한 산인데 현재의 山名은 鳳頭山(표고 753m)이라 하며, 산의

서북쪽은 곡성군 죽곡면, 동남쪽은 순천시의 황전면과 월등면에 속한다.

大興寺는 순천 월등면 월룡리 장척마을의 북쪽 절골에 그 터가 남아 있다. 100여 년 전까지 있었던 대흥사는 큰 규모였다¹⁴¹⁾고 전하고 있으나 처음에 龍臺庵이라고 사명을 한 점으로 보아 조그마한 암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1530년 이후에 ‘龍臺庵’이란 암자로 출발하여 17세기에 寺名을 ‘大興寺’로 改名하면서 대규모의 사찰로 변하였던 것 같다. 1669년에 寶輦을 새로 만들고 講堂을 지었다. 1702년에는 石造의 過去七佛을 조성하여 봉안하였고, 1707년 3월에 寒山殿이 기울어가고 주위가 다 허물어져가자 이를 중수하였으며, 19세기 후반경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흥사지는 현재의 鳳頭山 끝자락 아주 협소한 곳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아 이 한산전이 주된 범당일 가능성이 많다고 느껴진다. 사지에는 8각 석재 1점, 몇 개의 초석, 치석된 석재로 이루어진 축대 등의 石物이 있으며,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기와편, 백자편, 토기편 등이 수습되고 있다. 대흥사는 輿地圖書에 定惠寺, 松廣寺, 大光寺, 仙巖寺, 興國寺에 이어서 등장한 것으로 보아 18세기 순천의 대표적인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방사 석조여래좌상과 같이 조성된 석조구류손불좌상이 2006년 전남 별교 용연사에서 발견되었다. 석조구류손불좌상은 용연사의 대웅전 본존불로 봉안되어 있다. 발원문에 의하면 용연사에는 ‘七佞五’로 ‘第五拘留孫佛’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 정방사의 불상은 ‘七佞三’로 ‘第三毗舍浮佛’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이 석불 또한 정방사 석조여래좌상과 같이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방사와 용연사 발원문 내용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8 정방사와 용연사 발원문 비교

정방사 발원문	용연사 발원문
(앞면) 時維 康熙四十一歲次壬午年五月二十日畢	(앞면) 時維 康熙四十一歲次壬午全羅左道順天府

141) 향토지리연구소, (2003). 순천 월등-月燈面 郷土誌, 순천월등면지편찬위원회, p. 420.

功全羅左道順天北嶺桐裡山大興寺緣化比丘等	北嶺桐裡山大興寺
發願文	緣化比丘等 發願文
第三毗舍浮佛 大施主尹士奉兩主	第五拘留孫佛 大施主鏡旭比丘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同見無量壽皆共成佛道	腹藏施主 金氏 畫員
碩德名現 畫員 守日比丘	張漢英 守一 比丘
腹藏施主 金氏	朴氏以禮 各各比丘等
張漢英	宋蔓立
朴氏以禮	塩醬施主 青金
宋蔓立	尙德
末醬施主 青金	粉禮
尙德	布施大施主 金振云
粉禮	朴愛善
布施大施主 崔氏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同見無量壽皆共成佛道
金振云	願我世世生生常面佛法僧
朴愛善	五月二十日畢功也
(뒷면)	(뒷면)
七仞三	七仞五

② 다라니경(그림 91)

이 다라니경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31.8cm이며, 12행의 목판본이다. 목판을 이용하여 붉은 색으로 찍어낸 것으로 모두 동일한 「大佛頂首楞嚴神呪」이다. 첫 행은 ‘大佛頂首楞嚴神呪’라 하여 陀羅尼의 제목에 해당하며, 2-5행은 범어, 6행은 ‘寶齒眞言’, 7행은 범어, 8행은 ‘五輪種子’, 9행은 범어, 10행은 ‘眞心種子’, 11행은 범어, 12행의 처음은 ‘六字大明王眞言’이 있고 그 밑으로 범어 6자가 있다.

이 주문은 능엄경 가운데의 佛說大陀羅尼이며, 禪門에서 아침 일과로 독송한다고 한다.

(2) 喉鈴筒(그림 90)

정방사의 喉鈴筒은 황색 비단인 黃綃幅子에 싸여 있다. 이 黃綃幅子の 표면에 ‘封’자와 ‘南’자를 朱書하였다. 喉鈴筒을 감싸고 있는 노란 보자기인 黃綃幅子の 매듭이 너무 단단히 조여 있어 풀 수가 없어 喉鈴筒의 내용물은 조사할 수 없었다. 喉鈴筒은 청동제의 원통형이며 크기는 높이 6.5cm, 지름 3cm이다.

정방사와 용연사의 복장물과 그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9 정방사와 용연사 腹藏物 비교

腹藏物	정방사	용연사
후령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령통 黃綃幅子の 표면에 ‘封’자와 ‘南’자를 朱書함 • 후령통을 감싸고 있는 黃綃幅子の 매듭이 너무 단단히 조여 있어 풀 수가 없어서 후령통의 내용물 조사는 할 수 없었음 • 후령통은 청동제의 원통형이며 크기는 높이 6.5cm, 지름 3cm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喉鈴筒 손잡이 부분이 黃綃幅子에 종이로 감았는데 겉에 ‘封’자를 朱書함 • 오색사와 五方鏡이 있으며, 五寶瓶은 천으로 되어 있음 • 喉鈴筒은 청동제의 원통형이며 크기는 높이 5.5cm, 지름 2.8cm임
陀羅尼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31.8cm이며, 12行의 목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기는 가로 47cm, 세로 37cm이며, 12行의 목판본
경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妙法蓮華經券第二, 楞嚴經券五, 地藏菩薩本願經 등 3권의 경전이 있음

제 4장 제주도 기년명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彫刻僧

제1절 조선시대 불전과 불상의 양식적 특징

조선시대 불전건축을 살펴보면 조선 초기의 대웅전은 기본적으로는 석가불을 예불하는 불전이였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피해를 입은 불교사원은 양란 후인 17세기에 불전을 중수하고 불상과 불화를 조성하는 등 대대적으로 가람을 정비하였다.

전쟁 기간 동안 승병들의 의거와 혁혁한 전공은 집권층의 대불교관을 바꾸어 놓아 불교의 중흥을 목인하게 만든다.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고 어느 정도 사회 경제력이 회복된 18세기는 불교 일대의 중흥기였다. 유명 사찰의 복원과 중창은 물론 전국에 수 천개소의 중소 사찰들이 창건되었다. 그러나 종맥이 끊긴지 2백년이 지난 시점에서 과거의 종파적 형식은 시대에 부적절한 형식이 되었고 通佛敎의 교리와 교단 형편에 적절한 통불교 형식이 구축되었다. 소위 山地中庭形¹⁴²⁾, 무탑 단일영역, 多佛殿形의 보편적 형식으로 전국에 분포하게 된다.¹⁴³⁾ 그래서 재건된 사찰의 대웅전은 크고 작은 여러 의식과 예불이 행해지던 복합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들어 일반 서민들이 불교에 귀의함이 많아지면서 신도의 양적 증가를 초래한 사실로 보면, 많은 수의 신도를 한꺼번에 수용하기 위하여 당연히 법당의 내부 구조가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7세기에 새로 지어진 불전은 불단이 후면에 內陳柱열에 맞추어 배치되는 正置法이 점점 줄어들었고, 불단의 뒷면에 좌우의 기둥이 뒷벽쪽으로 옮겨지는 移柱法이 점점 증가하였다¹⁴⁴⁾. 그와 함께 별도의

142) 산지중정형이란 대웅전 앞에 중정을 중심으로 좌우로 작은 불전이 배치되는 형식이다. 이는 궁궐한 제정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전각들은 재건되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전각만 재건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3) 김봉렬, (2004). 불교건축. 솔출판사. p. 38.

144) 배병선, (1991). 다포계 맞배집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p 125.
정치법은 건물 내부에 후불벽의 고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둥을 둘 때 측면 주열의 연장선상에서 똑바로 맞추어 하는 방법이며 이주법은 측면주열보다 뒤쪽에 후퇴시켜 두는 배열법이다.

예배 공간이 없었던 神衆과 靈駕를 대웅전에 모시게 됨으로써 다수의 예배단이 함께 설치된 복합불전의 기능을 지니게 된다.

대웅전 내부에서 치러지는 의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불단에 올리는 공양물도 많아졌으며 이에 따라 한정된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 17세기에는 불전 내부에서 일어난 평면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立面에서의 변화도 일어났다. 불단의 天板 위에는 화려하고 높은 대좌가 올려지게 되었으며 대좌와 별조로 寶卓과 寶壇이 천판 위에 올려지게 되었다. 예불과 의식에 사용될 공양물을 진설하기 위하여 平面的으로 넓어진 불단이 이제 立面的으로 함께 높아지게 된 것이다. 불상의 높이와 관계있는 것은 천판 위에 놓인 높은 대좌이다. 대좌의 높이가 더욱 높아지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상이 안치되는 높이가 높아지게 된 것이다.¹⁴⁵⁾

불상대좌는 중대 즉 천판 위에 놓이며, 상대인 보단과 보탁은 불상대좌의 앞에 놓인 장엄구 역할을 한다. 불단이 높고 화려하게 장엄된 데에는 불상을 좀더 높고 성스럽게 보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다. 이런 점은 불단 위에 놓은 대좌를 올려두고 그 위에 불상을 안치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데 이런 방법은 예배자들이 불상을 우러러 보고 존엄을 느끼게 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높은 불단 위에 올려져 불안되었을 때는 불상의 원만한 상호를 바라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 제작된 불상들이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웅크린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 같은 불전 내부의 상황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17세기에는 왜란을 겪은 불교계가 자긍심과 자신감이 충만한 시기로 불전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장식하게 되었고, 불상은 더욱 높아진 불탁 위에 위엄있게 불안되었다. 불탁은 폭이 넓고 높은 사각의 수미단 형태로 조성되었으며, 불탁 위에는 다시 대좌가 놓였다. 그 위에 안치되는 불상은 더욱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 얼굴을 똑바로 정면으로 향하게 하였을 경우 예배자의 시선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각승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약간 크게 만들고 또한 몸을 앞으로 숙이게 하여 자비로운 원만상을 구현하려 하였다.¹⁴⁶⁾ 현재 각 사찰에 불안된 조선 후기 불상은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

145) 허상호, (2002), 조선시대 불탁 장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에서 仰見하였을 때 가장 원만하게 감상할 수가 있다.

조선시대 불상양식을 개괄해보면 조선 전기는 성리학 지배체제가 성립된 시기였지만 왕실 귀족들의 은근한 지원과 세조, 명종 등 불교에 호의적이었던 군주들의 적극적인 우대로 고려와 마찬가지로 왕실이나 국가에서 불상을 조성하는 일이 많았다. 따라서 조각가들은 당대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조성하였다.¹⁴⁷⁾ 조선 초기의 불상들은 고려시대의 화려하고 고상하며 단정했던 아름다움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었지만 대의 표현의 번잡함이 줄어들면서 대의가 두껍게 표현되기 시작하였고 옷주름의 탄력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지만 장륙사 乾漆菩薩坐像(1395년), 과계사 木造觀音菩薩坐像(1447년), 흑석사 木造阿彌陀佛坐像(1458) 등의 작품을 살펴보면 그 표현 기법이 매우 뛰어난 수작이라 할 수 있다.

15세기 후반경인 1495년 이후의 작품들에서는 고려후기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새로운 조선적인 특징들이 가미된 불상 양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¹⁴⁸⁾ 원각사탑 부조상(1464년)이나 무위사 아미타불좌상(1476년)을 보면 이들은 고려후기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점차 방형의 형태미가 드러나면서 옷주름이 간략화되고 장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신체에 비하여 머리가 커지고 무릎이 좁아지며 불상의 고개가 점차 숙여지기 시작한다. 또한 동시기에 외래양식의 영향을 반영한 불상들도 출현하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고려 후기 소수로 존재하였던 元代불상의 영향을 받은 密敎적 도상의 바탕위에, 새로이 유입되기 시작한 明代조각양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조선초기부터 불상에서 보여지던 조성양식은 16세기가 되면서 그 특징이 점차 구체적으로 드러난다.¹⁴⁹⁾ 그러나 이 시기의 작품들은 전란으로 소실되어 그 수가 매우 적다. 16세기 작품인 기림사 大寂光殿의 塑造毘盧遮那三

146) 문명대. (2003). 한국의 불상조각 4. 삼매와 평담미.

이무희. (1988). 조선 후기 불전의 특징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147) 문명대. (1992). 조선의 조각. 한국미술사의 현황.

148) 임영애. (1994). 조선시대의 불교조각. 한국불교미술대전 I: 불교조각. 한국색채문화사.

149) 문명대. 앞의 책.

尊佛(16세기)은 毘盧遮那, 藥師, 阿彌陀佛로 조성되었는데 높은 육계, 길고 풍만한 얼굴, 장대한 신체, 건강하고 당당한 체구, 넓은 무릎, 두껍게 표현된 대의로 16세기 불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완도 관음사의 목조보살(1569)도 당시의 불상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얼굴은 둥글면서도 단정하며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미소가 약간 남아 있는 얼굴은 아직 평판화가 덜 진전된 16세기 양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신체 특징은 점차 평판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굵은 다리, 투박한 손, 두터워진 천의, 간결한 옷주름 등은 새로운 조선양식이 정착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¹⁵⁰⁾

이처럼 15세기말부터 불상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방형의 모습과 두꺼워진 옷자락의 표현, 표정에서 나타나는 근엄함은 17세기 동안 완전하게 정착하게 된다. 이러한 17세기 불상들은 1644년을 전후하여 도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전반적인 양식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조선전기의 불상조각보다 조형적으로 뒤떨어지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국가로부터의 배척으로 중앙화원과의 단절과 그로 인한 불교의 폐쇄성 및 일반신도들의 불사에 참여 등으로 인하여 우수한 불상 조각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왕실과 중앙귀족층의 후원으로 불사를 일으켰던 전기와는 달리 대규모의 불사가 점차 드물어지고, 불교계 내에서 지방의 조각승을 중심으로 제작되는 조선 후기 불상 조각은 제작 기술상의 한계를 보이면서 토착화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양대 전란 이후 선종 계열이 득세하면서 조각 활동이 주춤하고 도상적인 면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줄어드는 등 신앙 경향의 변화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던 미적 감각의 변화 또한 한몫을 했던 것으로 보여 후기로 내려올수록 소박하고도 정감어린 면모를 나타내게 된다.¹⁵¹⁾

불상의 도상은 17세기와 이어지는 18세기까지 조선 후기 불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변화상이 곧 조선 후기 불상의 대표적인 변화과정

150) 최몽룡. (1977). 완도 관음사 목조여래좌상과 복장유물, 미술자료 20.
문명대. (1998). 조각, 한국사 31. 국사편찬위원회.

151) 천병승. (2005). 조선시대 불상조각의 조형성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원.

이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목조상 들은 17세기 동안 큰 변화상을 보이지는 않으나 17세기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이르러 그 도상이 더 다듬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옷주름은 간략화 되고 양 볼과 턱에 약간의 양감을 주어 부드럽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는 17세기가 불상에 있어 조선 후반기 양식이 완전하게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 양식으로 보인다. 목조불상에서 보이는 얼굴은 일반적으로 사각이며 편편한 형태인데 점차로 얼굴에 볼살이나 턱살을 조금씩 표현하고 있다.

목조보살상들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17세기 후반기로 가면서 목의 길이가 점차 짧아지면서 어깨가 구부정해지지만 귀의 길이는 점차로 길어지는 점이다. 전반기에 얼굴에 딱 붙어서 정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귀는 후반기로 오면서 그 길이가 점차 길어지고 앞으로 쏠리면서 정면에서도 귀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변화한다. 또한 목조상들의 어깨는 대체적으로 넓고 편편한 형태를 보이지만 소조상과는 달리 어깨를 둥글게 표현하였다.

18세기에 조성된 불상들은 자세나 착의법, 수인 등에서 17세기 불상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신체에 비하여 손과 얼굴이 커지고 어깨가 점차 좁아지며 대의가 배 부분에서 완전히 W자로 도식화된다.¹⁵²⁾ 그러나 17세기 말기부터 서서히 정착되어간 도상의 영향으로 사각형의 얼굴에는 점차 살이 오르고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어 더욱 부드럽게 변화되었으며 비정상적이던 하체도 많이 자연스러워지게 된다.¹⁵³⁾

조선 후기에 조성된 많은 수의 불상들은 앞 시기에서 보이는 화려한 장식과 섬세한 신체 표현과는 전혀 다르다. 다소 평면적인 방형의 단순한 신체 표현을 하고 있으며 근엄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조각적인 미감이 떨어지며 기술적으로 퇴보한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당시의 새로운 미감의 표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사회 전반에 자리잡고 있던 조선 성리학이 문화전반과 불교계에 준 영향이 조선 후기 불상에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된다.

조선 후기에 조성된 불상들은 이전 시기의 불상에 비해 중국 불교조각과의

152) 이종문, (1996). 조선 후기 후불목각탱 연구. 미술사연구 209.

153) 이정현, (2001). 17세기 불상의 양식 변천.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연관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 청대의 불상들과의 교류 상황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대의 불상은 고려시대와 15-16세기 명대의 불상들에서 연원하는 전통성이 강한 조선 전기 불상양식에서부터 탄생했으며 이후의 불교 조각은 외래의 새로운 변화 요인이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내재적인 자체 원동력에 의해 변화 발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제 2절 제주도 기년명 불상의 양식적 특징과 彫刻僧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이 보살상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서산사에 소장되어 있는 목조보살좌상이다. 이 보살상에서는 발원문, 후령통, 사리, 五方鏡, 팔엽대홍련, 백옥제 보탑, 호박, 수정, 약초봉지 등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의 세 번째 장에는 시주자 명단과 조성 당시의 사찰에 주석하고 있던 승려들의 명단을 알 수 있고, 화원 또한 알 수 있다.

17세기 초반 彫刻僧들은 16세기 彫刻僧들로부터 조각을 배웠을 가능성이 많은데 대표적인 조각승으로 香嚴을 들 수 있다. 香嚴이 제작한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은 약간 길쭉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무릎폭에 비해 身高가 높다. 크기가 56cm에 불과한 작은 상이기 때문에 무릎폭이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상 하부에 손상이 심해서 재보수를 하였기 때문에 실제의 무릎폭인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옷은 (군의), 僧脚崎, 복견의, 대의를 착용하였으며 대의는 오른쪽 어깨를 가려주는 변형편단우견형식이다. 고려시대 이후 가장 일반적인 착의법이다. 보살상에 표현한 옷주름은 가운데 왼쪽 어깨에서 측면으로 흘러내린 옷주름과 오른쪽 어깨에서 상박을 덮으며 팔꿈치쪽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진 대의 자락의 끝이 말려진 모양의 옷주름을 만들었는데 이같은 주름은 15세기에는 약간 위쪽에 크고 모나게 표현하였다.¹⁵⁴⁾

香嚴은 1534년 서산사 목조보살좌상과 1565년 전라남도 羅州 熊岾寺에서 조성하여 지금은 목포 달성사에 봉안되어 있는 木造地藏菩薩半跏坐像을 제작하였다.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화원은 香嚴, 智軒, 倚奉七伊이다.

목포 달성사의 목조반가좌상의 화원으로 香嚴, 淡正, 崇恩, 天鑑, 福壽 등이 다. 이처럼 香嚴이 수화사로, 보조 조각승을 데리고 작업했다는 점에서 조각승 또는 조각승 유파의 존재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香嚴은 나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지역에서 유파를 형성하여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0 香嚴 불상조각의 예

순	불상명	조성 연대	彫刻僧	지역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1534년	畫員 香嚴, 倚奉七伊, 智軒,	제주
2	羅州 熊岾寺 목조지장보살반가좌상 (목포 달성사 봉안)	1565년	畫員秩 香嚴, 淡正, 崇恩, 天鑑, 福壽	나주

香嚴이 제작한 목포 달성사의 목조반가좌상은 얼굴이 가름하며 복견의가 길게 늘어져 복부의 僧脚崎가 넓게 드러나 있는 모습에서 서산사 보살상과 동일하다. 30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두 보살상은 모두 가름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착의법과 옷주름 표현이 동일하다. 그리고 불상 뒷면을 살펴보면 목둘레에 대의를 두르고 왼쪽 어깨 앞에서 넘어온 대의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길게 늘어진 대의자락에서 같은 문양을 보여주고 있어 향엄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볼 수 있다.(그림 26) 그러나 목포 달성사의 목조반가좌상은 얼굴이 좀더 가름하며 복견의가 길게 늘어져 복부의 僧脚崎가 넓게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목포 달성사 목조반가좌상의 왼쪽 상부에 표현된 끝이 말린 형태의 옷주름은 15세기 불상의 영향이며 경북 봉화군 청량사에 봉안된 지장 반가상이나 경주 기림사 삼방불상도 좌견의 옷주름의 향엄상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16세기 불상의 일반적인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彫刻僧에 대한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가고 있으므로 香嚴에 관한 자료가 더 확보되어 보다 자세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154) 송은석, (2007). 17세기 조선 왕조의 彫刻僧과 불상.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또다른 화원인 智軒, 倚奉七伊에 대한 자료는 없어서 밝히지 못했으나 조선 시대 후기에는 대부분 彫刻僧들이 불상을 제작하였는데 倚奉七伊이라는 俗人이 승려와 함께 불상조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¹⁵⁵⁾

2. 月溪寺 목조아미타불좌상

이 불상은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月溪寺에 소장되어 있는 목조아미타불좌상으로 복장에서 발원문과 黃綃幅子에 쌓인 후령통, 五寶瓶, 五方鏡, 圓覺經, 陀羅尼 등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에 의하면 1661년 7월에 鴨城(長城) 白羊寺 藥師庵에 봉안된 불상이며 불화와 함께 불상을 새로 제작, 봉안하였음을 밝히고 主尊佛 施主와 左右補處 施主名을 적고 있어 1661년에 삼존불상과 불화를 함께 조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불상은 새로 개금을 하여 원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존명은 발원문에서 ‘主佛大施主貴介兩主 補處施主金哲伊兩主 補處施主金士立兩主’라고 하여 주불과 함께 양 보처를 조성한 三尊像이었음을 밝혀 놓았다. 17세기 후반의 조선 후기 불상에서 三尊으로 조성된 여러 가지 예가 있으나 이 불상처럼 오른손을 위로 든 수인을 하고 있는 불상으로는 三方佛(阿彌陀佛-釋迦佛-藥師佛)의 우협시아미타불이거나 阿彌陀三尊佛(大勢至菩薩-阿彌陀佛-觀音菩薩)의 주존 아미타불일 경우 2가지이다. 특히 오른팔을 높이 쳐들지 않고 낮게 하여 손만 든 본 상과 같은 수인은 주로 삼방불보다 아미타삼존불의 주존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본 상의 존명은 阿彌陀佛이며 阿彌陀三尊佛의 주존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상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와 신체표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각형인 얼굴, 僧脚崎 상단의 접혀진 주름은 대각선으로 처리해서 가슴 아래로 내려왔다. 결가부좌한 무릎 앞으로 넓게 퍼진 옷자락 등에서 조선 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현재 개금이 두터워 옛 모습을 완전하게 보기는 어렵

155) 손영문. (2007). 白羊寺의 불교 문화적 가치. 불교문화학회. p. 87.

지만 발원문에 의해 조각승은 ‘畫員 雲惠, 尙全’이 조성하였다는 기록되어 있어 17세기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발원문과 문헌 기록을 중심으로 조각승 雲惠는 1639년에 고흥 능가사 불상을 제작할 때, 수화승으로 대선사의 지위에 오를 정도로 학식과 경륜을 가진 승려였다. 1649년 황해도 건불산 강서사에서 불상 제작을 守衍의 제자인 靈哲과 같이 제작하여 그의 계보를 알 수 있다. 1650년대에는 충청남도 공주 마곡사의 주지를 역임하면서 전각 건립에도 참여하였고 1665년 도림사 본존과 1667년 쌍봉사 불상이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雲惠는 1600년 이전에 태어나 1630년을 전후하여 불상제작의 수련기를 거친 후, 최소한 1639년부터 1680년까지 불상 제작에 수화승으로 활동하였다.¹⁵⁶⁾

雲惠의 초기 작품의 상호는 턱이 뽕족하면서도 상호는 넓적하다. 雲惠는 17세기 전반 현진파의 옷주름처럼 어깨에서 수직으로 흘러내린 주름이 직각으로 꺾여 팔꿈치 뒤로 넘어간 양식의 옷주름을 주로 표현하였다. 다만 직각으로 꺾인 정도가 현진파보다 부드럽다는 점이 차이점이며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짧게 늘어지고, 가장자리 옷주름이 사선으로 접혀 있으며 1667년 화순 쌍봉사 보살상에서는 대의 자락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끝부분이 U자형으로 처리되었다.

全南 海南 瑞洞寺 木造三方佛坐像是 1650년(順治八年庚寅冬月日造墨畢) 雲惠가 제작한 불상으로 雲惠派 양식의 초기 양상을 보여 준다. 신체는 매우 두꺼운 옷에 의해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가슴이나 팔 등 노출된 부분도 매우 평면적으로 처리되었다. 상호는 젊은이의 모습이며 턱끝 역시 뽕족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옷주름은 매우 울동적이며 입체적이다. 僧脚崎 상단의 띠장식은 끈으로 묶어서 생긴 입체적 주름이 아래로 매우 세심하게 접혀진 부분을 뽕족하게 표현하였다.

雲惠의 후기 불상 조각은 예산 향천사 극락전의 목조아미타불좌상, 제주시 한림읍 월계사의 목조아미타불좌상, 화순 쌍봉사 지장전의 목조지장보살좌상, 해남 미황사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좌상, 강진 백련사 명부전의 목조지장보살좌상 등이 있다. 상호는 거의 정방형에 가깝고 목과 어깨도 많이 넓어져서 불

156) 최선일, 앞의 책, p. 83.

상 전체적으로 풍만하고 건장한 느낌이다.

이와 달리 하반신을 덮은 대의 표현은 해남 서동사 불상(1650년)의 경우 각기 다르게 나타나다가 곡성 도림사 본존(1665년)과 화순 쌍봉사 불상(1667년)에서 대의자락이 배 부분에서 직선으로 길게 내려와 끝부분이 초승달 모양으로 처리된 것이 특이하다. 대의 안쪽에 입은 僧脚崎 표현은 해남 서동사 불상이 상단을 한 번 말아 도톰한 仰蓮形으로, 쌍봉사 불상은 둥근 상단에 양쪽 끝이 날카롭게 접힌 蓮瓣形으로, 도림사 협시보살상(1680년)은 위부분이 뾰족한 蓮瓣形으로 표현되어 이러한 僧脚崎 상단 처리를 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¹⁵⁷⁾

표 21 彫刻僧 雲惠 조성 불상

순번	불상명	조성 연대	작가	지역
1	高興 楞伽寺 木造佛坐像腹藏記	1639년	金魚 雲慧 勝鈞 敬琳 …	전남
2	海南 瑞洞寺 木造三方佛坐像	1647년	畫員 雲惠 雲益…	전남
3	배천 강서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서울화계사)	1649년	畫員 靈哲 印明…雲惠 玉淳…	황해
4	濟州 月溪寺 木造阿彌陀佛坐像	1661년	畫員 雲惠 尙全	제주
5	谷成 道林寺 木造阿彌陀佛坐像	1665년	畫員 雲慧 瓊琳 處瓊 妙瓊 處機	전남
6	화순 쌍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67년	畫員 雲慧 印性 道日 碧雲 敬林…	전남
7	목포 달성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1668년		전남
8	해남 미황사 목조지장보살좌상	1670년 대		전남
9	강진 백련사 목조지장	1670대		전남

157) 최선일. (2006). 『조선 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p. 80-81.

	보살좌상	후반		
9	곡성 도림사 목조관음 세지보살좌상	1680년	畫員 雲惠 敬林...	전남

월계사상은 화순 쌍봉사상(1667년)과 매우 유사하다. 두 다리 사이의 옷주름도 중앙의 동그랗게 말린 옷주름 좌우로 울동적으로 퍼져나간 형태보다는 매우 단순해진 형태이다. 특히 왼쪽 무릎에 있었던 깊고 선명하며 울동적인 주름은 얇고 간략한 주름 문양으로 바뀌었다.

또 다른 화원 尙全은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彫刻僧이다. 1661년에 수화승 雲惠와 제주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제작하였으나¹⁵⁸⁾ 그 외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행적을 자세히 밝히기가 어렵다.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이 보살상은 제주시 월평동 삼광사에 소장되어 있는 목조보살좌상으로 1671년에 조각승 應慧, 戒贊이 조성한 것이다. 복장에서 佛像發願文과 黃綃幅子에 싸인 喉鈴筒 등 腹藏物과 陀羅尼 50여장 등이 발견되었으며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보살로 조성되었음이 밝혀졌다. 현재는 개금이 일부 벗겨졌으며 부분적으로 목재에 금이 가는 등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다.

발원문에 의하면 이 보살상은 1671년(조선 현종 12)에 백양산 청심대에서 아미타불삼존상의 하나로 조성되었다. 이 불상을 조성한 공덕으로 모든 스님들과 중생들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바라고 삼보에 귀의하기를 빌며 왕실의 수복과 안녕을 발원하고 있다. 발원문에 등장한 승려는 모두 17인이다. 시주자 元惠와 覺軒, 대선사 善河, 대사 義均과 惠能, 지사 戒英, 별좌 戒行, 증명 惠還, 공양주 坦祐와 明善, 화사 海澄 등은 당시 주로 호남지방에서 활동하였다.

畫員은 應慧와 戒贊으로 아미타삼존상을 조성하면서 2인의 彫刻僧만 등장하

158) 최선일, (2007). 조선후기 승장 인명사전-불교조각, p. 65.

는 것이 특이하다.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삼존불을 조성하려면 수 명 이상 혹은 10명 이상의 彫刻僧이 등장하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이다.

應慧¹⁵⁹⁾는 전라남도 동부지방에서 활동하였다. 17세기 중반인 1639년부터 1678년까지의 불상이 남겨져 있어 17세기 중·후반에 걸쳐 불상제작 활동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복장 발원문을 통해 應慧가 수화사로 확인되는 것은 7건이며 이들 불사에 참여한 彫刻僧은 6명이다.

應慧가 조각한 불상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 ① 하동 쌍계사 대웅전 목조삼세불좌상(1639년)¹⁶⁰⁾

匠人 比丘清憲 勝日 法玄 英頤 賢胤 應惠 希藏 尚安 學海 懶欽 靈湜

- ② 군산 佛住寺 목조관음보살좌상 시주질(1647)¹⁶¹⁾

畫員 應惠 比丘 戒贊 比丘 淸眼 比丘

- ③ 담양 회적암 목조아미타불좌상(1660년, 장성 白羊寺 성보박물관 소장)¹⁶²⁾

畫員秩 相畫 應惠 海機 中者萬生 印性 影畫 坦義 戒機 神伊 藏畫 鄭胤兩主

- ④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좌상(1671년)

畫員 應慧 比丘 戒贊 比丘

- ⑤ 제주 삼광사 목조보살좌상(1671년)

畫員 應慧 比丘 戒贊 比丘

- ⑥ 광양 무등암 목조대세지보살좌상(1678년)¹⁶³⁾

畫員 應海 比丘 印戒 比丘 海機 比丘 雷侃 比丘

위의 자료에 의하면 應慧는 1639년부터 1678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하동 쌍계사, 군산 불주사, 담양 회적암, 백양산 청심대, 지리산 쌍계사의 암자인 小

159) 최선일. (2007). 조선후기 승장 인명사전-불교조각. 도서출판 양사재. p. 132.

160) 이희정. (2005).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彫刻僧 淸憲. 불교미술사학 3.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p. 163.

송은석. 앞의 논문. pp. 413-417.

161) 송은석. 앞의 논문. p. 489.

162) 손영문. (2007). 彫刻僧 應惠派 佛像彫刻의 研究-潭陽 晦迹庵 木造阿彌陀佛坐像을 中心으로. 白羊寺의 불교문화사적 가치. 한국불교문화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제12호. pp. 83-84.

163) 최인선. (1999). 光陽 無等庵 木造大勢至菩薩坐像과 腹藏物. 順天大博物館誌 창간호. 순천대학교박물관. pp. 131-133.

隱蘭若 등 경남과 호남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처음에는 淸憲¹⁶⁴⁾과 勝日¹⁶⁵⁾ 등 17세기 전반기에 활동하였던 彫刻僧에서 배우다가 1647년부터 首畫僧으로 활약하였다. 應慧의 이름 표기는 應惠, 應慧, 應海 등 3가지로 표기되고 있는데 모두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관계로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應惠는 1663년 화엄사에 세워진 碧巖禪師碑의 배면 음기에 등장한 것으로 보아 碧巖覺性의 문도임을 알 수 있다.

應慧가 제작한 불상의 특징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불상들로 한정해 살펴볼 때 모두 상 높이가 40-80cm 가량의 소형불이다. 상호는 턱선이 둥근 장방형이고 양감은 별로 나타나지 않으며 코는 매우 낮고 작다. 입은 웃는 듯이 살짝 다물어 있으며 입술은 매우 얇게 표현되었다.

도상의 특징으로는 수인에서 다른 조각승과의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오른팔을 오른다리 허벅지 바로 위에 두고 손끝을 치켜든 형태로 양손을 모두 무릎에 닿을 정도로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중품하생인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굴지사, 삼광사, 일심사, 무등암의 보살상의 僧脚崎는 띠매듭이 없는 일자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삼광사, 일심사, 무등암의 보살상은 상과 대좌를 하나의 나무로 만든 점이 특징이고 대좌까지 대의가 흘러내려서 소형불상의 중량감을 더해주고 있다.

次畫員 戒贊은 17세기 전·중반에 활동한 彫刻僧이다. 1646년에 수화승 勝日과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불좌상과 대세지보살좌상을, 1647년에 수화승 應慧와 전북 군산 불지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을, 1648년에 수화승 勝日과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삼세불좌상을 제작하였다.¹⁶⁶⁾ 戒贊은 1640년대에 勝日이란 화원 밑에서 활동하였던 자료가 2건이며, 1640년대와 1670년대에 應慧 밑에서 활약한 자료가 3건이다. 戒贊은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수화원 자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다른 彫刻僧의 밑에서 주로 활약하였던 차화원으로 추정된다. 戒贊에 대한 자료는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戒贊은 구례 천은사상과 강진 정수사상 조성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비

164) 이희정. 앞의 논문.

165) 이분희. (2006). 彫刻僧 勝一派 불상조각의 연구. 講座美術史. 26. 참조.

166) 최선일. (2007). 조선후기 승장 인명사전-불교조각. pp. 11-12.

슷한 시기에 전라도 지역에서 불상 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활동 지역이 전남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① 求禮 泉隱寺 修道庵 아미타불좌상 복장 발원문(1646년)¹⁶⁷⁾

崇禎十九年全羅道南原府 修道庵 堂主阿彌陀佛左右補處尊像造成腹藏發願文…證師 雙印 匠主列次 勝日 熙藏 太元 性照 戒贊 天學 寶海 行者戒明 寶體 …大化士 德祐

대세지보살좌상 발원문(1646년)

證師 雙印 持殿 禪機 畫員名錄 勝日 熙藏(희침) 太元 性照 天學 戒贊 寶海 別座 天印

② 군산 佛住寺 목조관음보살좌상 시주질(1647년)¹⁶⁸⁾

畫員 應惠比丘 戒贊比丘 淸眼比丘

③ 康津 淨水寺 약사불좌상 대좌묵서명(1648년)¹⁶⁹⁾

天蓋山雙溪寺 順治五年戊子五月日成 證明 普齊 持殿 懷卞 畫員 勝日 性照 戒贊 智安 天學 戒明 勸化香淋 住持 三綱 別座 智英 供養主 性訥 玉晶

④ 제주 삼광사 목조보살좌상(1671년)

畫員 應慧比丘 戒贊比丘

⑤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좌상(1671년)

畫員 應慧比丘 戒贊比丘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이 보살상은 제주시 아라동 觀音寺에 소장되어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으로 ‘康熙三十七年戊寅九月二十二日點眼 靈岩郡成道菴改金 海南郡大興寺南菴奉安’의 발원문이 발표되어 제작연대가 1698년임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은 色難 등이 성도암에서 개금하여 해남군 대흥사 남암에 봉안했던 것으로 1925년에 제

167) 송은석. 앞의 논문. p. 480.

168) 송은석 앞의 논문. p. 489.

169) 최인선. 康津 淨水寺 약사불좌상 대좌묵서명.

주도불교포교당으로 이운하였다.

色難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彫刻僧이다. 수화승으로 1680년에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광주 덕림사 봉안)을, 1684년에 전남 강진 정수사 나한전 목조불좌상(강진 옥림사 봉안)을, 1685년에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 소장 목조석가삼존불감을, 1693년에 전남 구례 천은사 웅진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을, 1694년에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을 제작하였다. 1698년에 제주 觀音寺 목조관음보살좌상을 개금하고, 1699년에 개인소장 목조불감을, 1700년에 전남 해남 성도암 나한상(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영암 축성암 소장)을, 1701년에 전남 해남 대흥사 웅진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을, 1703년에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불·사보살상 중 석가와 관음보살좌상을, 1707년에 전남 고흥 능가사 소조불상을, 1709년에 전남 고흥 금탑사 목조보살좌상(고흥 송광암 소장)을 제작하였다. 1685년에 능가사 불상 제작시부터 통정대부로 언급되었으며, 1698년에 전남 고흥 능가사 범종과 1711년에 전남 고흥 능가사 변와 및 1730년에 전남 곡성 서산사 소장 범종 제작에 시주자로 참여하였다. 그는 화엄사 각황전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의하면 팔영산사문으로 나와 있다.¹⁷⁰⁾

色難의 출가 지역은 능가사인데 능가사 범종(1698년) 조성의 두 번째 시주자로 通政이라는 품계가 적혀 있으며, 18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능가사 사적비에는 嘉善이라는 품계를 가지고 있어 그가 능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¹⁾ 또한 정수사 나한전 불상(1684년)을 제작할 때 上工으로 표현되어 있어 최소한 이 시기부터 조각장으로 제작 집단을 이끌었다면 1660년대부터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며¹⁷²⁾, 화엄사 각황전 칠존불상을 제작할 당시에는 50~60대로 말년작일 가능성이 높다.

170) 최선일. (2007). 조선 후기 승장 인명사전-불교조각. 도서출판 양사재. pp. 67-68.

171) 최선일 앞의 논문. p. 59.

172) 오진희. (2006). 彫刻僧 色難派와 화엄사각황전 칠존불상. 미술사의 작가와 유파 I. 조각·건축·공예 편. 한국미술사연구소. pp. 131-135.

표 22 色難 불상조각의 예

순	상명	조성 연대	작가	지역
1	영봉사 지장십존, 십왕	1680년	수공 色難 道軒 冲玉, 慕賢, 得牛, 楚卞	화순
2	정수사 나한전 석가불, 아난·가섭, 16나한	1684년	上工 色難, 副工 道軒, 次工 行坦, 慕賢, 楚卞, 雄遠, 哲玉, 道見, 文印	강진
3	능가사 석가삼존, 아난, 가섭, 16나한, 시자	1685년	金魚 首 色難, 道軒, 雄遠, 楚卞, 文印, 幸坦	고흥
4	천은사 응진전 석가, 아난·가섭, 16나한	1693년	色難, 幸坦, 得牛, 雄遠, 文印, 執森, 秋鵬, 秋評	구례
5	쌍봉사 대웅전 석가, 아난·가섭, 극락전 아미타삼존	1694년	色難, 慕賢, 得牛, 雄遠, 執森, 秋鵬, 秋評	화순
6	성도암 보살좌상(제주관음사 봉안) 개금	1698년	色難	해남
7	상도암 석가삼존, 아난·가섭, 16나한	1700년	色難, 一機, 慕賢, 秋鵬, 秋評	해남
8	화엄사 각황전 석가, 다보, 아미타, 문수, 보현, 지적, 관음 화엄사 원통전	1703년	色難, 冲玉, 一機, 雄遠, 秋鵬, 順瑗, 幸坦, 勝梅, 初卞, 覺初, 道還, 道堅, 德希, 法融, 大裕, 進聰, 定惠, 進一, 善覺, 澄海, 瑞行, 仁陟, 夏天	구례
9	능가사 소조불	1707년	造妙工 通政 色難, 幸坦, 通政 雄元, 一機, 夏天	고흥
10	금담사 목조보살좌상	1709년	造像片手 通政 色難, 雄元, 夏天	고흥

色難이 제작한 불상은 대부분 각이 진 얼굴형에 눈두덩이가 두꺼워지면서 편안한 인상을 주고 있다.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은 가슴까지 완만하게 펼쳐져 있고, 그 뒤로 세 겹으로 접힌 주름이 단을 이루면서 끝부분이 U형을 이루는 것이 거의 동일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대의 형태는 雲惠가 쌍봉사 불상(1667년)과 유사하지만, 더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처리되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이 결가부좌한 양다리 밑으로 늘어져 대좌 중앙부터 양쪽으로 펼쳐져 있고, 왼쪽다리 복숭아뼈부터 세 줄의 대의 주름이 규칙적으로 늘어져 있다. 소매자락이 왼쪽 무릎을 완전히 덮어 蓮瓣形으로 처리되었다. 또한 色難

이 제작한 불상은 대의 안쪽에 입은 僧脚崎를 가슴까지 올려 묶어 상단이 다섯 개의 仰蓮形으로 표현되어 있다.¹⁷³⁾

色難派 불상의 도상 특징을 살펴보면 머리에는 육계가 거의 없고 다소 큼직한 중심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표현되어 있으며 나발이 촌촌하게 표현되어 있다. 사각형으로 보이는 얼굴에 가는 눈, 오뚝한 코, 작은 입 등 무표정한 얼굴에 묘한 미소를 머금고 있어 조선 후기 불상들과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상체는 얼굴처럼 사각형으로 평판적이지만 어깨는 둥글고 가슴을 넓게 표현하였으며 우람한 상체에 비해 하체는 약하게 표현하였다. 불상의 의습 표현은 오른쪽 어깨를 덮는 대의 자락이 가슴 밑까지 내려와 거의 90도로 꺾여 있으며 어깨 주름이 층단을 이루고 있다. 불의는 배부분에서 U자형으로 터지게 표현하였는데 상의와 대의를 U자형으로 동일하게 겹쳐 입는 의습 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공통되게 나타나는 의습 표현은 군의 상단 부분에 5개의 연판형 주름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체의 옷주름 표현은 올려진 오른쪽 발목에서 한번 반전되어 접혀 있으며 발목에서부터 주름이 밑으로 늘어져 물결치듯이 퍼져 있는데 오른쪽 어깨의 주름 표현과 대칭되는 층단을 이루고 있다. 色難派 조각의 대부분은 오른쪽 무릎을 완전히 덮는 연판형 주름이 나타난다.

色難派는 17세기 후반부터 유파를 이루어 불상을 조성하였으며 그의 문하에는 楚卞, 沖玉, 夏天 등 18세기초 전라도 일대에서 활약한 수화사들이 배출되었다.

표 23 色難의 계보에 속하는 彫刻僧

승명	활동연대	활동사항
忠玉 沖玉 沖玉	1668 -1703	1668년 전남 고흥 금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 개금(首書僧 天信)
		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제작 (광주 덕림사: 首書僧 色難)
		1684년 전남 순천 송광사 불조전과 화엄전 불상 제작(首書僧)

173) 최선일, (2006).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 106.

		<p>1690년 전남 곡성 도림사 목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제작(首畵僧)</p> <p>1699년 개인 소장 목조불감 제작(首畵僧 色難)</p> <p>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 관음보살좌상 제작 (首畵僧 色難)</p>
楚卞 楚汴	1680 -1706	<p>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사좌상과 시왕상 제작 (광주 덕림사: 首畵僧 色難)</p> <p>1684년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불좌상과 나한상 제작 (전남 강진 옥련사와 정수사 봉안: 首畵僧 色難)</p> <p>1684년 전남 순천 송광사 불조전과 화엄전 불상 제작(首畵僧 忠玉)</p> <p>1685년 전남 고흥 능가사 십육나한상 제작(首畵僧 色難)</p> <p>1690년 전남 곡성 도림사 목조지장삼존상과 시왕상 제작(首畵僧 忠玉)</p> <p>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 관음보사좌상 제작 (首畵僧 色難)</p> <p>1706년 전남 영광 불갑사 목조석가삼존불상과 나한상 제작(首畵僧)</p>
一機	1698 -1720	<p>1698년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관음보살좌상 개금 (제주 觀音寺: 首畵僧 色難)</p> <p>1699년 개인 소장 목조불감 제작(首畵僧 色難)</p> <p>1700년 전남 해남 成道菴 나한상 조성(首畵僧 色難)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영암 축성암: 首畵僧 色難)</p> <p>1703년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 목조삼세불·사보살상, 관음보사좌상 제작 (首畵僧 色難)</p>
慕賢	1680 -1698	<p>1680년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사좌상과 시왕상 제작 (광주 덕림사: 首畵僧 色難)</p> <p>1684년 전남 강진 정수사 목조석가불좌상과 나한상 제작 (전남 강진 옥련사와 정수사 봉안: 首畵僧 色難)</p> <p>1685년 전남 고흥 능가사 십육나한상 제작(首畵僧 色難)</p> <p>1694년 전남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불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 제작 (首畵僧 色難)</p> <p>1698년 전남 해남 成道菴 목조관음보살좌상 개금 (제주 觀音寺:</p>

		首畫僧 色難)
--	--	---------

觀音寺 목조관음보살좌상의 개금불사에 참여한 또 다른 彫刻僧으로 一機가 있다. 一機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전라도에서 활동한 彫刻僧이다. 18세기 전반 구례 화엄사 각황전 불상 제작시 능가사 사문으로 언급되어 있다.¹⁷⁴⁾

표 24 一機의 불상조각의 예

순	상명	조성 연대	작가	지역
1	성도암 석가삼존, 아난·가섭, 16나한	1700년	色難, 一機, 慕賢, 秋鵬, 秋評	화순
2	화엄사 각황전 석가, 다보, 아미타, 문수, 보현, 지적, 관음 화엄 사 원통전	1703년	色難, 冲玉, 一機, 雄遠, 秋鵬, 順瑗, 幸坦, 勝梅, 初卞, 覺初, 道還, 道堅, 德希, 法融, 大裕, 進聰, 定惠, 進一, 善覺, 澄海, 瑞行, 仁陟, 夏天	강진
3	능가사 소조불	1707년	造妙工 通政 色難, 幸坦, 通政 雄元, 一機, 夏天	고흥

5.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이 불상은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용문사에 소장되어 있는 목조석가여래좌상으로 복장에서 발원문과 후령통, 陀羅尼, 불경 등이 발견되었다. 발원문에 의하면 불상은 嘉善 性還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발원하고, 화원 進悅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불상의 조성시기와 봉안처는 발원문에 나오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조각승 進悅이 활동 기간이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1695년에서 1722년에 걸쳐 있으므로 18세기 전반경에 이 불상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 봉안처는 알 수 없지만 進悅이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174) 최선일. (2007). 조선후기 승장 인명사전-불교조각. p. 142.

활동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초의 봉안처 역시 전라도 지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가 43cm로, 어깨에 비하여 얼굴이 크고, 대의 안쪽에 편삼을 걸치지 않았으며,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에서 가슴까지 길게 늘어져 끝부분이 U자형을 이루고 있다.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은 전형적인 조선 후기 불상과 달리 중앙의 두 번째 주름이 배 부분에서 직선으로 내려와 있고, 가장자리의 옷주름 안쪽에 가느다랗게 주름이 표현되었다. 進悅이 제작한 불상의 대의 안쪽에 입은 僧脚崎는 모두 수평이나 사선으로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進悅은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彫刻僧이다. 수화승 지현과 경북 상주 북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사좌상과 시왕상(1688년)을, 수화승 성심과 전북 홍양 백련사 목조가섭존자상과 아난존자상과 십육나한상(전주 서고사 봉안)(1695년)을 제작하고, 수화승으로 경기 고양 노적사 목조아미타불삼존불상(고양 상운사 봉안)(1713년)을 제작하였다. 수화승으로 전남 남평 운흥사 목조지장보살상과 시왕상(목포 달성사 봉안) 중수(1719년)와 수화승으로 부산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1722년)을 제작하였다.¹⁷⁵⁾

進悅이 조성한 곡성 서산사 보살상(1706년)과 상운사 불상(1713년)의 인상은 얼굴형과 이목구비가 유사하지만 제주 용문사 불상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아직 進悅이 제작한 불상이 3구 밖에 되지 않아 용문사 불상의 제작 시기를 추정할 수 없지만, 현존하는 불상에서는 부드러운 인상에서 경직된 인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아 얼굴의 표정에서도 도식화 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산사 보살상과 상운사 불상(1713년)이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17세기 중·후반의 熙藏이나 色難이 제작한 불상보다도 더 도식화되어 가슴까지 대의자락이 긴 물방울 모양으로 늘어져 있고 끝부분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용문사 불상이 끝부분에서 변화된 옷주름 처리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의 표현을 한 용문사 불상은 태백 장명사 목조불좌상, 순창 대모암 목조불좌상, 고양 흥국사 목조불좌상 등에서 볼 수 있어 進悅이나 그 계보 조각승에 의하여 18세기 전반에 제작한 것으로 추

175) 최선일, (2007). 조선 후기 승장 인명사전-불교조각, pp. 158-159.

정된다.

進悅이 조성한 이들 상의 특징은 17세기 후반에 제작된 불상에 비하여 어깨가 좁아져 얼굴이 강조되고,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복부까지 긴 물방울처럼 U자형으로 늘어져 있으며, 하반신을 덮은 대의의 안쪽 자락이 S자로 펼쳐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상계주가 정면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낮고 백호가 크며, 군의가 양련형이 아니라 일자형이란 점이다.

또한 進悅이 제작한 불상은 하반신을 덮은 대의자락이 제작시기마다 차이를 가진다. 곡성 대은암 보살상(1706년)에서는 배 부분에서 내려온 두 번째 옷주름이 넓게 펼쳐져 있고, 가장 안쪽의 옷주름이 S자형으로 펼쳐져 있지만, 상운사 불상(1713년)에서는 色難이 제작한 불상과 같은 대의 표현을 볼 수 있다. 또 용문사 불상에서는 가운데 늘어진 대의자락이 윗부분이 좁고 아랫부분이 넓게 펼쳐지고, 왼쪽 무릎을 덮은 소매자락은 사선으로 길게 늘어져 끝자락이 뽕족하게 표현된 것은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熙藏과 寶海가 제작한 불상과 유사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하여 自修→性沈→進悅로 이어지는 사제관계를 밝힐 수 있다.

그리고 進悅은 불상의 대의 표현에서 기존 조사된 4구의 불상이 모두 다른 특징을 가져 다양한 조각수법을 추구하였던 彫刻僧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용문사 봉안 불상은 얼굴 표현과 대의 표현에서 進悅이 제작한 다른 불상보다 앞선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⁷⁶⁾

進悅派에 속하는 彫刻僧은 18세기를 대표하는 彫刻僧 계보이다. 進悅이 어느 계보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 현재 알 수 없지만 그의 스승인 自修와 같은 불상을 제작한 雲坦이 無染派에 속하는 敬性和 불상을 제작하여 무염파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進悅이 활동하던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같은 지역인 전라북도에 色難派의 주요 彫刻僧인 一機가 활동하여 양자간에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進悅은 이 시기 활동한 彫刻僧과 달리 불상의 형태가 다양한데, 熙藏이나 色難이 제작한 불상의 세부 표현을 따르면서도 하반신을 덮은 옷주름이 S자형으로 펼쳐진 형태는 進悅의 새로운 대의 표현이다. 進悅

176) 최선일, (2006).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p. 174.

의 제자 尙淨은 進悅이 제작한 불상 양식을 따르면서 대의자락 사이사이에 연봉우리가 튀어나오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표현도 계심이 제작한 불상에서 그대로 표현되었다.

6.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이 불상은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사에 소장되어 있는 석조여래좌상이다. 복장에서 발원문과 후령통, 陀羅尼가 발견되어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졌다. 발원문은 비록 짧은 글이지만 조성연대, 원봉안처, 불상명, 불상조성 동기, 조각장, 시주자 등을 모두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불상의 명칭은 發願文에 ‘第三毗舍浮佛’이라 하여 그 존명이 정확하게 나타나있으며, 뒷면에 “七佞三”이라 하여 과거칠불 가운데 제3불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조성 동기는 이 불상을 조성한 공덕이 일체중생에게 보급되고, 모두가 다 무량수불을 친견하고 함께 佛道を 이루고자 하였다.

과거칠불은 석존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일곱 부처님으로 비바시불(毘婆尸佛), 시기불(尸棄佛), 비사부불(毘舍浮佛), 구류손불(拘留孫佛), 구나함모니불(俱那含牟尼佛), 가엽불(迦葉佛),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등이며, 앞의 3불을 과거장엄겁(過去莊嚴劫)의 3불이라 하고 뒤의 4불을 현재현겁(現在現劫)의 4불이라 한다.

과거칠불 관련 사상은 불교사 초기부터 보이고 있으나 석가 이전의 여섯 부처의 경우 그 실재성이 분명하지 않고 전기도 석가의 그것과 비슷하다.¹⁷⁷⁾ 조선시대의 과거칠불 가운데 유명한 불상은 선암사 불조전의 중앙에 있는 목조 과거칠불¹⁷⁸⁾을 들 수 있다.

이 불상의 명칭은 發願文에 第三毗舍浮佛이라 하여 그 존명이 정확하게 나타나며, 뒷면에 “七佞三”이라 하여 과거칠불 가운데 제3불이었다는 사실을 강

177) 구노미키 저, 최성은 옮김. (2001). 중국의 불교미술. 시공사. p. 139.

178) 崔仁善. 佛像. 仙巖寺. 昇州郡·南道佛教文化研究會. p. 109.

조하고 있다.

毗舍浮佛은 과거칠불의 제3으로 비습바부(毘濕婆部), 비서바부(毘舍婆附), 비사부(毘舍符), 비사바(毘舍婆), 수엽(隨葉)이라고도 쓰며, 일체승(一切勝), 변일체(遍一切), 일체유(一切有)라 번역한다. 과거 31겁, 사람의 목숨 6만세 때에 無喩城에서 출생하였으며, 種姓은 찰데리, 姓은 구리야(狗利若), 父는 善燈, 母는 稱戒, 외아들은 妙覺, 바라(婆羅)나무 아래에서 成道하여 2회의 설법을 하였는데 1회 7만인, 2회 6만인을 제도하였다고 한다.¹⁷⁹⁾

그러므로 이 불상의 명칭은 과거칠불 가운데 3번째의 毘舍浮佛이다.

발원문에 ‘康熙四十一歲次壬午年 五月二十日畢功 全羅左道 順天 北嶺 桐裡山 大興寺’이라 하여 정확한 조성시기와 봉안처를 알려 주고 있다. 강희 41 임오년은 조선 숙종 28년(1702년)으로 봉안처는 순천 대흥사이며 조각승은 守日이다.

守日은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彫刻僧이다. 수화승으로 1675년에 대구 달성 소재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석조시왕상을, 1695년에 전남 장흥 보림사 고법당 삼존불상을, 1703년에 와룡산 심적암 목조삼존불상을, 1707년에 전남 장흥 보림사 신법당 칠존불을, 1730년에 전남 장흥 보림사 고법당 삼존불상을 개금하였다.¹⁸⁰⁾ 와룡산 심적암 목조삼존불상은 현재 경남 거제시 세진암에 봉안되어 있다. 1991년 세진암의 목조삼존불상 개금불사 당시 양협시에서 발원문이 발견되었는데 ‘1703년 옥산성지 아래 와룡산 심적암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守日과 18세기 초의 熙藏은 유사한 불상을 조상하고 있다.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무릎 부분의 대의자락은 熙藏과 進悅의 불상에서 보았던 형태에서 약간 단순화된 모습이다. 넓은 하반신으로 안정감을 추구한 점은 회장의 불상에서 보았던 느낌을 전해준다. 이들 守日과 進悅의 불상은 부분적으로는 熙藏의 작품과는 다르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熙藏의 영향이 크다. 현재 정방사의 石造如來坐像, 남원 극락암의 石造無量音聲王佛坐像, 남원 용담사 石造佛坐像 등이 守日의 작품으로 여러 사찰에 봉안되어 있는데 熙藏派의 작품 특징을

179) 耘虛龍夏. (1984). 佛教辭典. 東國譯經. p. 345.

180) 최선일. (2007). 조선후기 승장 인명사전-불교조각. p. 88.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守日과 熙藏의 관계는 아직까지 腹藏發願文 등을 통해 사승 관계가 밝혀져 있지는 않다.¹⁸¹⁾

최근에 彫刻僧에 대한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가고 있으므로 守日에 관한 자료가 더 확보되어 그 계보라든가 조각상의 특징 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181) 송은석, (2006), 조선후기 17세기 彫刻僧 熙藏과 熙藏派의 조상, 태동고전연구 제22집, p 192.

제4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에서 발견된 조선 후기 불상 중에서 발원문을 통해서 제작연대가 정확하게 밝혀진 16-17세기 불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제주에 불교가 언제 전래되고 사찰은 어느 때부터 건립되었는지 이에 대해 소상하게 전해주는 기록은 없다. 백제, 신라부터 대륙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문물교류가 있었음을 문헌상으로 알 수 있고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건립되었으며 佛書가 개간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가 제주지역에 토착화되지 않았나 추정될 뿐이다.

불교의 흔적이 제주에서 처음 확인되는 것은 고려 정종 원년(1034년) 이후부터 불교행사인 팔관회에 참석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사찰유적으로는 법화사지 발굴 조사시 기와 조각이 발견되었는데 ‘至元六年己巳始重創 十六年己卯畢’이란 내용으로 至元 6년 즉, 고려 원종 10년(1269년, 己巳)에 중창을 시작하여 16년 즉, 충렬왕(1279년, 己卯)에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로 보아 고종 16년(1229년) 경에는 이미 사찰이 있었을 것이다. 제주 여러 지역에 산재한 水精寺, 妙蓮寺, 불탑사, 元堂寺, 尊者庵 등 크고 작은 사찰을 통하여 제주의 불교신앙이 뿌리깊게 내려졌다.

조선초에 편찬된 東國輿地勝覽에서 ‘제주목에는 尊者庵, 水精寺, 妙蓮寺, 해륜사, 만수사, 정의현에는 성불암, 영천사, 대정현에는 법화사 등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변협, 곽흠, 이형상 목사 이후부터 폐사가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를 제주불교사에서 무불교시대라고 일컫고 있다.

제주의 근대 불교는 1908년 안봉려관 스님에 의하여 관음사의 창건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2007년 현재 제주도에 있는 사찰수는 254개소이며 정보문화재는 286건 751점이다.

제주에서 발견된 불상 중 복장물이 발견되어 조성 연대가 확실한 불상은 6

구로 1534년에 조성된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을 시작으로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61년), 삼광사 목조보살좌상(1671년),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98년 개금),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1700년?), 정방사 석조여래좌상(1702년)이다.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은 16세기 중반인 1534년에 彫刻僧 香嚴이 조성한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으로 복장물로는 發願文, 喉鈴筒, 사리, 오방경, 팔엽대홍련 등이 발견되었다. 이 보살상은 왼쪽 어깨에서 상박을 덮으며 팔꿈치쪽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진 대의 자락의 끝이 말려진 모양의 옷주름을 만들었는데 이같은 주름은 15세기에는 약간 위쪽에 크고 모나게 표현하였다. 제주 서산사와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반가좌상 發願文에서 香嚴과 5명의 보조 화원 이름이 발견된다. 香嚴은 수화사로 補助 彫刻僧을 데리고 작업했다는 점에서 彫刻僧 또는 조각승 유파의 존재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香嚴은 나주를 중심으로 한 전라남도 지역에서 유파를 형성하여 활동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1661년 彫刻僧 雲惠가 조성한 상으로 복장물로는 發願文, 喉鈴筒, 오보병, 오방경, 圓覺經, 陀羅尼 등이 발견되었다. 이 상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신체비례를 보여주고 있다. 상호는 사각형이며 결가부좌한 무릎 앞으로 넓게 퍼진 옷자락 등에서 조선 후기 불상의 양식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雲惠의 옷주름 특징은 오른쪽 어깨 하부, 두 다리 사이, 왼쪽 무릎에 잘 나타나 있다. 오른쪽 어깨 아래에는 어깨로부터 수직으로 내려진 대의 자락이 3-4개의 주름을 이루며 수평으로 상박부 쪽으로 이어져 있으며, 두 다리 사이의 옷주름은 중앙에 오메가 모양의 주름을 중심으로 물결 모양으로 좌우로 퍼져 나가며 왼쪽 무릎에는 꽃처럼 넓적한 옷자락이 조각되어 있다.

삼광사 목조보살좌상은 1671년 彫刻僧 應慧가 조성한 상으로 복장물로는 發願文, 喉鈴筒, 陀羅尼가 발견되었다. 應慧가 조성한 상은 모두 높이가 40-80cm 가량의 소형불이다. 신체는 당당한 편이며 무릎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자세이다. 상호는 턱선이 둥근 장방형이고 양감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수인은 양손을 모두 무릎에 닿을 정도로 내려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중품하생인을 선호하고 있다. 법의는 통견으로 두 어깨 위에서 발아래에 이르기까지 유려하게 흘러내렸다. 또한 보살상의 僧脚崎는 띠매듭이 없는 일자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삼광사, 일심사, 무등암의 보살상은 상과 대좌를 하나의 나무로 만든 점이 특징이고 대좌까지 대의가 흘러내려서 소형불의 중량감을 더해주고 있다.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698년 彫刻僧 色難 등에 의해서 개금된 불상으로 복장물로는 發願文과 改金發願文이 발견되었다. 色難의 조성한 불상의 특징으로 얼굴의 전체적인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양감이 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다. 상호는 크고 넓적하며 중앙에 코가 우뚝 솟아 있으며 어깨가 넓으며 상반신이 짧아 전체적으로 건강하면서도 당당한 몸체를 가지고 있다. 상체에 비례하여 하체의 두께가 두껍고 무릎폭은 상대적으로 좁다. 옷주름은 전반적으로 매우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며, 왼쪽 무릎에 나타나 있는 나뭇잎 모양의 대의 자락도 정갈하게 마무리되어 있다.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700년경 彫刻僧 進悅이 조성된 상으로 복장물로는 發願文, 喉鈴筒, 陀羅尼, 불경 등이 발견되었다. 進悅이 조성한 불상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둥글며 옷주름의 선도 매우 유려하다. 특히 어깨가 좁아지면서 양감이 강조된 얼굴이다. 대의는 양쪽 팔꿈치 부분에서 나뭇잎 모양으로 접혀진 부분이 왼쪽 무릎 아래로는 나뭇잎 형태로 남아 있다.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자락이 복부까지 긴 물방울처럼 U자형으로 늘어져 있으며, 하반신을 덮은 대의의 안쪽 자락이 S자로 펼쳐져 있다.

정방사 석조여래좌상은 1702년 彫刻僧 守日이 조성한 상으로 복장물로는 發願文, 喉鈴筒, 陀羅尼 등이 발견되었다. 守日이 조성한 불상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에 가깝고 길고 날카로운 눈과 굳게 다문 입 등 엄숙단정하다. 대의 안쪽에 입은 僧脚崎는 사선으로 접어 간략하게 처리하였고 오른쪽 가슴 부위와 왼쪽 무릎 부분의 대의자락은 약간 단순화된 모습이다. 넓은 하반신으로 안정감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불·보살상이 종교적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매개체로 복장물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복장에는 發願文, 전적, 사경, 陀羅尼, 복식, 직물 등의 물목이 安立되어 있어 당시의 문화를 살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장 물목을 통하여 조성연대와 사찰, 彫刻僧도 알 수 있다. 불상에 있어 복장물이 가지는 의미는 상징적인 복장물을 넣어 불교미술의 단순한 감상

의 대상물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조사된 기년명 불상 복장물들은 많이 생략되고 있다. 많은 것이 변질되어 확실히 무엇인가를 알기 어렵고 이미 개봉되어 있어 발원문과 陀羅尼 외에는 복장물이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남아 있는 喉鈴筒의 형태나 내부를 보면 造像經의 내용을 어느 정도 따르려고 애쓴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있다.

발원문을 살펴보면 불상 조성은 천민들을 포함한 순수한 민생들의 시주와 승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처의 공덕이 국가 태평과 민생의 편안함을 기원하고 중생들을 불교에 귀의시키려는 승려들의 노력과 개인적인 신앙심의 순수한 열정이 불상조성을 통하여 염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성 당시 봉안 장소가 아닌 옮겨진 곳으로 보아도 조선 후기 사찰의 폐허와 불교의 어려움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불상 조성과 제작년도, 불보살 명칭, 봉안사찰과 전각 등을 기록한 다음 왕과 왕비, 왕세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연화질과 시주질을 나열하는 등의 전체적인 서식을 일반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과 정방사 석조여래좌상은 봉안처 및 왕과 왕비, 왕세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 등에 대한 기술이 생략되어 있다. 서식이나 서체 등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발원문 기록자 한 사람에게 의해 일정한 서식을 취하여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규칙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서체 또한 일정하다. 불상조성에 참여하는 작가의 경우도 모두 승려 계층으로 일반화되었고 많은 개별 시주자와 불상 조성과 관련된 기록, 대시주자, 스님 등이 기술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전기의 복장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문구가 6개의 발원문에 모두 표현되어 17세기에 형식화되었다는 점은 불교에 유교의 충효사상이 융화되어 유교적 정치체계가 뿌리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세기 초반 성립한 조각승 유파는 각각 일정한 지역과 인원으로 이루어졌다. 각 유파는 1610-1630년 사이에 기본적인 인적구성을 하였다. 유파 내부의 조각승들은 각 유파의 수장들이 만들어낸 조각 양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유파간의 공동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주의 기년명 불상의 조각승들은 16세기 조각승 유파의 존재 가능성을 말해주는 香嚴

과 17세기 후반에는 雲惠와 應慧가, 17세기말에는 色難과 進悅 등이 유과를 이끌어 불상을 조성하였다. 應慧와 色難이 조성한 불상의 양식은 매우 유사하며 능가사를 중심으로 교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進悅과 守日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회장 작품과 유사하다.

제주에서 발견된 불상은 모두 소형이고 대부분 전라도에서 활동한 彫刻僧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봉안처 또한 모두 전라도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제주의 근대불교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도 사찰의 포교당으로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전라도의 사찰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형인 이유는 타지 사찰에 봉안되었던 불상이 제주로 옮겨오려면 불상의 크기가 작아야 운반이 쉽기 때문이다. 또한 삼광사 목조보살좌상과 같이 조성된 불상이 전남 신안 일심사에 소장되어 있고 정방사 석조여래좌상과 같이 조성된 불상이 전남 벌교 용연사에서 조사된 것이 큰 수확이며, 앞으로 전라도 지방의 사찰에서 제주 지방 불상과 같은 계열이 계속 발견되리라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1. 史書類

三國史記

三國遺事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書

舊唐書

南溟小乘

唐會要

造像經

耽羅誌

韓國佛教全書

韓國寺刹全書 上, 下

全羅南道寺刹史料集

瓶窩集

退耕堂全書

2. 단행본

강우방. (1999). 불교조각 2: 통일신라 · 고려 · 조선시대. 솔.

고교형. (1929). 이조불교. 보문관.

고정종 편. (1930). 제주도편람.

고창석. (2007). 제주역사연구. 제주: 도서출판 세림.

- 곽동석. (2000). 금동불. 예경.
- 구노미키 저, 최성은 옮김. (2001). 중국의 불교미술. 시공사.
- 국립광주박물관. (2003). 곡성군의 불교유적.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掛佛 - 調查報告書Ⅱ.
- 국립전주박물관. (2001). 전라북도의 불교유적-불상·탑·석조불 편.
- 국립제주박물관. (2005).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 권상노. (1917). 조선불교략사.
- 길상. (1998). 불교인사전 상, 하. 흥법원.
- 김봉렬. (2004). 불교건축. 숲.
- 김봉옥. (1987).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 김상현. (1995). 조선불교사화. 한국불교사 산책. 우리출판사.
- 김영태. (1976). 한국불교사연표. 신흥출판사.
- 김용조. (1993). 허응당 보우대사 연구. 보우사상연구회.
- 김일우. (2000).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도서출판 신서원.
- 김정희. (1996).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 김찬흠 편저. (2000).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 김창화 외. (2004). 제주의 폐사지. 제주도.
- 김창화 외. (2008). 제주 불교문화재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 대둔사지간행위원회. (1997). 대둔사지.
- 대한불교조계종. (1999).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조계종출판사.
- 대한불교조계종. (2004).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제주도편.
- 문명대. (1997). 한국불교미술사. 한국언론간행위원회.
- 문명대. (1997). 한국불교미술의 형식. 한국언론간행위원회.
- 문명대. (2000). 한국미술사방법론. 열화당미술책방.
- 문화재청. (2003).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 자료집.
- 문화재청. (2006). 한국의 사찰문화재-광주광역시·전라남도 자료집 I, II, III.
- 사찰문화연구원. (1997). 전통사찰총서.
- 서귀포시. (2006). 법화사지.
- 성춘경. (1999). 전남 불교미술 연구. 학연문화사.

- 小林一郎・이능화 저, 이법화 역. (1969). 불교홍통사. 불교교단 영산법화사출판부.
- 안계현. (1982). 한국불교사연구.
- 우정상・김영태. (1969). 한국불교사. 진수당.
- 윤희순. (1994). 조선불교사 연구. 동문선.
- 이계표. 白羊寺의 역사. 불교문화연구 제6집. 南道佛教文化研究會.
- 장보고 무역선단과 제주도. (2004). 제1회 제주해양포럼.
- 장충식. (2004). 한국불교미술연구. 시공사.
- 정광호. (1994). 근대 한일 불교관계사연구. 인하대학교출판부.
- 정병삼. (1998). 진경시대 불교의 진흥과 불교문화의 발전. 진경시대. 돌베개.
- 제주도. (1993). 제주도지 1권.
- 제주도. (2000). 문화예술현황.
- 제주도. (2003). 문화예술현황.
- 제주도. (2007). 문화예술현황.
- 제주도청. (1939, 소화 14년). 제주도세요람.
-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 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 (1998). 탐라, 역사와 문화.
- 제주시. (2000). 수정사지. 제주대학교박물관.
- 제주연감사. (1969). 제주연감.
- 제주연감사. (1977). 제주연감.
- 조명기. (1962). 寶篋印陀羅尼經. 考古美術 3卷 6號.
- 진홍섭(1980). 한국의 불상. 一志社.
- 최선일. (2007). 조선후기승장인명사전-불상조각-. 서울: 도서출판 양사재.
- 최완수. (1994). 명찰순례. 대원사.
-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1996). 완주 송광사. 신양사.
- 한국사연구회. (1994). 한국사 연구 입문. 지식산업사.
- 韓國學文獻研究所編. (1983). 金山寺誌 逍遙堂大師碑銘. 亞細亞文化社.
- 韓國學文獻研究所編. (1997). 金剛大本山 楡岾寺本末寺誌. 亞細亞文化社刊.
- 한국학문헌연구소편. 楡岾寺本末寺誌. 深源寺 寶盖山深源寺翠雲堂大師碑銘并序.
- 향토지리연구소. (2003). 순천 월등-월등면 향토지. 순천월등면지편찬위원회.

황선명. (1992). 조선조 종교 사회 연구. 일지사.

홍윤식. (1988). 불불상·불화에 있어서 불복장의 의미. 한국불교사 연구. 교문사.

3. 논문

강영철. (2002). 18세기말-19세기초 경기지역 首畫僧 고찰 - 楊州牧·水原府 首畫僧들의 畫籍을 중심으로. 東岳美術史學 - 瓦本 金東賢博士 停年紀念論叢 3. 동악미술사학회.

강인구. (1975).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 유물. 미술자료 제18호.

강창화. (2000). 제주 법화사지의 고고학적 연구. 제주도사연구 9. 제주도사연구회.

곽동석. (2001). 전북지역 불교미술의 흐름과 특성. 전라북도의 불교유적. 국립전주박물관.

김덕수. (1992). 조선 후기의 부역승군. 임진왜란과 불교의승군. 수군본부군종감실.

김동전. (1997). 法華寺의 역사적 배경. 법화사지. 제주대학교박물관조사보고 19집.

김리나. (1982).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조선시대 가섭존자상. 미술자료 33.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김일우. (2002). 고려 후기 제주 법화사의 중창과 그 위상. 한국사연구회 119호.

남권희. (2004). 불복장과 안립물.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 수덕사 근역성보관.

남도영. (1980). 한국 사원교육제도(중). 역사교육 28.

노명신. (1994). 조선 후기 사천왕상에 대한 고찰. 미술사학연구 202.

문명대. (1969). 홍성 서산사 불상의 복장조사. 고고미술 제9권.

문명대. (1980). 朝鮮朝(17世紀 2/4分期) 木阿彌陀三尊佛龕의 한 考察. 考古美術 146·147.

문명대. (1985). 지방문화재 제주 법화사 복원을 위한 학술 세미나 요지. 서귀포·법화사복원추진위원회.

문명대. (2003). 무염파(無染派) 목불상의 조성과 설악산 신흥사(新興寺) 목아미타삼존불상. 고려·조선 불교미술사연구 : 三昧와 平淡美-한국의 불

상 4. 예경.

- 문명대. (2003). 인성과 목불상의 조성과 도선사 목아미타삼존불상의 고찰. 정보 5. 대한불교조계종 정보보존위원회.
- 문명대. (2006). 조각승 무염, 도우파 불상조각의 연구. 혜사 문명대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논문집. 미술사의 각가와 유파(I 조각·건축·공예 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문명대. (2008). 선운사 대웅보전 무염 작 비로자나삼불상. 강좌 미술사 30. 한국불교 미술사학회.
- 문현순. (1988). 高麗時代 末期 金銅佛龕의 研究. 考古美術 179.
- 민영규. (1996). 장곡사 고려칠불 복장유물. 인문과학 제14-15합집.
- 박경원·정원경. (1983). 영태 2년명 납석제호. 부산시립박물관 연보 6
- 박상국. (1984). 상원사 복장발원문과 복장전적에 대하여. 한국불교학 9.
- 박상국. (1990).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경전에 대하여 상. 서지학 창간호.
- 박상국. (1990). 기림사 비로자나불상 복장경전에 대하여 하. 서지학 2.
- 배병선. (1991). 다포계 맞배집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석주선. (1979). 고려 무량수여래의 복장유물. 박물관신문 90.
- 성보문화재연구원. (1977).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 성춘경. (1999). 조선시대 17세기 목조불상에 대하여-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11. 12. 13.
- 성춘경. (2000). 달성사 목조 지장보살 및 아미타삼존불. 문화사학 14.
- 손영문. (2006). 조각승 인균파의 불상조각 연구. 강좌 미술사 26. 미술사의 각가와 유파 I.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손영문. (2007). 彫刻僧 應惠派 佛像彫刻의 研究-潭陽 晦迹庵 木造阿彌陀佛坐像을 中心으로. 白羊寺의 불교문화사적 가치. 한국불교문화학회 2007년도 동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제12.
- 송은석. (2001). 朝鮮後期 佛菩薩像의 着衣法. 새로운 발견 조선후기조각전. 삼성文化財團.
- 송은석. (2004). 17세기 조각승 현진과 그 유파의 조상. 미술자료 70·71. 국립

중앙박물관.

송은석. (2006). 고흥 능가사 대웅전의 목조삼방불좌상.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 사회평론.

송은석. (2006). 조선후기 17세기 彫刻僧 熙藏과 熙藏派의 조상. 태동고전연구
제22집.

송은석. (2007). 17세기 조선 왕조의 조각승과 불상.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
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덕사 근역성보관. (2005).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

심주완. (2002). 임진왜란 이후의 대형소조불상에 대한 연구. 미술사학연구 233·234.

심효섭. (2000). 朝鮮後期 畫僧 信謙 研究. 韓國文化의 傳統과 佛敎. 蓮史洪潤
植敎授 停年退任紀念論叢 刊行委員會.

안계현. (1974). 불교 억제책과 불교계의 동향. 한국사 11. 국사편찬위원회.

안귀숙. (1988). 朝鮮後期 鑄鐘匠 思印比丘에 관한 研究. 佛敎美術 9. 동국대학
교 박물관.

안귀숙. (1994). 조선후기 佛畫僧의 계보와 義謙 比丘에 대한 연구(상). 미술사연구 8.
미술사학회.

안귀숙. (1995). 조선후기 佛畫僧의 계보와 義謙 比丘에 대한 연구(하). 미술사
연구 9. 미술사학회.

오진희. (2006). 彫刻僧 色難派와 화엄사 각황전 칠존불상. 혜사 문명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미술사의 작가와 유파(I 조각·건축·공예
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유홍준. (1999). 비슬산 명적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미술자료 62. 국립중앙박물관.

윤봉택. (2007). 제주지방의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윤종균. (2002). 범주사 대웅보전 삼신불 복장조사. 동헌학술논문집 5. 한국고고
미술연구소.

이강근. (1995). 17세기 불전의 장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이계표. 白羊寺의 역사. 불교문화연구 제6집. 南道佛敎文化研究會.

- 이병희. (1997). 조선시대 사찰의 수적 비교. 역사교육 61.
- 이분희. (2004). 봉은사 삼세불상의 연구. 한국불교문화학회 하계학술세미나. 봉은사의 불교문화, 한국불교문화학회.
- 이분희. (2006). 彫刻僧 勝日派 불상조각의 연구. 혜사 문명대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문집. 미술사의 각가와 유파(I 조각·건축·공예 편). 한국불교미술사학회.
- 이선용. (2005). 불복장물 구성과 직물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 이영숙. (2002). 율곡사 괘불의 고찰. 동악미술사학회 3.
- 이용윤. (2001). 佛事成功錄을 통해 본 남장사 괘불. 통도사 괘불탱 특별전 - 尙州 南長寺 掛佛幀. 경남: 통도사정보박물관.
- 이은주. (1996). 조선 초기 금동불상에 나타나는 외래형식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 이은주. (2000). 조선 초기 금동불상에 나타나는 명대 라마불상양식의 영향. 강좌미술사 15호. 한국미술사연구소.
- 이은희. (1994). 雲興寺와 畫師 義謙에 관한 考察. 文化財 24. 문화재연구소.
- 이용주. (1999). 여말선초 불교의례의 축소와 천도재의 역할.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종문. (1996). 조선 후기 후불목각탱 연구. 미술사학연구.
- 이종수. (2002). 조선후기 畫僧 快允에 관한 고찰. 통도사 괘불탱 특별전 - 순천 선암사 掛佛幀. 통도사정보박물관.
- 이희정. (2004). 조선 17세기 불교조각과 조각승 청헌. 2004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문집. 불교미술사학회.
- 장희정. (2000). 조선 후기 불화와 화사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정명희 (2000). 조선 후기괘불탱화의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정순우. (2003). 조선전기 불상 양식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정영호. (1975). 장육사 보살좌상과 그 복장발원문. 고고미술 128.
- 정은우. (2001). 고려 후기 불교 조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정은우. (2006). 17세기 조각사 혜희의 불상과 특징,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2. 사회평론.
- 제주불교사회문화원. (2000). 신해양시대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법화사지 복원의 현대적 의미. 제2회 법화사지 학술대회.
- 제주사정립사업추진위원회. (1998). 탐라-역사와 문화.
- 조명기. (1962). 寶篋印陀羅尼經. 考古美術 3卷 6號.
- 천혜봉. (1982). 봉림사 목조여래좌상의 복장 전적. 서지학 7.
- 최몽룡. (1977). 완도 관음사 목조여래좌상과 복장유물. 미술자료 20.
- 최선일. (1995). 湖林博物館所藏 木造佛龕에 관한 研究. 미술사연구 9. 미술사연구회.
- 최선일. (2000). 일본 고려미술관 소장 조선후기 목조삼존불감. 미술사연구 16.
- 최선일. (2000). 朝鮮後期 全羅道 彫刻僧 色難과 그 系譜. 미술사연구 14. 미술사연구회.
- 최선일. (2000). 朝鮮後期 彫刻僧 尙淨과 그 系譜. 한국미술사학회 제131차 월례발표회.
- 최선일. (2002). 日本 高麗美術館 所藏 朝鮮後期 <木造三尊佛龕>. 미술사연구 16. 미술사연구회.
- 최선일. (2003). 용주사 대웅보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조각승 - 戒初比丘를 중심으로. 東岳美術史學 4. 동악미술사학회.
- 최선일. (2004). 高陽 祥雲寺 木造阿彌陀三尊佛坐像과 彫刻僧 進悅. 미술사학연구 244. 한국미술사학회.
- 최선일. (2004). 全羅南道 和順 雙峰寺 木造地藏菩薩坐像과 彫刻僧 雲惠. 佛教美術史學 2. 불교미술사학회.
- 최선일. (2006). 조선 후기 彫刻僧의 활동과 불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최인선. (1994). 康津 玉蓮寺 木造釋迦如來坐像과 腹藏. 文化史學 창간호. 한국

문화사학회.

- 최인선. (1999). 光陽 無等庵 木造大勢至菩薩坐像과 腹藏物. 順天大博物館誌 창간호. 순천대학교박물관.
- 최인선. (2001). 제주도 서산사의 목조보살좌상과 腹藏物. 順天大博物館誌 제3호. 순천대학교박물관.
- 최인선. (2004). 全州 三景寺 木佛2軀와 腹藏物. 文化史學 21호. 韓國文化史學會.
- 최인선. (2005). 濟州道 正房寺所藏 順天 大興寺 石造如來坐像과 腹藏物. 文化史學 23호. 韓國文化史學會.
- 최인선. (2006). 별교 용연사 석조구류손좌상에 대한 고찰. 순천대학교 논문집 제25집. 순천대학교.
- 최인선. (2006). 전남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상과 복장물.
- 최인선. (2007). 고흥 봉래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과 복장물. 문화사학 27.
- 한국문화재보호협회충청남도지회. (1976). 서산 문수사 극락보전 발굴조사 보고서.
- 한상길. (2000). 조선 후기 사찰계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4). 제1회 제주해양포럼.
- 허상호. (2002). 조선시대 불탁 장엄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허홍식. (1993). 복장의 배경과 조상경. 서지학보 10.
- 홍사준. (1976). 홍산 무량사 극락전 발견 주존불 복장품. 미술자료 19. 국립중앙박물관.
- 홍윤식. (1984). 조선 초기 상원사 문수동자상에 대하여. 고고미술 164.
- 황수영. (1975). 안성 청원사 고려사경. 동양학 5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朝鮮時代 濟州道 佛像研究

- 紀年名 佛像을 중심으로 -

김 창 화

목포대학교 대학원 고고인류과 고고인류학전공
(지도교수 이영문)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에서 발견된 조선 후기 불상 중에서 발원문을 통해서 제작연대가 정확하게 밝혀진 16-17세기 불상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제주지역은 백제, 신라시대부터 대륙과의 교역을 통해 많은 문물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고려시대에는 사찰이 건립되었으며 佛書가 개간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가 제주지역에 토착화되었다고 생각한다. 불교의 흔적이 제주에서 처음 확인되는 것은 고려 정종 원년(1034년) 이후부터 불교행사인 팔관회에 참석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사찰 유적으로는 법화사지 발굴 조사를 통해 고려 원종 10년(1269년)에 중창을 시작하여 충렬왕 때에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제주 지역에 산재한 水精寺, 妙蓮寺, 元堂寺, 尊者庵 등 크고 작은 사찰은 제주의 불교신앙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제주 불교는 조선 중기 변협, 광흥, 이형상 목사 이후부터 폐사가 가속화되었고 이 시기를 무불교시대라고 부른다.

제주의 근대 불교는 1908년 안봉려관 스님에 의하여 관음사의 창건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2007년 현재 제주도에 있는 사찰수는 254개소이며

성보문화재는 286건 751점이다.

제주에서 발견된 불상 중 복장물이 발견되어 조성 연대가 확실한 불상은 6구로 1534년에 조성된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1661년), 삼광사 목조보살좌상(1671년),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1698년 개금),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1700년?), 정방사 석조여래좌상(1702년)이다.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은 1534년에 彫刻僧 香嚴이 조성한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이고 복장물로는 發願文, 喉鈴筒, 사리, 오방경, 팔엽대홍련 등이 발견되었다. 香嚴은 수화사로 補助 彫刻僧을 데리고 작업했다는 점에서 彫刻僧 또는 조각승 유파의 존재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은 1661년 彫刻僧 雲惠가 조성한 상으로 복장물로는 發願文, 喉鈴筒, 오보병, 오방경, 圓覺經, 陀羅尼 등이 발견되었다. 이 상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신체비례를 보여주고 있고 옷주름 특징은 오른쪽 어깨 하부, 두 다리 사이, 왼쪽 무릎에 잘 나타나 있다. 삼광사 목조보살좌상은 1671년 彫刻僧 應慧가 조성한 상으로 복장물로는 發願文, 喉鈴筒, 陀羅尼가 발견되었다. 신체는 당당한 편이며 무릎폭이 넓어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자세이고, 수인은 양손을 모두 무릎에 닿을 정도로 내려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중품하생인을 선호하고 있다.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698년 彫刻僧 色難 등에 의해서 개금된 불상으로 복장물로는 發願文과 改金發願文이 발견되었다. 色難의 제작한 불상의 특징으로 얼굴의 전체적인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양감이 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다.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700년경 彫刻僧 進悅이 조성된 상으로 복장물로는 發願文, 喉鈴筒, 陀羅尼, 불경 등이 발견되었다. 進悅이 조성한 불상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둥글며 옷주름의 선도 매우 유려하다. 정방사 석조여래좌상은 1702년 彫刻僧 守日이 조성한 상으로 복장물로는 發願文, 喉鈴筒, 陀羅尼 등이 발견되었다. 守日이 조성한 불상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사각형에 가깝고 길고 날카로운 눈과 굳게 다문 입 등 엄숙 단정한 모습이다.

이러한 불상과 보살상이 종교적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매개체로 복장물이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불상에 있어 복장물이 가지는 의미는 신앙의 대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조사된 불상 복장물들은 많이 생략

되고 있다. 많은 것들이 변질되어 확실히 무엇인가를 알기 어렵고 거의 개봉이 되어 있어 발원문과 陀羅尼 외에는 복장물이 남아있지 않다. 발원문을 살펴보면 불상 조성은 천민들을 포함한 순수한 민생들의 시주와 승려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처의 공덕이 국가 태평과 민생의 편안함을 기원하고 중생들을 불교에 귀의시키려는 승려들의 노력과 개인적인 신앙심의 순수한 열정이 불상조성을 통하여 염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상 조성과 제작년도, 불보살 명칭, 봉안사찰과 전각 등을 기록한 다음 왕과 왕비, 왕세자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연화질과 시주질을 나열하는 등 일반적 양식을 보인다. 그리고 불상 조성에 참여하는 작가의 경우도 모두 승려 계층으로 일반화되었다. 또한 조선전기의 복장기에서 찾아보기 힘든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문구가 발원문에 모두 표현되어 있어 17세기에 형식화되었다는 점에서 불교에 유교의 충효사상이 융화되어 유교적 정치체계가 뿌리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의 기년명 불상의 조각승들은 16세기 조각승 유파의 존재 가능성을 말해주는 香嚴과 17세기 후반에는 雲惠와 應慧가, 17세기말에는 色難과 進悅 등이 유파를 이끌어 불상을 조성하였다. 應慧와 色難이 조성한 불상의 양식은 매우 유사하여 서로 교유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進悅과 守日은 17세기 후반에 활동한 회장 작품과 유사하다.

제주에서 발견된 불상은 모두 소형이고 대부분 전라도에서 활동한 彫刻僧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봉안처 또한 모두 전라도 지역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제주의 근대불교가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도 사찰의 포교당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전라도의 사찰과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형인 이유는 타지 사찰에 봉안되었던 불상이 제주로 옮겨오려면 불상의 크기가 작아야 운반이 쉽기 때문이다. 또한 삼광사 목조보살좌상과 같이 조성된 불상이 전남 신안 일심사에 소장되어 있고 정방사 석조여래좌상과 같이 조성된 불상이 전남 벌교 용연사에서 조사된 것이 수확이며, 앞으로 전라도 지방의 사찰에서 제주 지방 불상과 같은 계열이 계속 발견되리라 기대된다.

<부록 1> 도판목록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2)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5)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6)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6) 참고도판(조각승 수일 작)

<부록 2> 제주도 기년명 불상조각의 비례 현황

사찰명	작품명	시대 (년)	작가명	재질	높이 (cm)	두 고 (cm)	슬 고 (cm)	슬 폭 (cm)	높이: 두고	높이: 슬고	높이: 슬폭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1534	香嚴	나무	58	11.5	12	33.5	1:0.20	1:0.20	1:0.58
월계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1661	雲惠 尙全	나무	43	13	7	26	1:0.30	1:0.16	1:0.60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1671	應慧 戒贊	나무	43	14	10	25	1:0.33	1:0.23	1:0.58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98 개금	色難	나무	75	18	13	45	1:0.24	1:0.17	1:0.60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700 (?)	進悅	나무	43.5	15	7	26	1:0.34	1:0.16	1:0.60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1702	守日	돌	61.5	22	14	42	1:0.36	1:0.23	1:0.68

<부록 3> 그밖에 서산사 관련자료

1) 서산사 비석

① 비석 1

- 높이: 70cm, 너비: 36cm, 폭: 15.5cm
- 앞면: 創建主 姜昌奎 文末白 記念碑
- 뒷면: 誠心尊佛創此法堂
西山 清水 慧月 有光
辛巳年(1941년) 創建
庚子 正月 日
西山寺刹內僧侶 立

② 비석 2

- 앞면: 再建記念碑
- 옆면(왼쪽): 佛紀 二九九三年(1966년) 四月 八日
大靜邑 下蔘里
(오른쪽): 서기 1967년 4월 8일
成佛寺

③ 비석 3

- 成佛寺寮舍新築期成金
서기 1968년 9월

<부록 4> 그 밖에 월계사 관련 자료

1) 월계사 비석

① 비석 1

- 初創主蔡洙三功德碑

② 비석 2

- 重創主張貞烈功德碑

③ 비석 3

- 大化主任成玉記念碑

④ 비석 4

- 大施主 信士 張羽相 記念碑
信女 洪○伊

2) 제주불교교무원 연혁철

23. 월계사¹⁸²⁾

단기4284년(1951년) 2월 15일

월계사주지 유상렬

<월계사 연혁보고>

당기의 건에 대하여 좌기와 여히 보고함

단기4270년도(1937년) 이학암 채수삼 등이 대본산白羊寺 한림면 □□□리에 포교소를 설치하였다가 단기 4272년(1939년)에 유지불능에 인하여 장

182)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pp 287-289.

정열(화주)와 이세진사의 노력하에 본면 옹포리 9번지로 이전하고 寺名을 월계사라 칭함.

<재산목록>

한림면 옹포리 9번지

- 垆 894평
 - 瓦葺 1동(20평) 법당
 - " " (18평) 객실
 - 洋□즙 1동(20평) 객실
- 이상

<옹포 월계사 연혁>

단기 4270년(1937년) 2월 15일 이학암화상과 화주 채수삼 노력으로 한림면에 포교소를 창건함.

단기 4272년(1939년) 4월 8일 이세진화상과 화주 장정열의 노력으로 옹포리 9번지에 이전하여 법당 및 객실 2동을 건축

단기 4282년(1949년)도 유상열화상의 법당을 이창함.

<월계사재산목록>

- 토지부

옹포리 9번지 垆 1300평

상대리 田 3200

동명리 2151번지 田 300

- 건물부

한림읍 옹포리 9번지 목조와즙 법당 24평

" " " 객실 18평

" " " 요사 18평

" " " 문간 3평

- 귀중품부

1. 본존: 1위 목조좌상 高1척2촌 廣9촌 白羊寺에서 전래

2. 칠성탱: 1위 布紙 패상 高4척5촌 廣5척6촌, 홍선조성 4273년
3. 신중탱: 1위 " " 高4척5촌 廣5척6촌, "
4. 축성탱: 1위 " " 高3척1촌 廣2척7촌, "
5. 산신탱: 1위 " " 高3척3촌 廣3척5촌
6. 법화경: 1부

3) 불교제주교구 교무원 총무국

3. 옹포리 월계사¹⁸³⁾

<사찰건립 허가신청서>

今般 교헌 제48조 및 불교 재산관리령 제1조에 의하여 사찰을 건립하겠사오니 허가하여 주시옵기 左記事項을 具하여 茲에 신청하나이다.

추이 본건에 限하여는 단기4272년(1939년) 4월 15일에 건립완료한 것이로니 追認登錄하여 주심을 添告함.

단기 4285년(1952년) 12월 15일

신청자

교무원장 진원일

설립자

주소 제주도 북군 한림면 옹포리

성명 유상렬

불교교정

記

1. 사찰건립 장소 및 그 명칭과 유래

1) 장소: 제주도 북군 한림면 옹포리 9번지

2) 명칭과 유래

183) 제주불교사연구회, 앞의 책. pp 314-317.

월계사, 단기 4268년도(1934년) 한림창건 4273년(1940년) 옹포에 移建

2. 주세불의 칭호 석가모니불

3. 경내지의 평수, 도면 및 其주위사항

1) 평수: 1300평

2) 도면 별지첨부

3) 주위상황: 동 畓, 남 小路, 서 畓, 북 溪水

4. 재산상황

별지목록첨부

5. 창건비 및 其支辯方法

1) 총비용

2) 지변방법

6. 금후유지방법

畓 오백평, 田 육백평 경작

7. 소속신도수

남 110인 여 150인

...(下略)

<월계사 재산목록>

- 토지부

한림면 옹포리 9번지, 垵 1300평

- 건물부

대웅전: 瓦 24평 법당, 한림읍 옹포리

객실: 瓦 18평 객사

향적실: 도당목조 28평

- 귀중품부

1. 본존: 1 목조 좌상 高一尺二寸 廣九寸, 白羊寺에서 전래

2. 산중탱: 1 布紙 괘상 "

3. 칠성탱: 1 " " "

4. 독성탱: 1 " " "

5. 산신탕: 1 " " "

4) 불교시보 제20호(1937. 03. 01)¹⁸⁴⁾

제주도 한림포교당 낙성 겸 봉불식

대본산 白羊寺 한림포교소에서는 구 10월 15일에 낙성 및 봉불식을 거행하였다는데 한림이라면 제주도에서 중요한 도시인데 상당한 불교포교당 하나가 업슴을 그곳 일반인사 유감으로 각오 하든 바 이학암씨를 포교사로 초빙하고 화주 임남방화 채수삼 양씨의 열렬한 시양의 혈성을 하하야 본산보조를 겸하여 일천오백여원의 건축비로 거 6월부터 건축공사를 비롯하여 동 10월 초순에 완성한 바 낙성 즉시로 신발의남녀신도가 수백명에 달한다.

184)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p 116 재인용.

<부록 5> 그 밖에 삼광사 관련 자료

1) 서옹종정 법어비

<漢拏山 三光寺 開榻法會 法語>

古佛叢林 白羊寺 方丈 西翁

殺活自在 佛不辨 獨脫無依 活潑發

倒騎沙婆 出重刹 年年歲歲 新世界

喝

죽이고 살리고 자재하니 부처도 판가름 못하고

홀로 벗어나 의지없이 활발발 자유롭다.

세상을 거꾸로 타고 겹겹세상을 뛰어나니

해마다 해마다 새로운 세계로다.

갈

開榻日 2542 戊寅年 春分節

<부록 6> 그 밖에 관음사 관련 자료

1) 안봉려관¹⁸⁵⁾

安蓬廬觀 스님은 일제 강점기 때 觀音寺를 창건한 비구니로 속명은 安廬觀이다. 본관은 순흥이며 제주시 화북리에서 안치복을 아버지로 하고 어머니 평산

신씨 사이의 둘째 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불교에 귀의하여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 1882년에 결혼하여 1남 4녀를 두었으나 1889년 우연히 고승을 만나 1907년에 전남 해남군 대흥사의 유장 스님에게 삭발을 하니 법명을 봉려관이라 하였다. 제주불교가 그림자까지 꺼질 듯한 환경에 이르자 이를 중흥시키기 위해 1908년 봄 한라산 북쪽에 觀音寺를 창건하였다. 1925년 가을 안도월 포교사와 안봉려관 스님은 힘을 모아 제주시 이도리 1362번지의 토지 516평을 매입, 포교당을 창건하여 불교 포교에 정력을 쏟았다. 그녀는 또 法華寺를 중창하기 위해 1926년 여름 도원 선사와 더불어 중창하였다. 이는 이희명 선사가 1924년 12월부터 1930년 4월까지 6년 동안 제주 포교 담당자로 관심을 크게 가진데서 더욱 빛을 보게 되었다. 한라산 북쪽이며 산천단 서쪽 속칭 세미털이란 곳에 비구니 안봉려관이 觀音寺를 창건 운영하면서 제주 불교가 새롭게 태어나고 이 절은 당시 도내 제일 큰 규모로 알려졌다. 당시 제주영림서에 근무하는 김영희의 도움으로 아라동 산 66번지 일대 약 5만평을 얻어 조선총독부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 1938년 5월 29일 봉려관 비구니가 입적하니 이 날은 도원 선사의 대상날이었다. 1943년 이화 스님을 회명 선사에게 보내어 안봉려관 스님의 비문을 지어 달라고 하여 이를 동년 7월 5일에 세웠다. 觀音寺는 1940년 5월 29일 화재로 소실되자 재건하였는데 1948년 4·3 사건 당시 다시 전소되어 현재의 건물을 다시 지은 것이다.

185) 김찬흠 편저. (2000).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p 277.

2) 제주교무원 사찰등록철(단기 4286년, 1953년)

3. 아라리 관음사¹⁸⁶⁾

<사찰건립 허가신청서>

단기 42424년(1909년) 4월에 건립 완료한 것이오니...(중략)...

단기 4286년(1953년) 1월 10일 신청

1. 장소: 북제주군 제주읍 아라리 387번지
2. 명칭 및 유래: 관음사
3. 평수: 2824평
4. 주위상황: 西面 山中인데 東 百畝許 삼양봉, 西 평원고지, 南 一畝畝許, 한라산頂, 北 十五畝許道市街地
5. 금후유지방법: 田 15264평 畓 589평 林野 16町500步 및 社寺地의 잔여수입 및 신도의 정시로서 유지함.
6. 남녀 천여명

<제주교구 관음사 재산목록>

- 토지부

1. 북제주 제주 아라 387번지, 지목 사사지, 지적 2824평, 국유이며 본사부지
2. " 375-2 221평, " 산신각부지
3. " 375-4 609평
- 4.(賣渡移轉) " 이도 674-2 田 1736평, 지가5728월 觀音寺교도들이 賣渡
5. " 오등 250-1 田 1805평
6. " 오등 214 田 505평, 지가 252원
7. " 오등 215 田 103평, 51원
8. " 영평 785 田 504평, 100원 廢地

186)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pp 294-296.

9.	"	영평 787	田	664평,	132원	"
10.	"	오라 2401-2번지	田	2200평,	지가 6382원	
11.	"	용담 581번지	지목 田	지적 3650평,	지가 5390원	
12.	"	도남 575번지	"	572평,	800원	
13.	"	도남 699번지	"	245평,	343원	
14.	"	화북 5568번지	"	2755평,	1377원	황무지
15.	"	아라 1286번지	"	525평,		황무지
16.	"	연동 1827번지	畓	289평,	289원	현재폐답
17.	"	일도 1478번지	"	299평,	1794원	
18.	"	일도 1479번지	"	324평,	1944원	
19.	"	아라 산53번지	林野	5000步,		現赤成林
20	"	아라 산66번지	"	15町5500步,		現□未成林

3) 매명문집

濟州觀音菩薩改金發願文¹⁸⁷⁾

제주포교당 관음보살상 개금불사 발원문

달이 長空에서 비춤에 그림자가 一千강물에 떨어지고 부처님의 사바世界에 出現함에 智慧는 一萬衆生の 根機에 맞게 하시니 지금 이 濟州道는 靑¹⁸⁸⁾나라 熙四十一年 壬午에 濟州牧使 李衡祥이 佛寺를 헐고 승니를 쫓아낸 뒤로 佛教가 없어졌으나 距今 二十五年前 靑나라 光緒 辛丑年에 이곳 禾北里에 사는 靑信女 乙丑生 安氏는 願을 세운 곳에 種子가 있는 지라 忽然히 그 싹이 나서 佛日을挽回하고자 하나 가난하고 약한 처지 이기에 온갖 폐단이 생기기에 여러해를 지나다가 海南郡 大興寺의 有藏 스님에게 削髮하니 法名은 蓬廬觀이다. 그때에 嶺南 山淸 사람

187) 권태연 편역. (1991). 매명문집.

제주불교사연구회. 앞의 책. pp 181-182 재인용.

188) ‘靑’을 ‘靑’으로 잘못 옮김

安道月이 우연히 濟州道에 들어왔다가 봉려관과 因緣이 맺어짐에 同心으로 힘을 모아 濟州성내 二徒里에 제주불교포교당을 建築하고 乙丑 八月二十四日에 海南 大興寺에서 觀音보살상을 모셔와서 봉안하니 이 보살상은 거금 二百二十七年前에 改金을 한 文徵이 發見되었다. 이에 比丘尼 徑化가 스스로 신심을 내어 널리 모연하여 다시 改金하니 儼然히 빛과 모양이 연꽃좌대에 빛나는 지라 이는 전 道民의 위없는 大福田인지라 隨喜讚嘆하는 동시에 누구든지 구하는 것이 있으면 이루어지고 願하는 것이 있으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기를 간절히 祈願하노라.

<乙丑年 十月 一日>

4) 매일신보(1924. 06. 04. 4면)¹⁸⁹⁾

제주관음사 낙성식

제주도 한라산에 설치된 관음사의 실황은 왕년 本報에 소개함과 같이 봉려관씨의 열성과 안도월씨의 알선으로 多年 건축중이던 법당은 이번에 낙성을 告하고 음력 4월 초파일 석가모니불의 탄생을 기념으로 성대히 낙성식을 개최한 바 甘船月씨의 개회식사가 있는 후 이회명씨의 불교강연과 박영희씨의 역사설명과 본사 대표 車升玉씨로부터 창사의 내용 및 내력을 상세설명하고 前田島司의 대리료 加藤英造씨가 출석하여 장래 확장에 대한 축사가 있어 관람자 남녀 합 만여명에 달하여 자못 인산인해를 이루어 본도 開荒후 미증유의 대성황을 致.

5) 매일신보(1939. 07.25.3면)¹⁹⁰⁾

189) 제주불교사연구회. 앞의 책. p 23 재인용.

190) 제주불교사연구회. 앞의 책. p 23 재인용.

제주 관음사 灰盡

현금 8백원도 소실

지난 20일 아침에 제주도 한나산에 잇는 관음사에서 출화아야 불꽃은 맹렬한 바람으로 삼시간에 대웅전과 승방 한 채 객실 한 채 합 세채를 전소하고 정오에 일으로 겨우 진화되었는데 손해는 현금 8백여원과 도구 일습 등 불소하다 하며 목하 그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바 이 절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봉려관씨가 창설한 것으로 본도에 잇서서는 가장 대표적 사찰이라 한다.

<부록 7> 그 밖에 용문사 관련 자료

1) 용문사 사적비

(전면)

李性徹 金喆萬 金京南이라 高菩薩님은 三十歲時(一九一二年)에 西歸 浦市 雙鷄寺에 入門 佛教와 因緣을 맺고 一九三二年에 日本國으로 건너가 大阪所在 任基淳寺刹에서 修道하다가 夫君死亡으로 西紀一九三六年에 歸鄉 濟州市所在 帝釋寺에 入門 化主로 活動하다가 一九四一年 漢東里上洞에 念佛

堂을 建立 祈禱를 하였으며 解放되는 해인 一九四五年에 親家에서 相續된 土地千坪을 賣渡 現龍門寺 敷地中 三百二坪을 買入 딸 三姉妹와 함께 草家 二棟을 建立 當時 高正선스님이 부처님을 奉安하시고 龍門寺로 命名하다 그 後

法堂이 狹小하므로 西紀一九六九年度에 信徒들이 精誠을 모아 法堂 二十八 坪을 建立하고 一九七一年三月九日자로 敷地 三百二坪을 信徒會에 喜捨하여 信徒會로 登記하다 高菩薩님은 平生동안 부처님의 道를 닦기 爲해서 萬苦를 다 겪으시다 八十一歲時 一九七三年一月九日 他界하시니 生前의 高菩薩님의 功德을 높이기려 信徒들이 精誠어린 마음으로 이에 碑를 세 우다 本寺住持는 承繼하여 高菩薩님의 墓伐草와 祭祀를 奉行하기로 하였다 (좌측면)

佛紀二五三一年 陰閏六月二十九日

西紀一九八七年

信徒會長 金田根外

信徒一同 謹堅

2) 불교제주교무원의 자료(단기 4284년 6월 20일 현재)¹⁹¹⁾

191)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pp 276-277

하도리 용문암

불교 제주교구 하도리 용문암 연혁

- 本庵은 단기 4278년(1945년) 11월 □5일에 설립자인 고수열씨가 부지 3백 여평을 매수하고 초즙목조로 18평의 건물을 건축하고 비품설비하여 포교 開門 하니 당시명칭은 觀音寺중앙포교당하도출장소이며 감원에 고정선씨어다.

- 本庵의 설립계출은 단기 4282년(1949년) 11월 20에 명칭을 龍門庵으로 개칭하고 직속 제주교구를 경유하여 계출하였든바 于今까지 무소식함.

당시 감원에는 李奉洙씨어다.

- 本庵은 但棟挾間上 포교지장으로 단기 4283(1950년) 정월 4일에 설립자 고수열씨가 木造草葺으로 16평의 법당을 건축함에 이어 동년 5월 20일에는 단기 4278년 11월 25일 付 건설한 건물을 객실로 재건축창하다. 당시 감원 이봉수씨 역임으로 인하와 始創者인 고수열씨가 원주의 책임을 현재 갖고 있음.

- 本庵의 佛具에 대하여는 단기 427년 12월 8일에 구례 화엄사에서 하시울 화상의 소개로 신중탱화와 칠성탱화를 移運於 봉안하고 주세불상은 단기 4282년 10월 15일에 서귀면 洪爐寺에 가서 김두전씨의 안내로 移運於 보안하였음

단기 4284년 6월 20일

용문암 원주 고수열

<불교제주교구 하도 용문암 재산목록>(단기 4284년 6월 20일)

1. 부지: 전 302평
 2. 법당: 木造草葺 16평
 3. 식당: " 18평
 4. 불상: 1위
 5. 탕화: 칠성탱, 신중탱 2부
 6. 경(석문의범): 양지 상하1책
-(下略)

단기 4284년 6월 20일 용문암 원주 고수열

<부록 8> 그밖에 정방사 관련자료

1) 정방사 연혁비

비좌의 크기: 가로 105.0cm, 세로 39cm, 높이 18cm

비신: 가로 91cm, 세로 58cm, 두께 21cm

沿 革

漢拏山跋陀羅寺觀音地藏兩菩薩記
寺初創於垵上曰雙溪末久移於烘爐又
移此地而沙門南夏姓金地方信佛紳士
協力建築起工於乙亥年三月同七月告
畢而佛教初入高句麗妃創肖門及伊弗
蘭兩寺年紀暗符也白鹿潭水溢沔此地
正房天地兩瀑直垂九天寺在於此朝暮
風雲變態無常海帆漁唱湧出超然然想
而北遮漢山冬無極穴垵下滄海夏無苦
炎炎虎蚊竹三島羅列海中凌貴參天恒有
夾氣景慨之勝西歸一帶自點本島之甲
既而優婆夷高潤眞蔚山方魚津移居二
十有五年而將還里人欲作離合一如者
不如佛像吳氏寶蓮華言之衆曰可也吳
氏任造像妃終今年成道日佛像渡來九
日點眼十五日奉安而歸依者日加可作
萬人之及因緣可謂以待時與人也豈非
緣勝地勝者歟白羊寺曼庵禪師大昌本
寺餘力及于濟島六處教堂眞是如來親

使矣末世扶教何其如斯乎余到月初以
參奉安妣終而無建寺之記故大畧如上
而苦待有志君子之實記云爾
時丙子十二月望後日海雲性照識

2) 비석

① 비석 1

- 정면: 創設功德主 李東根 姜花田 李熙鐘 李熙觀 李在燦 李熙順
- 후면: 佛紀二九六四年 丁丑 十一月 玉露泉 正房寺 建
- 불기 2964년 정축(1937년)
- 62×31×10.5cm

② 비석 2

- 정면: 創建施主高太學氏 紀念碑
- 후면: 佛紀二九六五 昭和十三年 戊寅 四月 日 正房寺 建
- 불기 2965년 戊寅(1938년)
- 68×26×14cm

③ 비석 3

- 정면: 創設化主 金南夏禪師紀念碑
- 후면: 佛紀二九六五 昭和十三年 戊寅 四月 日 正房寺 建
- 불기 2965년 戊寅(1938년)
- 68×26×14cm

④ 비석 4

- 정면: 大施主高潤眞女史紀念碑
- 후면: 佛紀二九六五 昭和十三年 戊寅 四月 日 正房寺 建
- 불기 2965년 戊寅(1938년)

- 70×26×14.5cm

⑤ 비석 5

- 정면: 創設功德主 韓汝玉氏 洪鍾成氏 金文玉氏紀念碑
- 후면: 佛紀二九六五 昭和十三年 戊寅 四月 日 正房寺 建
- 불기 2965년 戊寅(1938년)
- 69×26×14cm

⑥ 비석 6

- 정면: 改金佛事施主 故仁同張氏 紀念碑
- 후면: 佛紀二九六九年 壬午 四月 八日 正房寺 建 爲 洪淳五慈親
- 불기 2969년 壬午(1943년)
- 71×27.5×14cm

⑦ 비석 7

- 정면: 大功德施主 洪淳五氏 紀念碑
- 후면: 佛紀二九六九 昭和十七年 壬午 十二月 日 布教寺寺內元澤 法
堂增築 施主時化主原元潤眞
- 불기 2969년 壬午(1943년)
- 69×28.7×13.5cm

⑧ 비석 8

- 정면: 大功德施主 金琪昌氏 紀念碑
- 후면: 佛紀二九六九 昭和十七年 壬午 十二月 日 布教寺寺內元澤 法
堂增築 施主時化主原元潤眞
- 불기 2969년 임오(1943년)
- 70×29×14cm

3) 불구류

정방사에는 연혁과 이전 寺名을 알 수 있는 불구류가 보관되어 있다. 모두 4개의 佛具가 있는데 2개는 중형이고, 2개는 대형에 속한다. 모두 같은 형식이며 공양용 불기이다.

(1) 불구 1

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몸신 옆면에 “濟州道雙溪寺大施主西歸里乾命辛巳生高斗營”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규모 - 높이 14cm, 지름 22.2cm, 깊이 8cm, 전폭 1.8cm, 굽높이 6cm, 굽지름 12.5cm

(2) 불구 2

황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몸신 옆면에 “濟州道雙溪寺大施主西歸里乾命辛巳生高斗營”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규모 - 높이 14cm, 지름 22.2cm, 깊이 8cm, 전폭 1.8cm, 굽높이 6cm, 굽지름 12.5cm

(3) 불구 3

백동으로 만들어졌으며 전 부분에 “늦동니”, “昭和七年一月二十日”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고 이 불구에만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있다. 소화 7년은 1932년이다. 그리고 굽 부분에 “全南 濟州島 右面 上孝里 雙溪寺 大施主 西中面爲美里 坤命 癸巳生 玄元河 率子 己巳生 李蘭樹 長命之大願”이라는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규모 - 높이 19cm, 지름 36cm, 깊이 13.5cm, 전폭 2.5cm, 굽높이 6cm, 굽지름 22.9cm

(4) 불구 4

방자 유기로 만들어졌으며 명문은 없지만 앞의 것과 같은 형식이다. 규모 -

높이 19.5cm, 지름 36cm, 깊이 13cm, 전폭 3.5cm, 굽높이 7cm, 굽지름 21.5cm

<부록 9> 순천 대흥사 관련자료

순천 대흥사에 관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 ① 昇平志(1618년) : 龍臺庵 在府北五十里 新增卽今大興寺也(壬戌新增)今無
- ② 新增昇平志(1729년) : 龍臺庵 在府北五十里 新增卽今大興寺也
- ③ 輿地圖書下(1760년) : 順天府 寺刹條 大興寺 在府北五十里洞裡山下
- ④ 伽藍考(英祖代) : 大興寺 在全羅南道順天郡桐裏山 府北五十里
- ⑤ 梵宇考(1799년) : 龍臺庵 在府北五十里 卽大興寺
- ⑥ 太古寺寺法 : 大興寺 在順天郡月燈面鳳頭山 大本山仙巖寺末寺
- ⑦ 桐裡山大興寺新造寶輦及請堂記¹⁹²⁾

有客也 法號天祥也 胸鍾秀氣也 眼豁眞空也 孟擎片月也 衲作清霞也 到此寺也 慨寺物之不脩也 歲值赤馬也 遠向龍灣鴨江也 採得七珍百寶也 年三匝而還來此寺也 與天悅爲約也 如膠投漆也 如鼓瑟琴也 旁求聚落也 倩諸良工也 雕三寶之寶輦也 做一所之請堂也 其爲物也 綵龍擁衛於前後也 金鳳鼓翼於左右也 以奇錦爲天也 以珠網爲帳也 至若雕甍畫棟之美 孰加於此也 近古以來 未嘗有也 噫 其在兩師之分上也 天地一堂也 萬物一輦也 未嘗以此物之貴賤華質爲意也 況有誇功後世之心也 然檀子之所願也 寺僧之所懷也 未必俱如此也 略記其顛末也 以示諸其後也 若夫山之美麗也 寺之清幽也 人皆目擊也 不必翫縷也 因錄檀那芳目秩 秩于后

(번역문)

동리산대흥사 신조보연 및 청당기

나그네 한 분이 찾아왔는데, 법호는 천상(天祥)이다. 가슴에는 수려한 기운을 감추고 있고, 눈동자는 진솔하고 텅 비어 있으며, 말우에는 조각 달빛이 드리우고, 승납에는 맑은 노을이 가라앉은 듯하다. 이 절을 찾아와서는 절집으로 미비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개탄을 하는 것이다. 해는

192) 枕肱集 卷下. 韓國佛教全書 第八冊. p. 360.

침평의 범명은懸辯이고 속성은 윤씨이고 나주인이다. 天風山 塔庵에서 출가하여 逍遙太能의 선법을 계승하였다. 송광사, 선암사, 연곡사 등에서 주로 주석하다가 말년에 金華山 澄光寺에 머물렀다. 1616년 6월 12일에 태어나서 1684년 4월 12일에 입적하였으며, 枕肱集의 저술이 남아 있다.

병오년(1666)이었다.

이곳은 멀리 용만압강을 바라보고 있고, 칠진백보를 채득하고 있다. 3년을 지나고 나서, 또다시 이 절을 찾아와, 천열(天悅)과 약속을 한 것이 마치 야고를 칠에 던진 것처럼, 거문고와 비파가 화음을 이룬 것처럼, 두 분의 마음은 일치하였던 것이다. 주위에 터를 마련하고, 여러 장인들을 맞아들여, 삼보(三寶)의 보연(寶輦)을 만들고, 청당을 짓고 나니, 주위 분위기는 마치 화려한 용이 앞뒤를 감 쌓은 듯하고, 황금 봉황이 좌우에서 날개 펼치듯 하며, 비단으로 하늘을 삼고, 구슬 그물로 장막을 삼으니, 빛나고 화려한 기와 기둥들의 아름다움들은 어떤 것이 이보다 더 나올 수 있겠는가? 근래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아! 이 두 분 선사의 역할은 최고였다. 天地에 유일한 堂이며, 萬物 중에 유일한 輦이었지만, 일찍이 이 일은 貴賤華質로써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니, 하물며 후세에 자랑할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이었겠는가? 그러나 檀은 자식의 所願이며, 절은 스님의 所懷이니, 반드시 것처럼 과장된 자랑은 못하고, 대략 그 전말만 기록해서, 훗날 사람들에게 보여줄 뿐이다.

예를 들어 아름답고 고운 산의 모습이나, 맑고 조용한 절의 분위기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목격할 수 있는 것이기에, 굳이 자세히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기록으로 인해서 시주 목록 등을 뒷면에 열거하노라.

⑧ 順天桐裡山大興寺寒山殿重建記¹⁹³⁾

我殿下卽位之三十三年春三月 寒山殿僉徒 慮其殿傾 漏枝附葉 從役一月告成 使覺律徵識曰 殿之創 自鄭公始公府之臣室 亦仁人遊此詠寺 貧無施利之句 施如千米 囑僧爲泉 本如其言 流至數十石 戊辰春 海眼主之化 哲倫掌其財 寺僧亦龍虎 董其役 僅成殿樣而主掌者 還火宅以故殿已 今也重新則曠

193) 雪巖雜著 卷二. 韓國佛教全書 第九冊. p. 276.

설암의 범명은 秋鵬으로 해남 대둔사 13대 강사 가운데 5번째 강사이다. 그는 1651년 8월 27일에 평남 강동에서 태어나 56세 때인 1706년 8월 5일에 입적하였다. 월저도안(月渚道安)에게서 10여 년 동안 공부하여 그의 법을 이어 받았으며, 선과 교 양종에 통달하고 시문을 잘했다. 다비하여 사리 5과가 나오자 나누어 낙안의 정광사와 해남의 대둔사에 각각 부도를 세워 봉안하였다. 雪巖雜著, 雪巖亂藁 등의 저술이 있다. 東師列傳

余曰鄭公之贊 君等之功 固不可巧 而寒山何古有太公泉 太公飲之之泉也 古有郎官湖 郎官遊之之湖也 則此亦爲寒山遊之之殿也 曰不則山近玉戶 寒生石枕 大忘人世 遊乎物初之志乎 曰不則寒山有詩曰 手把兎角弓 以射無明鬼 則使居寒山者 法寒山以兎角弓射無明鬼 遊乎閭闔寥廓之外之志乎 曰諾曰善 遂書此爲寒山殿記

(번역문)

순천부 동리산 대흥사 한산전 중건기

우리 전하 즉위한 지 33년 봄 3월에 한산전의 여러 분들이 그 전이 기울어가고 주위가 다 허물어져가는 것을 염려하여 보수를 한 지 한 달 만에 완성을 보고 각률로 하여금 기록을 남기게 하였더니 말하기를

“한산전 창건은 정공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공은 府의 거실로서 역시 어진 사람이었으며 이곳에 놀러와 절에 대해 시를 읊기도 하면서 청빈하면서도 이익을 쫓는 글귀는 없으며 그 배품은 마치 간미(干米) 같았다. 스님에게 부탁하여 샘을 만들라 하니 본래 그의 말처럼 그 흐름은 수 십 석에 이르렀다. 무진년 봄에 해안은 화주를 맡고 칠륜은 재무를 맡고 절에 스님들 역시 용호처럼 그 일을 도맡으면서 겨우 한산전의 모습이 드러났으나 책임자들이 도리어 속세에서 못 벗어난 고리타분한 모습일 뿐이었는데 이제 다시 새롭게 완성을 하니 넓기만 하다.”라고 한다. 나는 말하기를 “정공의 재물과 여러분의 공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은 ‘한산’이란 아주 옛날 태공천이 있는데 태공이 마셨다는 그 샘일 것이며 옛날에 낭관호가 있었다는데 낭관이 노닐었던 바로 그 호守日 것이다. 그렇다면 이곳 역시 한산이 노닐었던 그 전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산은 옥호에 가깝고 차가움은 석침에 가까우니 인간세상일 모두 잊고 물초의 뜻에 노닐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한산시에 ‘손에 토각궁을 잡고 무명귀를 쏜다’가 있는데 가령 한산에서 지내는 사람은 한산을 본 받아 토각궁으로 무명귀를 쏘면서 행태그런 성곽 너머의 뜻에서 노닐 수 있지 않겠는가.” 말하기를 “그렇다.” “그리고 좋다”하고 드디어 이를 써서 한산전기를 삼노라.

위의 기록으로 보아 대흥사는 처음에 龍臺庵이란 조그마한 암자로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어느 시기에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寺名이 등장하지 않고 1618년에 저술된 昇平志에 처음으로 기록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용대암의 창건은 1530년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①-⑥의 기록은 단순히 사찰의 위치와 사명만이 거론되어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아 대흥사의 연혁을 살필 수 없다. 단지 ⑦에서 병오년(1666년)에 天祥이란 스님이 찾아와서 이 절의 형편이 미비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개탄하고 있으며, 침괘 스님이 당시의 절 모습을 맑고 조용한 분위기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 17세기 중반의 대흥사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1669년에 寶輦을 새로 만들고 講堂을 지었으며, 청당은 瓦家였다. 1702년에는 石造의 過去七佛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그리고 ⑧에 의하면 1707년 3월에 寒山殿이 기울어가고 주위가 다 허물어져가자 이를 중수하였다. 한산전은 鄭公이 창건하였으며 이때의 화주는 海眼, 재무는 哲倫比丘가 맡았다.

이 절의 명칭은 ①의 기록처럼 처음에는 龍臺庵이었으나 그 뒤에 大興寺로 개명되었다. 개명된 시기는 ⑦의 기록이 가장 빠른 점으로 보아 17세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대흥사는 輿地圖書에 定惠寺, 松廣寺, 大光寺, 仙巖寺, 興國寺에 이어서 등장한 것으로 보아 18세기 순천의 대표적인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